신작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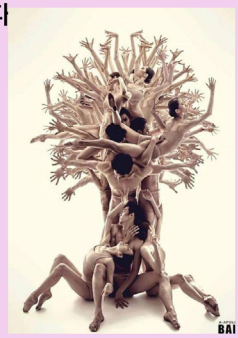
권천학

4월, 팽목항의 절규 * 권 천 학

K문화사랑방

아무리 상처가 보석이 된다지만 이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진주의 몸에 보석의 씨를 심은 게 아니다

생목숨을 물속에 처넣고
애타게 손을 내미는 생 몸뚱이들을
무지와 몰염치의 무쇠해머로 까뭉개고 말았다
뭉개진 파편들이 우리들 심장에 박혀
오래, 아주 오래 오래
함께 아프다, 아파야 한다



혹독한 얼음을 뚫고 피어난 겨울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지만 이건 아니다
우리는 지금 탐욕과 사악함으로
얼음을 뚫고 올라오는 꽃송이들을
희망의 모가지를 뽑아버렸다

이제 우리는 사람 될 자격을 상실했다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될 자격을 상실했다
으깨어진 꽃잎의 마지막 향기 앞에, 무참한 희망 앞에
무릎 꿇고 빌고 빌어야 한다
연자 맷돌을 지고
정신의 흰 뼈가 드러나도록 돌고 돌아야 한다

살점 떨어져나간 그 부두 바다 끝
4월의 팽목항이여!

붉다
참 붉다

풍경소리
염불소리
바람소리

붉다붉어, 참 붉다
환장하게 붉다
소승, 언제 저렇게 붉어질까요

환장할 때마다 붉어진 피
세세연년 쏟아내었더니
피가 꽃 되더라

사진- 이진형

용왕님 전 상서 * 권 천 학

K문화사랑방

용왕님, 제발 우리의 아이들을 용서해주십시오.
그 녀석들, 이제 막 꽃피는 열여섯 열일곱 살의, 철부지들입니다.

진도 앞마다 팽목항, 당신의 나라 맹골수도, 용궁의 문전에서 길을 녀석들을
용왕님께서 볼기 한 대씩 철썩 붙여서 돌려보내주십시오
돌아와 할 일이 많은 놈들입니다
돌아와 대학도 가야하고, 이 나라도 끌고 가야할 놈들입니다
아직 철은 덜 들었어도 이제 막 꽃을 피우려고 하는 꽃송이들입니다

때로는 부모속도 썩이고, 때로는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시간에
카톡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들 애를 태우기도 한 녀석들입니다
그래도 꿈은 야무져서 우리의 빈속을 달래주는 든든한 기둥들이었습니다

용왕님, 이제 고만, 차디찬 물속에서 정신을 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곳에서 새끼를 잃은 어미와 애비들이 혼절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나, 형, 동생들과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점 떨어져나간 고통을 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려보내 주시면 이제 저희가 혼을 내겠습니다, 저희가 야단치겠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의 부활절 고난주간,
노인과 장애인의 발을 씻기는 교황의 세족식을 보며,
피눈물 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용왕님, 제발 죄 많고 뻔뻔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아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부디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2014년 4월 19일
부끄러운 대한민국 국민 올림.

시조 **조춘(早春) * 權 千 鶴**

K문화사랑방

철 이른 싹눈 뜨고 내다본
바깥세상
손발 끝 시리기는 아직 겨울인데
언제나
앞선 한 걸음 세상 여는
혁명군

권천학

《현대문학》(1990)시등단, 한국시조문학(2016) 등단, 컬럼니스트, 캐나다 한국일보, Toronto K-Journal 고정 집필, KMS(K-문화사랑방) 대표, 하버드대학교 세계번역대회, 코리아타임스, WIN(Writers International Network Distinguised Poet Award), 이달의 문화예술인 선정, 초청 시화전 개최(포트무디시 예술회관) 등. 우탁시조문학상 외, 영한시집《$2H_2 + O_2 = 2H_2O$》외 2권, 한글시집《그물에 갇힌 은빛 물고기》외 12권, 일어시집《空っぽの都市の胸に電話をかける(빈도시의 가슴에 전화를 걸다)》외.
impoet@hanmail.net

신작시조

김기흥

명상과 음악 외 2편

공복에 냉수한잔 마신후에 잠시명상
가벼운 몸과마음 음악으로 채워주고
겨울의 귀한햇살 스며드는 아침풍경

단잠을 자고나니 가벼워진 몸과마음
평소의 습관대로 명상으로 하루열고
베토벤 모짜르트 교향곡을 즐겨듣지

명상을 하다보면 마음속이 비워지고
음악을 듣노라면 잔잔하게 감흥일고
명상과 음악감상 매일아침 주요일과

여행

익숙한 것들곁을 잠시나마 뒤로하고
새로운 다른것을 돌아보며 세상구경
견문도 넓혀가며 기분전환 상책이지

여행의 즐거움중 먹거리가 빠질손가
뱃속이 든든해야 경치들도 눈에드니
자연과 사는모습 함께봄이 여행참맛

처음에 가는곳도 여러차례 가본곳도
때마다 다른풍경 갈때마다 다른느낌
여행이 주는느낌 그때마다 다르다네

조화

더울땐 겨울생각 무더위를 이겨내고
겨울엔 여름생각 강추위도 잠시잊고
마음을 달래가며 사는방법 찾아야해

둘이서 걸어가면 멀리가기 수월하고
슬픔을 함께하면 그무게는 줄어들고
기쁨을 나눈다면 그크기는 더커지지

바쁘고 번거롭게 정신없이 살다가도
잠시만 숨고르고 돌아보며 생각하면
속도와 균형감이 필요한게 인생살이

雲峰 김기흥

호 운봉雲峰,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조달청,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근무, 2012년 여수 세계엑스포 자문위원, 《한강문학》11호(2017.겨울호)시부분 신인상 수상, 시집 : 《나는 산안에 산다》 1, 2집 외.
E-mail: 1957kkh@hanmail.net

신작서사시

주장성

이 순 신

- 명량해전 -

구국 헌신의 해양 서사시
국가적 불의를 자신의 정의로 극복한 사나이
바다에서 새롭게 읽는 조선 수군 장수 이순신

주 장 성

시인, 《한강문학》22호(2020.가을호) 시부문 신인상 수상 등단, 희곡부문 신인상 수상(23호.2020), 해군사관학교 졸업(1972), 해군 복무(1972~1993), 세한대학교 명예교수, 대한요트협회 교육이사(1995), 요트스쿨운영, 한강문학극시회 회장

적선은 수없이 밀려왔다.
바람을 등에 진 검은 돛이 바다를 덮었다.
물을 가르는 예리한 소리가 해협을 메웠다.
이순신은 단 13척.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명량은 소용돌이쳤다.
울돌목은 누구의 무덤이 될 것인가.
물살은 번뜩이며 적을 노렸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8월 20일, 이순신은 12척의 판옥선을 이끌고 방어에 불리한 회령포를 떠났다. 이진을 지나 24일 어란진에 이르러 진을 쳤다.

무리한 일정에 지친 이순신은 심한 몸살을 앓았다.
좁은 배에서 숙식하며 전장을 탐색하던 그는 어란진에서 겨우 기력을 회복하였다.
8월 26일, 척후 임준영이 말을 달려와서 보고 했다.
“적들이 벌써 이진에 도착했다”

칠천량에서 전사한 이억기의 후임으로 김억추가 전라우수사로 부임해 왔다.
이 무렵 왜군은 이순신의 복직 소식을 들었다. 그의 행방을 탐색하기 위해 어란진을 공격했다가 이순신이 반격에 나서자 삼도수군통제사 깃발을 확인하고 급히 물러났다. 조선 수군은 갈두까지 쫓아갔다가 돌아왔다.

본대로 돌아간 왜군 탐방대는 이순신의 존재와 조선 수군의 규모를 보고했다. 왜 수군 지휘부는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순신을 이빨 빠진 호랑이로 여기고 최후의 일격을 안겨 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와키자카는 달랐다. 그는 한산도의 참패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

8월 29일, 왜 수군의 공격 임박 징후가 탐지되었다.
왜 수군이 남해에서 서해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진도를 통과해야 했다.
진도에는 통과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동, 서 2개의 수로가 있었다.
이순신은 처음부터 의문을 가졌다. 적은 어느 쪽으로 올 것인가?
공격자와 방어자의 수로 선택이 곧 전투의 승패를 가를 것이었다.

이순신은 자신을 적장의 위치에 놓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였다.
진도 수로가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갈두 분기점에 배를 세우고 두 수로를 관찰하였다.
"조운선 경험이 있는 병사를 불러라!"
이순신이 지시하였다.
노련한 병사들이 모였다.
"진도 수로, 적은 어느 쪽으로 올 것인가?"
한 노병이 입을 열었다. "저는 조타장으로 조운선을 몰고 수 없이 진도 수로를 오르내렸습니다"
"말해 보시게" "동수로는 항로가 길어 통과하는 데 온종일이 걸립니다. 게다가 역조를 만나 막힙니다""흐음!""바람이, 아무리 잘 불어도 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닻을 놓거나 해안에 붙어서, 다음 물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닻 밭은 암반이며, 해안은 절벽 아니면 펄밭이라 정박이 어렵습니다""서수로는?" "서수로는 어란진에서 밀물에 출발하면 물이 바뀌기 전에 울돌목을 넘어 우수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다음 물때에 출발하면 그대로 안면도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울돌목 통과가 여의치 않으면?""벽파진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됩니다"

"바람은 서수로가 좋고, 동수로는 험합니다. 물길도 동수로가 더 험하고요"
이순신의 눈이 빛났다.

때마침 날이 개고 시정이 좋아졌다.
이순신은 갑판에 나가 바다를 살폈다.
서수로는 전방에 섬이 많아 시야가 복잡했다.
동수로는 북서쪽 좁은 수로 끝 멀리 수평선이 보였다.
마치 곧게 뚫린 길처럼 보였다.

"적은 이리로 온다!"
그는 진도 오른쪽, 명량 수로를 힘주어 짚었다.
"우리는 명량 울돌목에서 적을 기다린다!"
수로가 좁고, 물살이 가장 거센 곳이다.
그는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곳을, 적의 무덤으로 만든다!"
이순신은 병사들의 손을 굳게 잡았다.

왜 수군은 야간에 어란진까지 탐색선을 보내며 싸움을 걸어왔다.
적은 진도 수로의 조건과 조선 수군의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명량 수로를 택해 공격하려는 것이다. 복잡한 명량 수로와 울돌목의 강력한 조류도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었다.
어란진에서 벽파진, 우수영까지는 육십 리 남짓. 모두 한 물 때 거리였고 울돌목의 양안 거리는 이백 보에 불과했다.
적에게 울돌목은 필히 확보해야 할 공격 거점이었다.
동시에 조선 수군에게는 필사적으로 방어해야 할 목진지였다.

조선 수군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순신은 명량을 장악한 상태에서 벽파진으로 진을 이동하여 시간을 버는 동시에, 싸움터가 될 현장을 세심하게 살핀 다음, 전투 세부 계획을 준비할 생각이었다.

벽파진은 울돌목을 건너기 직전에 진을 칠 수 있는, 진도 수로 길목의 유일한 포구였다.
이순신은 함대의 이동을 적에게 감추기 위해 야간에 이동하기로 결심했다.
이 위험한 수로는 적과 아군 모두에게 위협이었다. 명량의 물살은 먼저 극복하는 자의 것이 될 것이요, 더 용감한 자의 편이 될 것이었다.

"전 함대는 오늘 밤에 이동하여 울돌목, 우수영을 답사하고, 벽파진으로 들어간다. 야간 항해 준비를 철저히 하라!"
이순신의 명령이 떨어지자 군사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척후가 미리 나갔다. 판옥선을 전진 배치하고, 닻줄을 바짝 당겨 놓았다. 작은 등불을 준비하고, 이 지방 출신 병사들을 협선에 배치했다.

바다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바닷물은 쓸어 낸 듯 해변에서 물러났다. 어란진은 검은 펄밭을 드러냈고, 초승달 아래 적막이 감돌았다.
이순신은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 들었다.

12척의 판옥선.
수백 척의 적선.
칠천량 패전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병사들.
강탈과 굶주림에 쓰러지는 백성들.
아직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조정.

이순신은 바다를 향해 우뚝 섰다.
적을 무찔러 이 바다를 되찾고 나라를 구하리라.
이순신은 장검을 치켜들었다.

"정조입니다"
조방장이 보고했다.
"나가자!"

이순신은 낮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둥~
숨죽인 북소리가 검은 바다 위로 퍼져 나갔다.
전선들은 일제히 닻을 올리고 노를 내렸다.
병사들은 단호하게 움직였다.
탁 두르르 탁!
탁 두르르 탁!
소고가 울렸다.
판옥선의 긴 노는 힘차게 물을 찼다.
이순신이 승선한 사령선이 해안을 떠나 바깥 수로 쪽으로 선수를 잡았다.
11척의 판옥선과 협선들이 줄줄이 그 뒤를 따랐다.

잔뜩 집중하여 캄캄한 바다를 살피는 장수들.
숨죽여 활을 든 사수들.
굳은 표정으로 노를 잡은 격군들.
군사들의 얼굴에는 이미 전투가 시작되어 있었다.

함대 뒤쪽에서 등불 신호가 원을 그렸다.“전선 이안 완료”
송대립이 보고했다.
하늬바람이 불었다.
“돛을 올려라!”
주루륵 큰 황색 돛이 돛대를 타고 올라갔다.
전선들은 해안을 떠나 캄캄한 바다로 나아갔다.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이고 시커먼 수면에는 푸른 야광이 뱃전을 따라 흘렀다.
“등을 올려라!”
사령선에 등불이 올라가자 뒤따르는 배들도 작은 등을 달았다.
“수로 가운데로 나가자!”
“타를 밀어라, 서쪽으로 간다!

우현 선수로 바람을 받는다.
“북극성을 정 우현에 두어라!”
“모든 돛 당김줄을 바짝 당겨라!”
“병사들은 우현으로 이동하라!”
조방장이 소리쳤다.
돛은 한껏 당겨져 터질 듯 바람을 품었다.

함대가 어란진 곶을 벗어나 서쪽으로 선수를 잡는 순간 사령선의 돛이 요란하게 펄럭이다 뒤틀리더니, 가로 활대 당김줄이 후두득 끊어졌다.
선수가 좌현으로 휘익 돌아가며 선체가 기우뚱거렸다.
“돛을 내려라! 총원, 노에 붙는다!”
병사들은 마구 펄럭이는 돛을 끌어내려 갑판에 묶었다. 하부 갑판의 병사들은 격군과 함께 노에 매달렸다.
순식간에 불어닥친 회오리바람은 판옥선을 뒤흔들고, 협선을 들어 올렸다가 내던졌다.
탁 두르르 탁!
탁 두르르 탁!
소고 소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격군과 병사들은 북소리에 맞추어 힘껏 노를 저었다.
타수는 키를 잡고 버텼다.
배는 간신히 선수를 잡았다.
바람은 선미를 스치며 사라졌다.
물살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갈배섬 협선 나가라!”
어란진 출신 병사가 탄 협선이 튀어 나갔다.
잠시 후 갈배섬에 횃불이 올랐다.
“타수, 잘 보아라! 저 불빛이 갈배섬이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우현 통과한다. 키, 오른편 가지 말라!”
뒤따르던 전선들이 사령선을 따라 갈배섬을 벗어났다.

사령선이 북으로 항로를 잡았다.
“이 방향 그대로, 다음은 하마도, 상마도다. 협선 복귀하라!”
배들은 북극성을 선수에 두고 곧장 나아갔다.

“수심을 보고하라!”
첨벙, 선수에서 측심추를 던졌다.
“수심 40척”
배들은 전진을 계속했다.
“수심 30척”
“집중하라!”
“수심 20척”
“타수, 좌현으로 5점!”
섬이 가까워졌다.
“하마도 협선을 내보내라!”
하마도에서 나고 자란 병사가 탄 협선이 튀어 나갔다.
“수심 20척”
“그대로 간다!” “우현 선수 등불이 보입니다”
“타수, 등불을 보고 타를 잡아라! 하마도다”타수는 조심스레 키를 밀었다. 배는 우현으로 부드럽게 돌아갔다.
“수심 15척”
“수심 10척”
“타수, 좌현으로 5점!”
함대는 하마도, 중마도, 상마도를 차례차례 통과하였다.
상마도 상단은 와류 구간이다.
“타수를 보강하라! 격군 집중하라!”
“소용돌이가 나타나면 협선은 좌현으로 빠진다!”
“판옥선은 그대로 간다!”
잠시 후 선수 견시가 외쳤다.“선수 전방, 소용돌이 발견”
큰 북이 울렸다.
협선들은 재빨리 왼편으로 돌아 돛을 바짝 올리고, 대열을 빠져나갔다.

판옥선은 돛 가로활대 당김줄을 조금 내어 주고 그대로 전진했다.
격군들은 노에서 튕겨 나가지 않도록, 노에 손을 단단히 잡고 노를 밀고 당겼다.
판옥선이 소용돌이에 물렸다.
큰 선체가 빙그르르 돌았다.
터덩텅! 강한 물살이 배 바닥을 쳤다.
돛대가 휘청거리고 돛줄이 타다닥 돛대를 두드렸다.
“타가 안 먹습니다”
소고 소리가 커졌다.
타수들은 타 막대에 밧줄을 걸고 버텼다.
힘겹게 전진하던 배가 멈칫하다가 이번에는 반대로 돌아가며 휘청거렸다.
“우현 노는 멈추라! 좌현 노를 더 세게 저어라!”
북소리가 갈라졌다.
좌현 격군들이 힘 주어 노를 저었다.
배는 어렵게 선수를 잡고 전진하며 소용돌이를 벗어났다.
함대는 몇 개의 작은 소용돌이를 더 통과하고 안정을 되찾았다.
규칙적인 소고 소리가 이어졌다.
협선이 복귀했다.
“와류 구역은 지났다. 타수! 정북으로 간다. 북극성을 정 선수에 두어라!”

이순신은 해도를 살펴보며 말하였다.
“앞으로 세 고비다. 송도 통과, 울돌목 왕복, 벽파진 진입, 항로 잡기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함대는 맹렬한 속도로 흐르는 밀물을 탔다.

어둠 속에 검은 산이 희미하게 드러났다.“선수 전방, 고절봉이 보입니다”
“틀림없느냐?”“제 고향입니다”
“알았다”

"좌현으로 돈다! 바람은 정 선수. 북극성은 우현 선수 넉 점!"
"곧 송도에 도달한다. 집중하라!"
잠시 후 달빛 아래 둥근 섬이 조그만 모습을 드러냈다.
"송도다. 우현으로 보고 통과한다. 좌현에 벽파진이 있다"
함대는 줄줄이 좌현으로 돌아 굴섬, 녹도로 향하였다.
기다리던 협선이 신호를 받고 튀어 나갔다.
함대는 굴섬과 녹도를 지나 울돌목으로 들어섰다.
바다라기보다 물목이었다.
양안의 산은 손이 닿을 듯 가까웠고, 해협의 물살은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를 내며 맹렬히 흘러갔다.
허옇게 뒤집히는 물살이 적을 노렸다.

울돌목의 물때가 바뀌며 밀물과 썰물이 부딪혔다.
물결이 삼각형으로 치솟았다.
덩치가 크고 밑바닥이 평평한 판옥선은 삼각파도를 버텨냈다.
작고 뾰족한 협선은 심하게 뒤틀렸다.
협선의 병사들은 바싹 몸을 낮추고 배에 매달렸다.
이순신은 일렀다.
"잘 보아라! 적들은 저 파도를 타고 온다. 우리는 저 파도를 타고 싸운다!"
함대는 울돌목을 넘어섰다.획! 획! 조방장이 호각을 불었다.
북소리가 커졌다.
"타를 밀어라! 힘껏. 우현으로 빠져 우수영으로 들어간다. 실수하면 어란진까지 흘러간다!"
흐름이 바뀐 물살은 거꾸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전라우수영 출신 병사들은 이 요령을 잘 알았다.
판옥선은 덩치답지 않게 재빨리 우현으로 돌아 우수영으로 들어갔다.

우수영 만에 들어서자 바다는 곧바로 잔잔해지고 흐름은 없어졌다.
이곳에 처음 들어 온 병사들은 무엇에 홀린 듯하였다.

함대는 우수영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수로 중앙으로 나가 맹렬히 흐르기 시작한 썰물을 탔다.
타수 옆에 지켜 선 조방장은 두 눈을 부릅뜨고 뒤틀리는 물살을 노려 보았다.
“좌현 노 빨리! 키를 밀어라!”조방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격군들의 급한 숨소리는 선실에 가득 찼다.
함대는 낙오 없이 벽파진에 들어갔다.
배들이 정박을 마치자 이순신은 예상되는 전투 상황을 정리하였다.

“왜 수군이 진도 수로를 통해 북상하려면 동수로를 타고, 밀물이 시작할 때 어란진을 출발하여, 썰물 시작 전에 울돌목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는 울돌목에 진을 친다. 밀물에 적을 막고, 썰물에 적을 친다. 죽기를 각오한 싸움이다!”

경상 수사 배설은 일찌감치 도망쳤다.
이순신은 많은 생각을 하였다.
조선 땅 전라도 남쪽 끝 명량의 물살은 오로지 이순신의 판단에 따라 적이 될 수도, 아군이 될 수도 있었다.

9월 초. 이순신은 장수들에게 그동안 심사숙고한 필승 전략을 설명하였다.
“적은 새벽에 밀물을 타고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만조 전에 울돌목을 통과해 우수영으로 들어가려 할 것이다.
울돌목. 명량에서 가장 좁은 물목이다. 나는 그곳에 닻을 던진다”
한 장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적선이 수백 척입니다. 정면에서, 그것도 장군 혼자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수백 척이 아니다!”
이순신은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답했다.
“울돌목에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배의 수는 정해져 있다”이순신

은 물목을 짚었다.“많아야 이삼십 척. 그중 우리 배에 달려들 적선은 한 번에 열 척 남짓이다”
“적은 밀물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 기세를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이순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닻을 던진다.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흐르는 것은 적이다. 나는 차례차례 적을 막는다. 적은 서로 엉키고 서로 막힌다”
장수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물길은 곧 뒤집힌다. 썰물이 시작된다!”
정적이 흘렀다.
“우리는 바로 그때, 적을 친다!”
장수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김억추가 앞으로 나섰다.
“그렇다면~ 쇠사슬을 쳐서 적선의 통과를 아예 막아 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순신이 고개를 들었다.
“쇠사슬? 화살촉 하나 만들 쇠도 부족한 판이다. 그 많은 쇠를 지금 어디서 구하겠는가?”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설사 만들었다 하자. 그 무거운 쇠사슬을 어떻게 이 물길 위에 건다는 말인가?”
침묵.
“걸었다 하자. 이 거센 물살 속에서 쇠사슬을 어떻게 팽팽하게 당겨 배들을 걸 수 있겠는가?”
말이 끝나자, 더 이상 반박은 나오지 않았다.
이순신은 다시 말을 이었다.
“적은 전력을 온전히 쓰지 못한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밀물에 떠밀린다. 모든 병사가 노를 저어야 한다. 와류에 흔들린다. 뾰족한 배 위에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렵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상태에서 조총을 쏜다. 맞출 수 있겠는가!”
장수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닻을 내리고, 전 병력이 화포에 붙는다!”
“적이 붙으려 하면, 먼저 쏘고, 먼저 죽인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정적이 흘렀다.
“붙는다 해도 상관없다. 타를 좌우로 크게 쓴다. 배를 휘저어 적을 바다에 뭉개 넣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썰물은 뒤에서 오기 시작한다. 그때, 후미 본대가 돌격을 개시한다!”
모든 장수들이 숨을 삼켰다.
“물이 바뀌는 순간 삼각파도가 일어난다. 적은 서로 부딪혀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순신의 시선이 장수들을 훑었다.
“나는 그때 닻줄을 끊고~ 돌격한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밀물에서 막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썰물에서 부순다!”
“이 싸움, 물길이 정한다!”
그는 조용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물길은, 우리 편이다!”
장수들은 긴 숨을 내쉬었다.

왜적의 공격이 임박해지자 이순신은 장병들을 모두 집결시키고 엄중히 훈시하였다.
“물 때와 적의 집결 상태를 볼 때, 적은 9월 중순에 들이칠 것이다. 그전까지 우리의 전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전라도의 보전과 백성의 생명이, 이 일전에 달려있다.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는가. 어찌 물러서겠는가!”

그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장병들을 굽어본 후 말을 이었다.
"나는 이 싸움에 나의 목숨을 걸었다. 이제 필승의 방략을 이르겠으니,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따르도록 하라!"

무거운 침묵이 진중에 내려앉았다.
노련한 군관은 이를 악물었다. 물러설 자는 없었다.
사수의 시선은 이미 수평선 너머에 닿아 있었다.
용서할 자는 없었다. 날카로운 칼바람이 장병들을 훑고 지나갔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으나, 침묵은 이미 맹세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적의 접근을 확인하는 즉시 우수영을 출항하여 명량의 제일 좁은 목, 울돌목에 진을 치고 사생결단 적을 막을 것이다.
진형은 내가 홀로 앞에 나가 닻을 놓고 적 선봉을 막아서면, 그 100보 뒤에 판옥선 12척이 일자진을 치고 사령선을 통과하여 흘러나오는 적선을 쳐부수며, 신호에 따라 일시에 돌격한다.
그 200보 뒤에는 병선으로 위장한 우리 어선을 다수 배치하여 적에게 위협을 가한다!"
이순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왜 전선 수가 비록 300척이 넘는다 하나 울돌목의 폭이 좁아 공격 일파는 각각 2~30척 남짓할 것이다.
그나마 사령선을 둘러싸고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는 적선은 8~10척 정도가 될 것이로되, 그 이상은 아무리 몰려와도 사선이 겹치므로, 뒷줄에서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수많은 싸움을 거친 역전의 용사, 명사수들만 모인 우리가 적을 차례차례 쳐부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적선이 거센 밀물에 밀리지 않으려면, 총원이 노를 저어야 할뿐더러, 와류에 마구 흔들리는 배 위에서 조총을 쏘아야 하므로 어찌 우리를 맞출 것인가? 어찌 우리 배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적의 전력은 반토막에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다.
사령선은 닻을 놓았으므로 모든 군사가 나서서 화포, 장, 편전, 불화

살, 쇠뇌, 장창, 장병검, 칼 등을 총동원하여 공격하면 우리의 전력은 배가 될 것이다.
특히 편전 사수는 닻줄을 끊으려 달려드는 적병을 놓치지 말고 즉각 사살하여야 한다.
쇠뇌는 사정거리가 짧고, 다발이기 때문에 적을 최대한 끌어들인 다음에 일시에 쏘아야 한다.
만약 적선이 우리 배에 붙으면, 타를 최대한 써서 우리 배를 크게 흔들어 줌으로써 적을 깔아뭉개 버린다.
싸움 중에 만조가 가까워져 밀물이 약해지면, 신호에 따라 후미 본대가 돌격하여 적선을 쳐부순다.
썰물이 우리의 공격 신호인 것이다. 썰물이 시작되어 삼각파도가 일면 초요기를 올린다. 우리는 닻줄을 끊고 돌격한다.
삼각파도와 역류를 맞은 적선은 등선 백병전은커녕, 결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패퇴할 것이다.
강력한 썰물에 밀리며 패퇴하는 왜군에게는 그들끼리 좌충우돌 자멸이 기다릴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밀물에서는 방어요, 썰물에서는 공격이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순신은 전투를 눈앞에 그리듯 설명하였다.
우리는 이긴다.
조선 수군은 필승 의지를 가슴에 새겼다.

조선 수군은 이순신이 상세히 설명한 전투 절차에 따라 실전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였다. 백성과 힘을 합쳐 총통과 화포를 정비하고 판옥선의 장갑을 보강하였으며, 무기를 모으고 각종 화살을 더 만드는 한편 활쏘기 마무리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9월 7일, 적선이 어란포에 이르렀다. 왜군은 그날 오후 조선 수군을 탐색하러 벽파진까지 왔다가 쫓겨나고, 해시亥時에 또다시 포를 쏘며 공격해 왔다.

이순신은 적의 야습에 미리 대비하고 있다가 함포 공격을 가했다. 적은 네 번이나 공격과 물러남을 반복하다가 자시子時에 완전히 물러났다.

일전을 준비하는 한편 제주도에서 점세가 보내온 소 5마리를 잡아 군사들을 배불리 먹였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전투를 앞두고, 회식을 하며 죽을힘을 다하여 끝까지 싸우자는 결의를 굳게 나누었다.
이순신은 장수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

9월 15일, 이순신은 13척의 판옥선을 이끌고 울돌목을 건너 우수영으로 들어갔다.
전투가 임박해진 것이다. 백성들을 피난 시킨 그날 마지막 작전회의를 하고, 여러 장수들에게 준엄한 훈시를 하였다.
"병법은 일렀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生卽必死 死卽必生).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장수들은 오늘 살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라!"

이순신부터 장수를 비롯한 병사까지 모든 군사가 하나 되어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해전이었다.

9월 16일 새벽, 왜 전선 330여 척은 집결해 있던 어란진을 출발하여 명량을 향해 진격해 오기 시작했다.
왜 수군은 '구루지마 미치후사'가 지휘하는 '세키부네 선단'을 선두에 두어 공격을 담당하게 하고, '도도 다까도라',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지휘하는 '아타케부네 선단'을 2선에 두었다.

며칠 만에 맑게 갠 아침, 별망군別望軍 보고가 들어왔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왜선이 오고 있다.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진도 망금산으로 피난 가 있던 백성들은 몰려오는 적선을 300척까

지 세고는 더 못 세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사또! 이를 어이하리오”
백성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왜 척후선은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명량에 나타났다”
고 보고 했다.
왜 수군은 조선 수군의 동향을 살피며 유속이 빠른 때를 피해, 오시에 울돌목 초입에 진입하도록 속도를 조절했다.
‘도도 다까도라’는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했다.
“한산도의 치욕을 만회하고, 칠천량의 전승을 이어받아 조선 수군을 전멸시킬 것이다. 이순신의 목을 따고, 서해를 뚫을 것이다”

싸움터에서 세 번째 조우하는 도도, 와키자카와 이순신.
‘도요토미’의 특명을 받고 이순신의 수급을 갖다 바치기 위해 수군으로 복귀한 해적 출신 ‘구루지마’.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되었다.

와키자카는 자신만만하게 출정을 서두르는 구루지마에게 당부하였다.
“이순신을 조심하라”
구루지마는 전쟁이 일어나면 바다와 육지에서 두루 싸우며 승리하여, ‘패배를 모르는 장수’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제 명량에서 이순신을 무찌른다면 천하의 수군 명장이 될 것이요, 수륙병진 전략을 성공시킨 공신이 될 터였다.
무엇보다 뼈에 사무친 것은 임진년 초기 ‘당포 전투’에서 이순신에게 죽임을 당한 형의 복수였다. 그리고 고향 시코쿠에 계신 노모의 한을 푸는 일이었다.
“고작 13척의 전선으로 일본 수군 최정예 함대를 거느린 나와 싸우겠다고? 물살? 나는 시코쿠의 거친 물살을 타고 자란 몸이다”
승리의 영광과 복수의 통쾌함이 구루지마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

는 듯했다.

구루지마는 오시에 최정예 세키부네로 편성된 돌격대를 이끌고 당당하게 울돌목 초입으로 진입했다.
그가 접근해 보니, 전방에 판옥선 한 척이 닻을 놓고, 삼도수군통제사 깃발을 휘날리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 뒤로 판옥선 12척이 보였고, 그 뒤로 많은 선박이 보였다.
"이순신이 여기서 싸우다 죽겠다는 뜻이군. 좋다. 죽이고 지나가리다"
구루지마가 주저 없이 제1파 돌격 명령을 내리자 세키부네 20여 척이 쏜살같이 달려 나가 이순신의 사령선으로 덤벼들었다.

이순신은 명령했다."기다려라! 아직이다! 더 끌어들여라!"
세키부네는 밀물을 타고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이순신은 엄중히 말했다.
"두려워 말라! 우리의 함포가 발사되면, 두려움도 없어진다. 적을 조금 더 끌어들인다. 기다려라!"
세키부네가 눈앞까지 밀려들자, 그 징그러운 징 소리가 울렸다.
순간 미동도 없던 사령선에서 우레 같은 총포가 터지고 포탄, 조란탄, 장, 편전을 비 오듯 쏟아붓기 시작했다.
앞장섰던 세키부네가 순식간에 부서졌다.
조각나 깨진 배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구루지마는 돌격기를 세차게 흔들며 재차 돌격 명령을 내렸다.
제2파, 20여 척이 곧바로 달려들었다.
사령선은 노를 내리고 타를 밀어 제2파 세키부네를 향해 재빨리 장전된 현측을 맞추고 또다시 포문을 열었다.
포탄은 눈앞의 세키부네를 그대로 때렸다.
세키부네 5~6척이 순식간에 깨지고 주저앉았다.
사령선은 포탄을 재장전하는 사이 화살을 퍼부었다. 왜 공격대는 순식간에 고슴도치가 되어 물에 떨어졌다.

왜군의 시체가 노에 걸렸다.노가 멈칫했다.

맹렬한 포격과 화살을 뚫고 돌격해 온 세키부네가 사령선에 붙었다.
왜적들은 돛대를 눕혀 사령선에 걸쳐 놓고 건너왔다.
“막아라!”
장창이 찔렀다.
장병검이 종아리를 베어냈다.
쇠뇌가 바늘 같은 화살을 쏟아 부었다.
편전 사수는 닻줄에 접근하는 왜군 결사대를 오는 족족 사살했다.
타수들은 배를 좌우로 흔들어 사령선 현측에 붙은 세키부네를 깔아뭉갰다.
사령선의 장수와 군사들은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여 왜군의 월선을 막아냈다.

그러나 사령선은 세키부네의 극렬한 공격에 조금씩 밀렸다.
그들은 더욱 거세게 몰려와, 개미 떼같이 달라붙었다.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버티자.
사령선의 병사들은 처절하게 싸웠다.
세키부네는 끊임없이 밀려들었다.

이순신은 진두에 나가 장도를 휘두르며 독전 하였다.
“왜적에게 유린당한 우리 강토를 생각하자!”
“원통하게 돌아가신 부모 형제를 생각하자!”
소용돌이치던 물길이 바뀌기 시작했다.
“초요기를 올려라!”
이순신이 명령했다.
물길이 뒤집혔다.
“영하기를 올려라!”
연이어 긴급한 명령이 떨어졌다.
사령선의 깃대에 눈부시게 푸른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며 하늘로 올

라갔다.
동시에 영각이 찌르듯 울려 퍼졌다.
중군장 김응함의 배와 거제 현령 안위의 배가 먼저 달려왔다.“안위야! 응함아! 왜 이리 늦느냐? 내 손에 죽겠느냐? 싸우다 죽겠느냐?”
이순신은 호령했다.
“싸우다 죽겠습니다”
“상황이 급하다. 나가 싸워라!”
안위와 김응함은 급하게 처 나가고, 나머지 판옥선도 늦을세라 달려왔다.
구루지마의 직접 지휘를 받은 세키부네들이 일시에 안위의 배로 공격을 집중하며 달라붙었다.
안위와 병사들은 죽을힘을 다해 찌르고, 베고, 막았지만 등선 직전까지 밀렸다.
이를 본 이순신은 명령을 내렸다.
“안위가 급하다! 안위를 구해야 한다! 화살 공격과 충돌이다!”“닻줄을 끊어라!”
짧고 급한 나팔이 울리고, 김돌손이 뛰어나가 도끼를 내리쳐 닻줄을 끊었다.
사령선은 강한 물살에 주욱 밀리며 돌아갔다. 격군들은 이를 악물고, 노를 끌어당기고 밀고 또 당겼다.
사령선은 안위의 배로 달려가며 등선을 시도하는 왜군들을 향해 빗발같이 화살을 쏘았다.
사령선이 충돌하기 직전, 영각을 불어 제치자 안위의 군사들은 갑판에 납작 엎드렸다.
“키 바로! 노를 멈춰라!”
“꽉, 잡아라!”
쿵! 사령선은 안위의 배에 충돌하여 왜군을 털어 버리고, 이어서 현측을 쓸어 붙어있는 세키부네를 짓이겨 버렸다.
안위의 배는 순식간에 위기에서 벗어났다.
곧이어 하얗게 뒤집어지는 썰물과 함께 10척의 판옥선이 들이닥쳤다.

이순신의 수급이 급했던 구루지마가 총원 돌격을 명령하고 앞장서서 독전에 나서자 30여 척의 세키부네 돌격대가 또 몰려왔다.
산 위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에게 겹겹이 포위되는 것을 지켜보는 백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조선 수군 판옥선도 일제히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돌격해 들어왔다. 포탄과 질려탄, 조란탄을 일시에 쏘아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포연이 자욱했다.
"쏘아라! 쏘아라!"
"잠시 기다려라! 사선이 겹친다!"
"배를 돌려라. 비켜라!"
"돌격하라! 받아라! 쇠뇌, 쏘아라!"
전장은 피 튀기는 고함과 비명이 난무했다.

"저 붉은 깃발, 적 기함을 노려라!"
이순신이 명령했다.
사령선은 구루지마를 노리고 곧장 달려들었다.
세키부네들이 막아섰다.
그러나 요동치는 배 위에서 쏘는 왜군의 조총은 번번이 빗나갔다.
사령선이 눈앞까지 뚫고 들어갔다.
화려한 복장과 요란한 투구를 쓰고 지휘하던 구루지마의 안색이 굳었다.
"적장을 쏘아라!"
화살이 집중됐다.
여러 대의 화살을 맞은 구루지마가 바다로 떨어졌다.
붉은 비단이 물 위를 흘러왔다.
"걸어 올려라!"
김돌손이 갈고리를 던져 단박에 걸어 올렸다.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이순신은 구루지마를 참수하여 깃대에 내걸었다.
불패 장수로 이름난 그들 대장의 머리가 피를 쏟으며, 사령선 위에 걸

리는 광경을 똑똑히 본 왜군은 경악했다.
비명과 함성이 동시에 터졌다.
왜군의 공격이 현저하게 주춤해졌다.
조선 수군의 포화가 다시 쏟아졌다.
승기를 잃은 왜선이 바로 눈앞에서 깨졌다.
불타고 깨진 배 조각이 다른 배를 들이쳤다.
노가 얽혔다.
진형이 무너졌다.
왜군의 시체가 바다를 덮고 흘러왔다.
바다가 붉었다.
'아타케부네'에서 이 광경을 목도한 도도는 몸서리를 쳤다.
한산도, 안골포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더 버틸 수 없었다.
퇴각 나팔을 불었다.
왜군은 썰물을 타고 빠르게 물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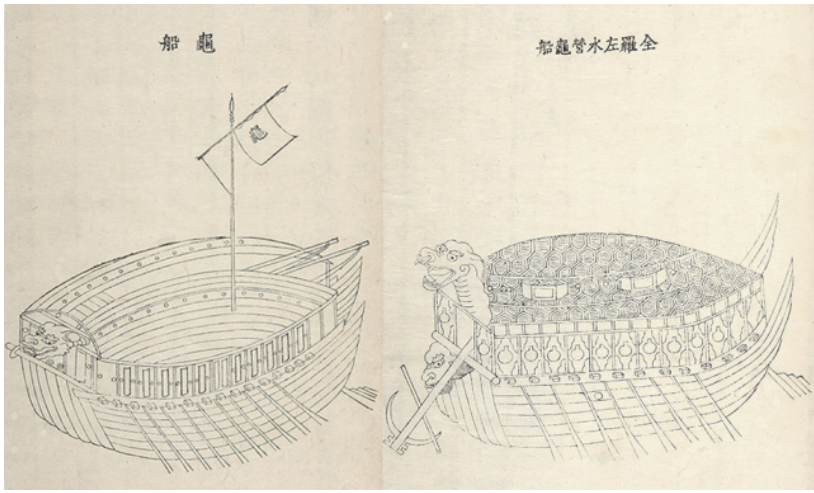
조선 수군과 명량은 나라를 침략한 적을 철저히 응징했다.
해가 기울었다.
명량에 서풍이 불어오며 서서히 포연이 걷혔다.
삼도수군통제사 깃발을 휘날리며 떠 있는 조선 수군 함대 13척의 모습은 늠름하기 그지없었다.
백성들은 산 위에서, 해변에서, 남녀노소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녹도, 굴섬 아래까지 퇴각하는 왜군을 확인한 이순신은 진을 나누어 녹도와 굴섬 뒤 흐름이 없는 곳에 배를 넣고 적군이 수평선 넘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순신은 다시 바뀌는 밀물을 타고 당산도까지 이동하여 거리를 벌인 다음에 진을 쳤다.

조선 수군의 전선은 단 한 척도 파손되지 않았으며, 사령선의 사상자는 5명, 전체의 사상자도 100명을 넘지 않았다.

바다는 전투의 상흔을 깨끗이 쓸어가 싸움이 없는 먼 곳으로 보냈다. 전장은 조용했고 격렬한 전투의 흔적은 사라졌다. 물살만이 번득이며 울돌목을 오르내렸다.

이순신은 말했다.
"실로 천행이었다"
〈계속〉


龜船
全羅左水營龜船

단장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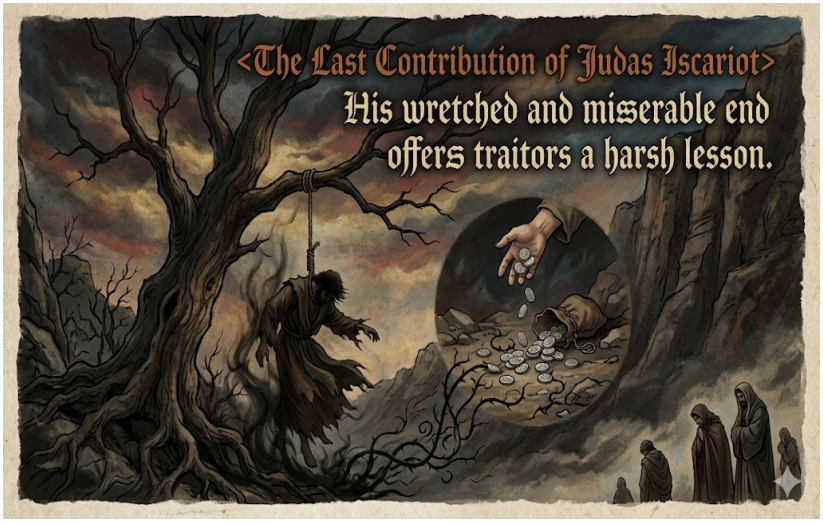
이기운 - 桑谷 이기운의 單章時調

〈봄날의 빗소리〉

시인이
듣는 소리는
벚꽃 지는 소리네!
(單章時調)
(俳句)

〈Spring Rain〉

In the rain-
A poet list'ns the sound
Of cherry blossoms are falling!
(One-Versed Sijo)



〈가롯 유다의 후예들〉

그 자의
최후 알지만
따르는 자 많구나!
(單章時調)

〈Descendants of Judas Iscariot〉

Though they know
thelastwayhemet,
stillmanychoosetofollowhim.
(One-versed Sijo)

〈봄날의 미세먼지〉

날씨가
따뜻해지면
늘어나는 기침 환자.
(單章時調)
(俳句)

〈Springtime Fine Dust〉

As weather
turnsagaintowarm,
thecoughing-patientsareincreasing.
(One-versed Sijo)

〈역사를 돌아볼 때면〉

이념에
빠진 자들이
기득권만 챙겼네.
(單章時調)

〈When Looking Back at History〉
Only drained-
ideology,
They'd been seeking for their profits.
(One-versed Sijo)

〈봄날의 미세먼지.2〉

봄 날에
하늘을 보면
구름 없이 어둡네.
(單章時調)

〈Springtime Fine Dust.2〉

A spring day,
lookingupthesky,
it'sdarkwithoutacloud.
(One-versed Sijo)

〈선거가 오면〉

돈 봉투
난무하는 건
그들만의 선거인가?
(單章時調)

〈When Election Season Comes〉

Cash-env'lop's,
dancing ev'rywhere-.
Is the election only for them?
(One-versed Sijo)

〈가롯 유다의 후예들.2〉
그 자를
따랐던 자들
'국민'이란 이름 파네!
(單章時調)

〈Descendants of Judas.2〉
Followers!
Nowtheytradeupon
the name of "the people" for their gain.
(Short Formed Sijo)

桑谷 이기운

《한강문학》(2018) 시조부문 등단, 평론부문 등단(30호.2023, 신년호), 《한강문학》 편집위원, 한강문학회 총무이사, Headhunter, 漢詩詩人, 時調詩人, 文學評論家, 民調詩人, A Poet, 문학평론: 〈단장시조單章時調(Sijo)의 부활 및 세계화〉(《한강문학》PDF38호,2025.봄호), 〈漢詩의 자주화自做化를 향한 방안〉(《한강문학》PDF39호,2025.여름호), 〈한국의 시, 외국어 번역을 위한 제언〉(《한강문학》PDF40호,2025.가을호), https://blog.naver.com/kwoonlee

신작수필

이규선

백 년의 세월, 한 그루 나무 아래 모이다

이 규 선
수필가, 《한강문학》26호(2021.가을호) 수필부문 등단,
여행작가, 서치펌싱크탱크 대표, 수필집 《인생 뭐 있어?》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을 남긴 시인 박인환은 서른한 살이라는 아까운 나이에 별이 되었다. 하지만 그와 동갑내기인 1926년생 나의 백부님은 지난 주말 수원의 한 호텔에서 당당히 백수연白壽宴의 주인공이 되셨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백부님이 태어나신 1926년은 조선 순종 황제의 인산일에 '6·10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해다. 이후 남북 비극의 상징인 '6·25 전쟁', '4·19 의거'와 '5·16 혁명', 치욕적인 IMF 시대와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까지~ 백부님의 100년 인생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축소판이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환갑잔치가 동네 큰 경사였다. 이제는 의술의 발달과 철저한 건강관리 덕분에 아흔을 넘긴 어르신을 뵙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 집안 종친회에서, 백부님은 나이로 보

나 항렬로 보나 독보적인 최고 연장자이시기에 그 대우 또한 특별할 수밖에 없다.

사실 작년에 세는 나이로 백수연을 열까 고민도 했었지만, 미국에 사는 사촌 형님의 대수술이 있었다. 막상 올해는 백부님이 척추 시술로 입원하시면서 행사 당일까지 노심초사하며 가슴을 졸여야 했다. 다행히 모든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잔칫날이 밝았다.

나는 이번 행사의 추진위원장 겸 사회자라는 중책을 맡았다.
"방금 동남아 순회공연을 마치고 귀국했다"는 너스레와 함께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에 모인 50여 명의 사촌과 어르신들께 우리 가족을 '정이 넘치는 UOT(Under One Tree) 가족'이라 소개하며, 정 씨와 이 씨 가족들의 박수를 유도해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자, USB 영상 속에서 백부님이 서예가로서 받으신 수많은 표창장이 흘러나왔다.
맏아들인 큰형님의 인사와 미국서 온 사촌 형님의 축사가 이어졌고, 케이크 커팅과 샴페인 축배로 정점을 찍었다. 특히 망치로 딱딱한 케이크를 깨트리자 그 안에서 비닐에 돌돌 말린 5만 원권 지폐 수십 장이 쏟아져 나오는 이벤트는 단연 압권이었다.
1부의 대미는 온 가족이 제창한 〈어버이 은혜〉였다.

뷔페 식사와 함께 정겨운 담소가 오갔다. 15년 전, 성남시 운중동에서, 조카들까지 66명이 모였던 추억을 떠올리니 감회가 새로웠다. 국내와 멀리 미국에서 바쁘게 살다 모인 우리 UOT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 오죽하면 내가 "만나면 30분, 헤어질 땐 2시간"이라는 멘트를 날렸을까.

2부 순서는 큰형님 부부의 〈아빠의 청춘〉으로 화끈하게 문을 열었다. 최근 딸이 논설위원이 된 경사를 맞은, 미국 사촌 누님 부부는 금테 안경을 맞춰 쓰고 나와 멋지게 노래를 뽑았고, 작년 말에 아들을 장가보낸 여동생은 "시어머니 역할 하느라 고생한다"는 나의 소개에 오기택의 〈고향무정〉으로 화답했다.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끈 건 로또 복권 퀴즈였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함은?"이라는 질문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사촌 누님이 정답을 맞혀 '1억 원 가치의 로또'를 거머쥐었다. 이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은 자식들 이름을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퀴즈는 '옥휘', '두휘'... 막내 '건휘'까지 완벽하게 맞춘 춘휘 고모님께 돌아갔다. 구순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카톡방에서 이모티콘을 날리며 소통하는 세련된 고모님의 노익장은 정말 대단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백세의 청춘! 백부님은 재작년까지도 자전거를 타고 서예를 배우러 다니시던 분이다. SBS-TV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오셔도 무방할 기력으로 찬송가 4절까지 독창하시더니, 두 고모님과 함께 무대에 서셨다. 나는 "세 분의 나이를 합치니 무려 350년!"이라고 익살을 부리며 박수를 유도했다.

흥에 겨운 사촌들이 무대로 쏟아져 나와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자, 나는 "여기는 카바레가 아닙니다!"라고 소리쳐 좌중을 폭소케 했다. 나훈아의 〈사내〉를 떼창하고, 남동생의 현란한 막춤까지 더해지니 잔치 분위기는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달아올랐다.

3시간에 걸친 연회가 끝난 후 마지막 단체사진 촬영 시간, 나는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 좌로 우로 뛰어다니며 '파도 박수'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다음 공연 스케쥴 때문에 먼저 실례하겠습니다"라며 퇴장하는 제스처를 취하니 모두가 배꼽을 잡았다.

집으로 돌아와 UOT 카톡방을 열어보니, 수백 장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모인 UOT 가족들! 반가운 만남과 정겨운 인사, 행복한 웃음꽃, 많은 덕담들, 푸짐한 식사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사촌 형님).
'큰아버지 잔치 기다렸는데 벌써 끝나다니! 마음은 아직도 라마다 호텔에 있어요'(사촌 누님).
'남편이 저보고 장가 하나는 정말 잘 왔대요. 우리 가족 정말 국가대표급 정情이에요!'(여동생).

따뜻한 답글들을 읽으며 미소 짓는다. 백 년의 세월을 꿋꿋이 버텨온 한 그루 큰 나무(UOT) 아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단단히 묶였다.〈나그네 인생 이규선〉

서예가 이두휘 선생의 백수연을 축하합니다
RAMADA

서예가 이두휘 선생의 백수연을 축하합니다

안양시민회
공모전 전시회
RAMADA

葉片小說

권녕하

흑백사진을 즐겨 찍는 女子

권 녕 하

호: 용강龍江, 저동苧童, 갯벌, 한강韓江, 시인, 문화평론가, 《한강문학》 발행겸편집인, 詩集 《숨어 흐르는 江》(1994, 도서출판 준), 劇詩集《살다 살다 힘들면》(2017, 한누리미디어), 산문집 《겨울밤, 그 따뜻한 이야기들》외, 역서:《세일즈맨의 죽음》(A.밀러), 《파리떼》(J.P.싸르트르)

독특한 분위기 연출을 좋아하는 그녀는 흑백사진을 즐겨 찍곤 했다. 그것도 밝은 분위기보다는,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 연출에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곤 했다. 그녀의 사진은 마치 안개 자욱한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것 같았다.

서울에 단 한 곳 남아있다는 향교鄕校를 방문하기 위해 그녀의 안내를 받던 날, 전혀 예정에 없던 우연히 그녀의 침실을 들여다볼 기회(?)가 생기고 말았다. 방금 몸만 쏙 빠져나온 것처럼, 터널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이불과 발밑에 구겨진 시트, 그리고 머리맡에는 빈약한 화장품이 몇 개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침실이었다.
비밀스럽고 신비한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았던, 그녀의 침실은 기대했던 호기심이 어이없이 깨어지는 그야말로 썰렁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정말 별 게 없던 침실에서 돌아선 순간, 거대한 흑백사진이 침실 출입문 안쪽 전체를 온통 차지하고 걸려 있는 것 아닌가. 그 사진, 그 피사체는 여인의 뒷모습이었다. 식탁 의자 등받이를 두 손으로 집고 허리를 깊게 숙여, 여인의 둔부 전체가 압도적으로 화면 전체를 차지

하도록 클로즈업되어 있었다.
사진의 과감성에 한동안 시선을 빼앗겼지만, 사진 촬영자는 스튜디오 바닥에 앉아서 여인의 둔부를 15° 정도 상향으로 구도를 잡고 촬영한 사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도 편광偏光을 활용한 기법으로 새도우를 만들어 나신裸身의 곡선을 따라 절묘하게 명암을 배분한 보기 드문 수작秀作이었다.
여성의 누드 촬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여체女體 중에서도 생육을 담당한 성적 상징성이 강렬한 둔부를 피사체로 삼아 원초적 시선으로 대담하게 촬영한 걸작이었다.
피사체 여인은, 등허리의 굴곡진 요추와 미골을 중심으로, 좌골의 좌우 방광뼈에 동전 사이즈 만큼, 오목하게 함몰된 신체 부위의 명암이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온 몸의 힘을 한 순간 둔부에 집중시킨, 긴장된 순간을 연기하고 있었다.
둔부 사이의 은밀한 부분은 흘러내린 굴곡과 긴장한 근육을 따라 흑백의 콘트라스트가 리얼하게 강조되어, 은밀한 피부에 돋아난 미세한 솜털 끝에서 부서지는 빛살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작품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피사체의 정성이 사진 속에서 여실이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그 사진의 위치는 방금 몸만 빠져나온 것 같은 흔적이 여실한 침대에 누운 자세에서, 방문을 닫았을 때 누운 채 감상하기에 적합한 절묘한 각도와 위치에 걸려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사진 속 여인의 둔부와 리얼한 부분이 연상되어, 신사답지 못한 상상력을 나무라며 그 영상을 지우려 무던히도 애를 쓰며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던 어느 날 저녁, 모임에서 그녀와 마주치고야 말았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그 자리에서의 화제 거리가 그녀의 작품 성향이었다. 물론 수채화처럼 작업하는 기법과 인화 등 테크닉을 론論하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사진 속의 피사체가 아마! 그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쑥 떠올라,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그동안 수도승처럼, 생보살이 다 될 정도로 고행을 한 지난 시간이 한 순간에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 같아 진땀까지 흐르고 있었다. 더욱이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은 평소 그녀의 행실이 저급하기라도 했다면 고행이고 죄책감이고 간에 고생할 것도 없었겠지만, 뇌리에 각인되어있는 그녀의 이미지는 성聖스러울 정도로 바른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향교 방문하던 날, 예정에도 없이 그녀의 집에 들리게 된 것은, 순전히 그녀 때문이었다. 그녀에게도 살과 뼈가 있고 생리 대사작용을 멈출 수 없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집 구경이라도 하고 계세요"라는 말에, 그 짧은 시간, 그녀의 침실을 살짝 훔쳐본 불상사였지만, 외인출입금지 공간 혹은 출입불가 공간에 구체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접근했다가 걸린 몹쓸 병(?)이었지만, 그렇다고 보여주기 싫다는 걸 강제로 봐 버렸거나, 닫힌 문을 열고 억지를 부려 들어가 몰래 본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다만 그녀의 배려(?)를 충실히 이행한답시고 열려있던 문 안쪽을 찰나刹那 같은 시간 동안 자극적인 포즈로 문 안쪽에 걸려있던 초대형 사진을 봐버렸고 그때부터 스스로 걸려버린 몹쓸 병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오롯이 간직하고 있던 그녀에 대한 소중한 영상이 깨질까 봐 이 몹쓸 병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겪어야 하는 병 같지도 않은 병이 모임이 있던 그날 이후 재발하고야 말았는데, 반년쯤 지났을까? 그녀에게서 불쑥 전화가 걸려오고야 말았다.
공연히 죄지은 사람처럼 속마음을 들킨 사람처럼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고인돌 유적을 찾아 남한경 변을 이곳저곳 가볼 예정인데, 에스코트 해주지 않겠느냐"고 요청하고 있었다. 향교 안내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거절하지 말라"는 주문이 붙어있었다.

남한강변에서 그녀는 선사유구를 현장에 보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질 터이니, 자료로써 사진의 가치가 점점 커지지 않겠느냐며, 이번

기회에 사진 촬영을 직접 해보라며 권유하고 있었다. 진작 공감을 하던 터임을 밝히자, 그녀는 흑백사진 촬영에 올인한 까닭을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편안히 감싸주는, 하루 중 해가 지는 어스름녘을 제일 좋아해요. 혹시! 모델이 되어줄 의향이 있으세요?" 덜컥 겁이 났지만, "시간이 된다면~" 딱 부러지게 거절 못한 상태였는데, "그럼 제 집에 스튜디오를 꾸며놨는데, 한 번 같이 가요. 참! 전에 한 번 오셨었지요? 혼자 오실 수 있겠네요" 그 말끝에 그녀는 동공을 한층 크게 열고는 몹쓸병에 걸려있는 환자의 얼굴을 한참이나 뜯어보는 것 아닌가! 그녀의 눈빛과 기세氣勢는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섬세하면서도 반항할 수 없는 질긴 동아줄 같았다. 마치 오디션 받는 지망생 신세가 되어, 이미, 지난 여름에 채집 당해 마취되어 있던 매미처럼, 입술만 꼼지락거리며, 반항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대답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그래도, 아무리 예술이라곤 해도, "솜털까지 다 보이게 찍는 사진"이냐고 미리 물어볼 수도 없고, 그 생각만으로도 두려웠지만, 선택적인 몹쓸병을 앓느라 방어 수단이 허약해진 심신은 마치 날 받아놓은 인신 제물처럼 온갖 감정이 뒤범벅이 된 채 그날을 하루하루 헤아리며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천천히~ 입김을~ 맡겨요~ 어둠에~ 육신을 열어요~ 마음을~ 지워요~"
이어서 셔터 여는 소리~ 셔터 닫히는 소리~ 소리~ 소리~ 소리~ 노출 타이밍이 얼마나 긴지, 근육 경련에 가늘게 눈을 비집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육신에 반사광을 끼얹으며 바짝 다가와 숨소리도 하얗게 조금씩 어둠을 벗겨내다가 다시 덮어가는 미세한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다.
완벽한 암실暗室 속에서 질긴 밧줄로 자승자박自繩自縛한 몹쓸병에 걸린 제물은 흘러내리는 끈을 재빨리 제 몸에 되감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끝 모를 동굴 속에서 가냘프게 반짝이는 의식에 매달려 오직

숨결에 의지한 채 헐떡이며 광장 한 복판으로 끌려 나가 한 순간 내동댕이쳐진 제물이 번뇌煩惱로 버둥대고 있었다.
“잘~ 했어요~ 고마워요~”
그녀의 코 끝에 매달렸던 땀방울이 숨결과 함께 떨어지면서, 마른번개를 치고 있었다.
〈부분교열: 2026.05.20〉

# 2026
# 《한 강 문 학》
PDF43호(여름호)

詩부문 신인상
당선자 발표

김 석 산 : 〈봄〉 외 2편

이 재 형 : 〈푸른 오월의 찬가〉 외 2편

봄 외 2편

김 석 산

겨우내 쌓인 눈이 녹아 개울물 소리 정겹게 흐르고
메마른 가지마다 연둣빛 새잎이 돋아나네

찬 바람 언덕에도 노란 민들레 수줍은 진달래
화사하게 피어나 봄의 노래를 부른다

굽이진 산길 따라 아지랑이 아롱아롱 피어오르고
햇살 가득한 창가 참새들 지저귀는 소리 정겹구나

우리네 마음도 어두운 그림자 걷히고
따스한 희망의 싹이 다시금 피어나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생동하는 봄날의 약속처럼
우리 모두 손잡고 밝은 내일로 나아가리라.

김 석 산

시니어모델, AI미술협회 충남지부장, 한국시낭송선교회 부회장, 글로벌 월드그랑프리 모델대회 금상 수상, 2026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모델대상 수상, 서천군 시니어모델협회 회장.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촌향교길 65, 신흥빌라 A동 302호
전화 010-9428-7070

라일락 그늘 아래

보랏빛 비가 내리던 그 골목길
기억나시나요
당신과 내가 걷던 그 저녁
담벼락 너머로 고개 내민 라일락은
어찌 그리 속절없이 향기를 뿜어냈는지
코끝에 닿는 바람에도 가슴이 시려
우리는 자꾸만 발걸음을 늦추곤 했습니다

별다른 약속 없이도 마냥 좋았던 건
어디선가 불어오는 진한 꽃향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름 모를 팝송의 선율처럼
우리의 젊음도 라일락 향기에 흠뻑 취해
영원히 깨지 않을 꿈을 꾸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날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희끗해진 머리칼 위로
다시 봄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어느덧 중년이 된 내 마음 한구석엔
보랏빛 라일락이 여전히 활짝 피어 있습니다
가방 메고 달려가던 그 기차역
그대와 나를 이어주던 그 향기로운 계절이
오늘 밤, 다시금 그리워집니다.

나의 달콤한 솜사탕

하늘가 아스라이 피어오른 구름 보면
어린 날 손에 쥐여주신 솜사탕이 떠오릅니다

입술에 닿기도 전에 사르르 녹아내리던
그 달콤함은 사실 당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세상 풍파에 마음이 시리고 아릴 때면
꿈결처럼 포근한 당신의 품을 찾아갑니다

괜찮다 괜찮다 토닥이던 손길은
거친 세월도 녹여버리는 마법이었습니다

내어줄 것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온갖 사랑 남김없이
다 베풀어 주시고도
더 줄 게 없어 미안하다 하시던 우리 엄마
당신이 뿌려놓은 그 깊은 사랑의 향기가
오늘도 제 삶의 길목마다
꽃잎처럼 흩날리고 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나의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김석산의 〈봄〉 외 3편의 시를 읽고

〈봄〉은 단순한 계절의 도래를 노래하는 시가 아니다. 이 작품에서 '봄'은 자연의 변화이면서 동시에 인간 존재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희망의 은유로 읽힌다. 시인은 흔한 봄의 풍경을 반복하지 않고 다시 움트는 생명의 기척에 주목한다.
이 시의 '봄'은 화려하기보다 조용하고 깊다. 절제된 시어와 여백의 미학이 돋보인다. 결국 이 시는 계절에 대한 찬가를 넘어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에 대한 노래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라일락 그늘 아래〉에서는 익숙한 꽃의 향기를 단순한 계절의 정취로 머물게 하지 않고 지나온 시간과 그리움의 결로 확장 시키고 있다. 특히 '그늘'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꽃은 보통 화사함과 빛으로 기억되지만, 시인은 그 아래 드리운 조용한 음영 속에서 삶의 내면을 바라본다. 그 그늘은 외로움이면서도 안식이며 지나간 청춘의 자리이기도 하다.
물론 시 전반에는 큰 목소리가 없다 대신 오래된 편지처럼 낮고 은은한 호흡이 흐른다. 잘 정리된 언어 속에서 향기와 기억이 함께 번져 나오며, 독자는 어느새 자신의 추억까지 불러내게 된다.
무엇보다 이 시는 과장되지 않은 서정성에 있다. 억지 감상에 기대지 않으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긴다. 마치 늦은 봄 저녁녘, 바람 따라 스쳐 오는 라일락 향기처럼 조용히 마음에 젖어 오는 담백한 느낌의 시다.

〈나의 달콤한 솜사탕〉은 제목만으로도 동심을 느끼게 한다. '솜사탕'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손에 쥐면 녹아버리는 행복과 순간의 황홀함을 상징한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밝고 경쾌한 이미지 뒤에 숨어

있는 덧없음의 정서다.
언어 또한 부드럽고 리듬감이 살아 있어 시 전체가 하나의 노래처럼 읽힌다. 특히 “내어줄 것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온갖 사랑 남김없이/ 다 베풀어 주시고도/ 더 줄 게 없어 미안하다 하시던 우리 엄마/ 당신이 뿌려놓은 그 깊은 사랑의 향기가/ 오늘도 제 삶의 길목마다/ 꽃잎처럼 흩날리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우리 모두의 엄마를 생각하게 하는 구절로써, 가슴에 와 닿는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김석산 시인이 앞으로도 좋은 시를 많이 쓰도록, 힘을 실어 신인상을 추천한다.

심사평: 문학평론가 노 금 선

한강문학 신인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상임고문	김 중 위
심사평(위촉)문학평론가	노 금 선
한강문학문인회장(추천)	이 강 철
한강문학 발행겸편집인	권 녕 하

푸른 보리밭을 흔들며 지나가는 봄바람처럼

시詩는 늘 제 삶의 문전門前을 서성거리던 아득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마음에 고인 말들을 백지 위에 풀어내면서도, 이것이 과연 누군가의 가슴에 가닿을 수 있는 진정한 울림이 될 수 있을지 언제나 두렵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 부족함 가득한 제 글을 어엿한 '시'로 세상에 내어주신 《한강문학》 권녕하 회장님과 심사위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학의 깊은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투박하고 거친 문장 속에서 시적 가능성을 발견해 주시고,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혜안으로 격려해 주신 노금선 시인, 문학박사, 화백님의 등단 심사평은 앞으로 제가 시를 써 내려가는 데 있어 평생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채찍질로 삼아 게으르지 않게 정진하겠습니다. 또한, 제 문학적 발걸음을 믿고 이끌어주신 이강철 시인, 시낭송가님의 귀한 등단 추천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벅찬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목소리로 시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깊은 열정을 본받아, 저 또한 늘 깨어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시는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받아 적는 것"이라 하던 지인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이제 등단이라는 과분한 이름을 얻었으니,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고독하게 시의 길을 걷겠습니다. 쉽게 쓰지 않고, 쉽게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제 시가 지친 이들에게는 작은 그늘이 되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나지막한 위로의 독백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갈고닦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시인으로 태어나게 해 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26년 6월 10일 시인 김석산

《한강문학》43호(2026.여름호) 시부문 신인상 **이재형** - 당선작

푸른 오월의 찬가 외 2편

이 재 형

나뭇잎 끝에 결려 은빛 가루로 부서지는
눈부신 햇살 타고
오월은 온통 초록의 숨결로 가득하다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의 가슴속에서
터져 나오는 연둣빛 함성
바람은 싱그러운 숲의 향기를 실어 나르며
지쳤던 영혼을 달래며 어깨를 다독인다

더없이 깊은 하늘은
구름 실은 돛단배를 띄우고
길섶의 이름 모를 들꽃들
햇살 아래 미소가 수줍다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생명의 노래
봄날의 길손이 되어 잠시 멈춘 발걸음

찬란한 신록으로 흐드러진 계절을
온 마음으로 품어 보는 오월.

벚꽃 아래, 첫사랑

벚꽃이 흐드러지던 날
우리는 처음 마주 섰다

백옥처럼 고운 얼굴에
내려앉던 수줍음

말은 짧았고 봄은 길었다

교복 자락에 스치던 바람처럼
우리의 시간은
가볍게, 그러나 깊게 머물렀다

벚꽃을 좋아하던 너는
기억 속으로 걸어갔고
삼 년이라는 시간은 온전히 남아
조용히 문을 닫는다

눈을 감으면
꽃잎처럼 흩날리는 너의 목소리
바람이 불 때마다
그날의 대화들이 훈향으로 다가와

지금도
내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다.

몽돌이 되기까지 우리는

신시도* 해변에서 몽돌 두 개 건져
당신과 나의 이름을 붙여 본다

손 안에 쏙 들어오는 동그라미 하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란 타원 하나
모서리 깎여 나가느라 무수히 아팠을 시간들

삶은
파도를 닮아
서로를 할퀴던 날들을 지나오며
이제 아프지 않은 몽돌이 된 몸을
고희古稀의 손 위에 올려 놓았다

회한보다는 따스하고
그리움보다는 깊게 차오른 세월
아끼겠다던 그날의 약속이
다듬어지고

당신이라는 몽돌 곁에서
비로소 하나의 몽돌이 되어가며

바다 같은 나의 사람
어제도 그랬듯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려오.

이재형의 〈푸른 오월의 찬가〉 외 2편을 읽고

이재형의 〈푸른 오월의 찬가〉는 계절 감각이 잘 살아나는 아름다운 시로 한 편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싱그러운 이미지가 돋보인다. "은빛 가루로 부서지는 눈부신 햇살", "초록의 숨결", "연두빛 함성" 같은 표현은 오월의 생동감을 느끼게 하며, 삶에 지친 현대인을 위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시다.

깊은 하늘을 배경으로 구름을 돛단배에 비유하고 길섶의 들꽃들을 "수줍은 미소"로 표현한 부분은 소박하면서도 깊은 서정성을 보여 준다.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생명의 노래"를 듣고,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춘 봄날의 길손 모습에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자연을 음미하는 시인의 여유롭고 따뜻한 시선이 느껴진다.

전반적으로 단어가 쉽고 대중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공감하는 시詩 이지만, 시인들이 자주 쓰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 새로운 느낌을 받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두빛 함성"이나 구름을 "돛단배"로 띄운다는 표현처럼 시인만이 가지고 있는 참신한 감각이 있어 지루함을 지워내고 있다.

이 시는 겨울의 위축을 이겨내고 피어난 5월의 생명력을 온 마음으로 포용하는 찬가이다. 시를 읽는 것만으로도 상쾌한 휴식을 주는 따뜻하고 싱그러운 작품이다.

〈벚꽃 아래, 첫사랑〉은 기억을 벚꽃이라는 계절적 상징 속에 담담하게 불러내며, 지나간 시간의 아름다움과 잔향을 조용히 응시하는 서정시다. 이 시의 가장 큰 미덕은 과장하지 않는 그리움에 있다. "말은 짧았고 봄은 길었다"라는 구절은 특히 인상적이다.

"교복 자락에 스치던 바람처럼/ 우리의 시간은/ 가볍게, 그러나 깊게 머물렀다" 에서는 '첫사랑의 속성이 잘 드러났다 스쳐 지나간 듯하지만, 마음 깊숙이 남아있는 기억의 이중성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가볍

게’와 ‘깊게’라는 대비적 표현이 시의 정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또한 “삼 년이라는 시간은 온전히 남아/ 조용히 문을 닫는다”라는 대목에서는 첫사랑을 붙잡거나 미화하지 않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받아들이는 담담한 체념이 느껴진다.

후반부로 갈수록 이 시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시간의 문을 조용히 닫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 준다. 자연스럽게 읽기 편한 호흡이 장점이지만 다소 익숙한 표현을 조금 더 새롭게 바꾸면 시의 개성을 더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꽃잎처럼 흩날리는 너의 목소리”도 서정적으로는 아름답지만 비교적 익숙한 표현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감각을 넣으면 훨씬 인상 깊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의 본래 장점은 ‘순수함과 담백함’이라는 점이다. 지금의 이 시는 꾸미지 않은 진심이 살아 있어서 독자들이 편안하게 공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몽돌이 되기까지 우리는〉 이 시는 ‘몽돌’이라는 소재를 사랑과 세월의 은유로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이 좋았다. “모서리 깎여 나가느라 무수히 아팠을 시간들”은 삶의 풍상을 매우 자연스럽고 깊게 표현한 좋은 구절이다. 마지막 연은 담백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져 큰 울림이 있다. 수정할 것이 있다면 “삶은/ 파도를 닮아/ 서로를 할퀴던 날들을 지나오며” 부분은 의미는 좋지만 약간 설명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비로소 하나의 몽돌이 되어가며”는 아름답지만 약간 예상 가능한 결말이기도 하다. 조금 더 독창적인 이미지가 들어가면 여운이 더 깊어질 수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회한보다는 따스하고/ 그리움보다는 깊게 차오른 세월”에서 회한은 약간 낯설고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있어 다른 단어를 고민해 보셔도 좋다.

전체적으로는 매우 안정된 서정시이며, 오래 살아낸 사랑의 질감을 몽돌 하나로 잘 형상화한 작품이다. 앞으로도 좋은 시를 많이 쓰라는 격려로 신인상으로 추천한다.

심사평: 문학평론가 노 금 선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작은 등불

시는 제게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작은 등불과 같았습니다. 평범한 일상과 지나가는 풍경, 사람들의 숨결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떨림들을 글로 담아내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바닷가 몽돌 같은 시간'들이 있었고, 때로는 '아버지의 거친 손'처럼 '삶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날'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오늘의 저를 시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언제나 저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자,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던 간절한 날갯짓이었습니다. 이제 '시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안고, 더 낮고 깊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이번 등단은 끝이 아니라 더 깊고 진실한 시를 써야 한다는 새로운 다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삶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시, 오래 남아 조용한 울림이 되는 시를 쓰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귀한 심사평을 주신 존경하는 노금선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글을 따뜻한 시선으로 읽어주시고, 등단의 기회를 주신 한강문학 발행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 작품을 믿고 추천해 주신 이강철 시인님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재 형

한국시낭송선교회 수석부회장, 재능시낭송가, 전북재능시낭송회 군산지부장(역임).
전북 군산시 두란뜸 2길 8, 202동 1104호.
전화: 010-2625-2745

신작 譚詩

이기운

위대한 영웅 김민金旻에게 헌정하는 詩

- '김민완안아골타金旻完顔阿骨打'를 노래하며

자신의 뿌리를 고려(신라)의 후예라고 《금사金史》에 당당하게 밝혀놓고, 고려高麗를 상국上國으로 여겼던 '신라 유민 출신' 금金나라 태조 김민金旻, 북방에 금나라를 건설했던 김민을 노래하여 그의 공적을 기리고자 한다.

〈金旻完顔阿骨打 - 第一首〉

羅裔靑年寡退遼　　나예청년과퇴요
出河大捷陷龍驍　　출하대첩함룡효
感心濩步多兵逐　　감심호보다병축
故國不忘爲北燎　　고국불망위북료
(七絶戊戌三月桑谷)

裔:후손 예, 寡:적을 과, 捷:빠를 첩, 이길 첩, 꽂을 삽, 陷:빠질 함, 驍:날랠 효, 燎:횃불 료[요].

〈김민완안아골타 - 제1수〉

신라 후예인 청년이
소수로 요를 격퇴했네
출하점에서 큰 승리하고

날쎄게 황룡부를 함락했네
마음을 감동시켜 호보답강 전투에서
많은 병력을 쫓았으며
고국을 잊지 않고
북방의 횃불이 되었네.

〈Kim Min Wan-an Agolta - The 1stPoem〉

A young descendant of collapsed Silla,
With his small force, he defeated the Ryo empire's military.
Achieving unprecedented victory at the Choolhajeom,
And he captured Hwangryongbu suddenly and quickly.
Moving hearts, in battle of Hobodab-Gang,
He expelled the many enemy troops forth,
Never forgetting his farther's homeland,
He became the glittering beacon of the north.
(May, 11th,2024,KinsleyLee)

---
unprecedented:전례없는, 미증유의, beacon:신호등, 봉화.

〈金旻完顔阿骨打 - 第二首〉

渤海忽崩民散滅　　발해홀붕민산멸
契丹奴隸燦過忘　　글안노예찬과망

新羅後裔靑年起　　신라후예청년기
部族同心拉手相　　부족동심랍수상
(七絶戊戌十月桑谷)

契:맺을 계, 애쓸 결, 부족이름 글, 사람이름 설, 渤:바다이름 발, 발해 발, 燦:빛날 찬, 裔:후손 예, 拉:끌 랍[납].

〈김민완안아골타 - 제2수〉

발해는 갑자기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사라졌고
거란의 노예가 되니
찬란한 과거를 잊었네
신라의 후예인
청년이 일어나니
부족은 같은 마음으로
서로 손을 잡았네.

〈Kim Min Wan-an Agolta - The 2ndPoem〉

The Balhae Kingdom suddenly collapsed
And many people were scattered and disappeared,
Becoming slaves of the Khitan empire,,
They forgot their glorious past and it's cleared.
Hard of heart, who's descendant of Silla,

When a young man arose and reared up for brother,
The tribes, the old and the young with the same heart,
Joined hands and hands with each other.
(May, 12th,2024,KinsleyLee)

〈金旻完顔阿骨打 - 第三首〉

- 來流水戰鬪래류수전투

羅孫抵抗契丹爭　　나손저항글안쟁
部族招軍奴放盟　　부족초군노방맹
小數向多攻奇襲　　소수향다공기습
來流水勝作遼驚　　래류수승작료경

契:맺을 계, 애쓸 결, 부족이름 글, 사람이름 설, 襲:엄습할 습, 遼: 멀료[요], 驚:놀랄 경.

〈김민완안아골타 - 제3수〉

- 래류수전투

신라 자손은 저항하며 거란과 싸웠네
부족에서 군을 부르고 노예 해방을 약속했네
소수로 다수를 향해 기습 공격을 했으니
내류수의 승리는 요를 놀라게 했네.

〈Kim Min Wan-an Agolta - The 3rdPoem〉

- Battle at the River of Nae-ryu

The great descendant of Silla resisted
And fought against the Khitan,
Raising armies from tribes, promising
The freedom from servitude and had beaten
Them. With a small force, he suddenly and suprisingly attacked
The larger and regular enemy,
He amazed the Ryo Dynasty and their troops
By the river of Nae-ryu's victory.
(May, 15th,2024,KinsleyLee)

〈金旻完顔阿骨打 - 第四首〉

- 出河店戰鬪출하점전투

契丹願滅抵新萌　글안원멸저신맹
持續眞人走集兵　지속진인주집병
說夢戰前曾士氣　세몽전전증사기
出河大勝滿州并　출하대승만주병

萌:움 맹, 활량나물 명, 있을 몽, 曾:일찍 증, 并:아우를 병.

〈김민 완안아골타 - 제4수〉

- 출하점전투

거란은 저항의 새싹을 말살하기 원했고
계속 여진인은 달려서 병사가 되려 모였네
전투 전에 꿈을 연설하며 사기를 높였고
출하점 전투의 대승으로 만주를 아우르게 되었네.

〈Kim Min Wan-an Agolta - The 4thPoem〉
- The Battle of Chulhajum

The Kitan empire tried
To eradicate the sprouts of resistance,
But the Mohe rallied, aspiring
To become the soldier from distance.
Before the battle, he boosted
The morale by addressing splendily
A great victory in the Battle of Chulhajum,
He got the Manchuria's supremacy.
(May, 16th,2024,KinsleyLee)

〈金旻完顔阿骨打 - 第五首〉
- 黃龍府戰鬪황룡부전투

四方部族出心降　사방부족출심항
建國金旻要地撞　건국김민요지당
圍占遲枯攻援滅　위점지고공원멸
黃龍府勝立基邦　황룡부승립기방

降:내릴 강, 항복할 항, 撞:칠 당, 遲:더딜 지, 늦을지, 枯:마를 고.

〈김민 완안아골타 - 제5수〉

- 황룡부전투

사방의 부족들은 나와서 마음으로 항복하고
건국한 김민은 요지를 공격했네
포위하고 점유하고 지연으로 고사시키고 원군을 공격해서 멸했으니
황룡부 승리로 나라의 기초를 세웠네.

〈Kim Min Wan-an Agolta - The 5thPoem〉

- Battle of Hwangryongbu

Tribes from all directions surrendered in spirit,
As Kim Min, the founder, attacked the fortress to clear it.
Encircling, occupying, delaying tactics to exhaust,
He annihilated the reinforcements by suprising attack, so they lost
The battle. At Hwangryongbu he won the sweeping victory,
And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Keum Dynasty the new country .
(May, 16th,2024,KinsleyLee)

▲한시는 4행시(Quatrain)이지만, 번역 과정에 feet 수와 Rhyme을 맞추다 보니, 6행시(hexastich) 스타일이 되고 말았다. 아쉽지만 한시는 '정형성'으로 표현하는, 형태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金旻完顔阿骨打 - 第六首〉

- 護步答江戰鬪호보답강전투

遼皇募士帝親征　　요황모사제친정
七百千兵二萬勍　　칠백천병이만경
淚說感兵心集鬪　　누세감병심집투
護步大捷永揚名　　호보대첩영양명

征:칠 정, 부를 징, 勍:셀 경.

〈김민완안아골타 - 제6수〉

- 호보답강 전투

요황은 병사를 모으고
황제는 직접 정벌했네
칠십만 병사를
이만으로 상대했네
눈물 어린 연설로 병사들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모아서 싸웠으며
호보답강 대첩으로
영원히 이름을 날렸네.

〈Kim Min Wan-an Agolta - The 6thPoem〉

- Battle of Hobodab Hill

The Ryo Emperor personally led the expedition,
From whole country, after recruiting soldiers.
Just twenty thousand, Kim Min would face with
The seven hundred thousand soldiers.
He moved his troops with tearful speeches,
And they're rallying their spirits, fought for victory,
With the sweeping victory at the Hobodab Hill,
He'd forever etched his name in history.
(May, 16th,2024,KinsleyLee)

〈金旻完顔阿骨打 - 第七首〉

八尺長身秀麗顔　　팔척장신수려안
寬容對敵術征蠻　　관용대적술정만
北方霸者新羅續　　북방패자신라승
英話與光姓沒艱　　영화여광성몰간
(七絶己亥八月桑谷)

旻:하늘 민, 霸:으뜸 패, 두목 패, 艱:어려울 간.

〈김민완안아골타 - 제칠수〉

팔척장신에 수려한 얼굴
관용으로 적을 대하고 전술로 오랑캐를 정복하였고

북방의 패자로 신라를 계승했으니
영웅의 이야기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빛을 주네.

〈Kim Min Wan-an Agolta - The 7thPoem〉

A tall and handsome figure,
And people greeted him with blowing clarions.
He treated enemies with tolerance
And with strategy, conquered barbarians.
As the ruler of the north, succeeding
Silla, as he'd asserted himself.
It brings light to the distressed people
that the hero-tales on the dusted bookself.

桑田 이기운

《한강문학》(2018) 시조부문 등단, 평론부문 등단(30호.2023, 신년호), 《한강문학》 편집위원, 한강문학회 총무이사, Headhunter, 漢詩詩人, 時調詩人, 文學評論家, 民調詩人, A Poet, 문학평론: 〈단장시조單章時調(Sijo)의 부활 및 세계화〉(《한강문학》PDF38호,2025.봄호), 〈漢詩의 자주화自做化를 향한 방안〉(《한강문학》PDF39호,2025.여름호), 〈한국의 시, 외국어 번역을 위한 제언〉(《한강문학》PDF40호,2025.가을호) https://blog.naver.com/kwoonlee

오늘의 默想

김남전

길 위에 머문 햇살 외 2편

창가에 부서지는 아침 햇살
한 줌 흔들리는 나뭇잎의
명랑한 손짓에 나의 오늘이
다시금 힘차게 기지개를 켠다.

아직은 눈 밝아 세상의 빛을 담고
귀 맑아 다정한 부름을 들으니
모자란 내게 '함께 하자'는 그 한마디가
참으로 귀하고 고마운 축복입니다.

부르는 곳 있어
두 발로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누는 마음마다 보람의 꽃이 피어나고
나그네 인생길 빈손으로 왔음을 알기에
움켜쥐는 욕심보다 내어주는 봉사가
더 깊은 향기로 남는 것임을 이제야 배웁니다.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나 자신
서두르라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으렵니다.

그저 마음이 흐르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오늘이라는 길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감사의 보폭으로 걸어가렵니다.

봄春

봄은 세가지의 덕德을 지닙니다.
첫째는 '생명'이요,
둘째는 '희망'이며,
셋째는 '환희'입니다.

봄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면 푸른 새싹이 나고,
나뭇가지마다 신생의 잎이 돋고,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밀레와 고흐는 〈씨뿌리는 젊은이〉를 그렸습니다.
네 마음의 밭에 낭만의 씨를,
네 인격의 밭에 성실의 씨를,
네 정신의 밭에 노력의 씨를 뿌리세요.

봄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봄 바람을 '혜풍'이라 했고,
여름 바람은 '훈풍'이라 했고,
가을 바람은 '금풍'이라 했고,
겨울 바람은 '삭풍'이라고 했습니다.

봄은 환희의 계절입니다.
우울의 날이여 가거라.
비애의 날이여 사라져라.
절망의 날이여 없어져라.

고목처럼 메말랐던 가지에 생명의 새싹이 돋아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얼어 붙었던 땅에서 녹색의 새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창밖에 나비가 찾아오고, 하늘에 종달새가 지저귀고, 벌판에 시냇물이 흐르고, 숲속에 꽃이 핀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요.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노자

감정과 이성 사이의 균형은 성숙한 삶의 핵심입니다.
감정에만 휘둘리면 순간의 분노와 불안이 삶을 흔들고,
이성만 앞세우면 인간다운 온기와 용기를 잃기 쉽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기 인식과 자기 통제입니다.

그러나 삶에서 가장 큰 후회는 한 일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너무 안전하게만 살다가, 인생의 끝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지?'라고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줄기는 흐를 때보다 막혔을 때가 더 해롭습니다.
불확실성 앞에서도 전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衡谷 김남전

《한강문학》24호(2021.봄)시부문 등단, 한강문학작가회 회장, 광주문인협회 자문위원, 전)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교수부장(장학관), 전)광주향교 전교, 성균관 원임부관장, 용아 박용철기념사업회 고문.

스토리에세이

이상완 - 월산할배 4손녀 육아관찰기12

긴급 구조요청, Mayday!

越山 이 상 완
https://m.blog.naver.com/swlee8585/223905348061

청록(靑綠)의 계절 5월이 찾아왔다.
4월이면 겨우내 나목裸木으로 인동忍冬을 보냈던 벚나무나 목련나무, 살구나무, 복숭아 나무들은 잎보다 먼저 꽃을 다투어 피워내고, 이내 꽃이 지자마자 새잎들이 돋아나 4월 말경에는 곱디고운 연둣빛 신록新綠이 우거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5월이 되면 상록수와 낙엽수들은 모두가 완전히 청록의 잎들로 변색을 하여 그야말로 봄철의 끝자락인 청춘靑春을 자락自樂하며 만끽한다. 게다가 라일락꽃이 향기를 쏟아내며 꽃이 피기 시작하면 장미꽃들도 서둘러 피어난다.
날마다 일신日新이 되어가며 날씨는 매일 따뜻해져 가고, 하늘은 푸르고 더 높게 보여, 그야말로 만화방창萬花芳暢의 계절이 된다.
사람들은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봄철 중에서도 5월이 가장 화려한 달이라는 찬사로 들리지만, 아무래도 나에게는 4계절 중에서도 5월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는 말로도 들린다.

5월! 영어로는 “May”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5월이라는 ‘May’는 어디서 어떻게 해서 생겨난 말일까?
나의 4손녀들 중에서 아린, 수아, 윤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한글판 시리즈를 이미 20여권이나 다 읽었다. 그래서 신들의 이름이나

역할까지도 줄줄 꿰고 있어 나는 그들의 암기력에 깜짝 놀라고는 한다. 그 어려운 공룡들의 이름이며, 만화영화의 캐릭터들인 '하추피' 친구들 이름이며, 최근에는 포켓 몬스터들 이름을 외우고 식별까지 하는 것을 보고는, 여러 번 경탄하곤 했다.

영어로 5월은 'May'인데 이는 로마의 신화에서 유래한 '봄의 여신' 'Maius'에서 비롯되었다. 고대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신은 모든 신들의 제왕이었다.
바로, 이 제우스(Zeus) 신과 'Maius' 여신의 아들이 헤르메데스(Hermedes) 신이다. 이런 신들도 우리 손녀들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마이아(Maia) 신에 대해서 이 월산 할배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 영어로 5월인 'May'의 어원을 잘 모르고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신의 이름에서 왔단다" 하고 설명을 해준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고대 그리스의 Maius 여신이 로마 시대에 와서는 마이아(Maia) 신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헤르메데스’(Hermedes) 신은, 바로 아버지가 제우스(Jeus) 신이고, 어머니가 마이아(Maia) 신이다. 그런데 마이아(Maia) 신은 번영과 성장을 맡은 ‘봄의 여신’이라고 자처했다.

그녀의 아들인 헤르메데스는 신들의 전령이라는 심부름꾼 노릇도 했고, 인간들 중에서 장사꾼이나 여행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수호신’ 역할도 했다고 한다.

헤르메데스 신은 어머니 마이아(Maia) 신으로부터 헌신과 봉사, 사랑이라는 교육을 잘 받아서, 윗 신들이나 인간들을 잘 도와주는 신이었다.

이 덕분에 로마 사람들은 헤르메데스의 어머니인 'Maia' 여신을 좋아하고 숭모했다. 그래서 5월 'May' 달에는 과일 나무들에게 꽃을 피게하여 과일을 맺게 해주고, 화초들에게 주는 은혜를 로마 사람들에

게 베풀어 주려고, 5월에는 새잎이 돋아나게 하고 꽃들도 피게 하니 봄의 여신 '마이아'를 숭배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5월 'May'는 바로 마이아(Maia) 여신으로 인하여, 5월달 'May' 명칭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4대 조동사인 'can', 'will', 'must', 'may'가

있는데~ 이때 조동사 'may'는 5월 'May'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인 것이다.
항공기나 선박 등이 운행 중에 '긴급 구호'나 '구제 요청 신호'로써 인근에 있는 항공기나 관제탑 또는 선박에 무선통신 신호로 "Mayday! Mayday! Mayday!" 이렇게 3번을 연속해서 타전하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다. 이 때의 'May'는 '5월'이나 조동사와 'may'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이라고 한다.
이러한 통신 신호 'Mayday'는 프랑스 말인 "m'eider"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아무튼 계절의 여왕인 May가 오면, 여기저기에서 축제가 많이 열린다.

이 월산 할배가 고교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5월의 여왕' 'May Queen'은 인기가 있었다. 서울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매년 5월이 오면, 여대생들 중에서 미모가 뛰어나고 교양이 있게 보이는 여대생 중 한 명을 선발하여, 교내 캠퍼스에서 퍼레이드와 축제를 벌였었다. 지금은 이러한 미인선발대회가 너무나 '상업적으로 변했다'하여, 폐지되었다.
내가 건강이 좋았다면 가족들이나 형제자매들과 이런 좋은 시기에 함께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으련만 아쉽기 짝이 없다.
'아린'이와 '혜리'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앞으로 미국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다니게 될 터이니까, 영어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수아'나 '윤아'보다는, '영어'를 더 깊이 있게 많이 습득하고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영어를 배우게 될 수아와 윤아를 위해서 이 월산 할배가 알고 있는 'May 또는 may'에 대해서, 여기에 간략하게 정리해 둔다.

영어에서 'may'는 3가지의 뜻으로 사용된다.
① 항상 대문자로 문장의 속에서 쓰이는 'May'는 달의 명칭인 '5월'이다
② 문장 속에서 소문자로 쓰이는 'may'는 조동사이며, 어원은 고대

영어 ‘maeg’에서 유래되었고, 허락(~해도 좋다), 추측(~할런지도 모른다)의 뜻으로 사용되고, 과거형은 ‘might’이다.

③ 노동절인 5월 1일은 ‘May Day’ 라고 하는데, 이때 ‘May’는 ‘5월’이라는 뜻이다.

‘May Day’는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 있는 ‘헤이 마켓’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근로자)들이, 하루의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자고, 주장하기 위해서 ‘헤이 마켓’ 광장에서 데모를 했는데, 이때 진압 경찰과 충돌하여 노동자 한 명이 경찰들이 위협으로 발사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매년 5월 1일이 되면, 시카고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고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국제적으로 ‘노동자의 날’로 정하고, 5월 1일을 ‘May Day’라고 부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노동절의 ‘May’는 ‘5월’을 뜻한다.

④ 그러나, 5월 1일 ‘May Da’y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쓰이는 ‘May Da’>도 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나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에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급히 구조를 요청할 때, 무선통신으로 인근에 있는 항공기나 선박 또는 관제탑에 “Mayday”를 3회 연속해서 타전하면, 이것은 또 하나의 긴급 조난을 알리는 ‘S O S’의 통신 신호의 역할을 한다.

“Mayday, Mayday, Mayday”, 이때 ‘May’는 5월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은 프랑스 말인 ‘m`aider’에서 온 말이라고 한다.
프랑스어에서는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를 “Venez maider”라고 한다. 영어로는 “Come, help me”이다.
프랑스어 ‘m’aider’에서 ‘m'’는 영어로 1인칭 대명사의 목적격인 ‘me’ 이고, ‘aider’는 영어 동사로 ‘aid’(돕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 말 ‘m'aider’[마이더]가, 그 발음이 영어의 ‘May Day’(메이데이) 처럼 들려서, 이제는 ‘May Day’를 3번 외치거나, 무선 통신으로 3번 반복으로 발신을 하면, ‘S O S’처럼, 이를 국제적으로 긴급 구난요청의 통신기호로 받아들여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아무튼 5월은 살아 있는 것이라면, 식물이건 동물이건 성장하고 번성하는 계절이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뉴저지에 있는 두 손녀, '아린'이와 '혜리'도, 카톡을 통해서 보내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 서울에 있는 두 손녀, '수아'와 '윤아'도 마찬가지다. 수아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그간 짧은 기간이지만 학교생활에 너무나 잘 적응하고 있다.
하기야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어린이집 생활 2년, 이어서 유치원 생활 3년 모두 5년간을 단체생활, 아니 사회생활을 학습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생활은 부모가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잘 적응하고 있다. 동생인 윤아도 언니와 꼭 같은 학습 과정을 거치고 있기에, 내년 3월에는 유치원을 졸업하고, 지금 언니가 다니는 구남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윤아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아 맘은 'H 외고'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올해 1년간은 휴식년(일종 안식년)의 혜택을 받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휴식 중에서도 오전에는 10년 전에 취득한 운전면허증은 있으나 실제 운전을 전혀 하지 않아서, 이제야 운전학원에 가서 실습과 운전학습을 하러 다닌다.
그리고 이따금 'C 출판사'의 고교 영어교재 편집위원으로, 교재 작성, 편집 등으로 컴퓨터에 매달려 밤샘 작업까지 하면서 바쁘게 보낸다. 그런데 다음 달 6월 9일에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동생 '아린이 맘'이, '언니는 지금 휴식년이니까' 2~3개월 동안 미국에 여유있게 와있다 가라고, '방문 초청'을 해서 출국할 예정이다.
미국 뉴저지에 있는 '혜리'는 카톨릭 교회의 수녀들이 운영하는 '영어 전용 학교'인 Christ Teachers' Academy 스쿨에 병설된 유치원 반인 'PK'(Pre-Kindergarten)반을 1년간 다녔다. 이제, 오는 6월 10일에는 졸업을 한다.
그리고 '아린'이는 뉴저지 공립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6월 20일에는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미국은 여름방학이 2개월 이상이다. 9월 첫 주에 새학기가 시작될 때야 여름방학이 끝난다.
그래서 미국 초등학생들은 긴 여름방학 동안에 가족들과 해외여행

을 가거나,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Summer Camp Summer School’에 다닌다.

아린이와 혜리도 이번 여름방학에는 약 1개월 동안 Summer Camp나 Summer School에 다닐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수아와 윤아도 뉴저지에 있는 아린이와 혜리가 다니게 될 Summer Camp나 Summer School에 보내려고, 6월 9일에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차제에 수아 아빠도 여름휴가를 회사로부터 3주를 받아서, 동행할 계획이다. 물론 수아와 윤아, 두 딸들도 동반한다.
그런데 윤아는 유치원생이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수아는 초등학생이어서 50일 정도 장기 결석을 해야 하기에, '수아 맘'은 오늘 오전에 수아 담임선생님을 면담하고, 미국에 있는 동생이 개인 사정으로 잠시 미국에 들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서, 할 수 없이 수아를 동반하고 미국에 가게 되어, 40일간의 장기 결석사유서를 미리 제출했다고 한다.
수아 담임선생은 수아는 국어나 산수, 미술 등 수준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어서 40일 정도 장기 결석해도, 2학기에 학습 진도를 따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사자인 학생이 미국이나 호주에 영어 공부하러 간다고, 자기 반 학생들에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왜냐하면 집안 형편상 갈 수 없는 학생들은 부모를 원망하거나 위화감을 느껴서, 기가 죽어 있다가 막상 영어 공부하고 온 학생들을 시기하여, 왕따를 시키는 등 부작용 사례가 있었으니, 수아도 마지막 출석할 때까지는 입을 꾹 다물게 해달라고~ 신신당부 받았다고 한다.
"선생님, 염려 마세요. 저도 교직에 몸을 담고 있는 교사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수아는 아직 미국에 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6월 9일, 저녁 10시에 출국하는데, 수아는 9일에도 출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 '오늘 미국 간다'고 알려 줄 생각입니다. 하하하~"
수아 맘은 이렇게 웃으며 다짐했다고 한다.
아마도 6월 9일 오후 2시 30분, 수아 맘은 둘 다 귀가했을 때 미국 여행계획을 말해주려고 작심하고 있었다.

수아 맘은 이달 중순부터 미국에서 귀국할 때까지 수아와 윤아는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 체육교실, 미술학원, 가정방문 한글 학습도 모두 보내지 않거나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수아와 윤아는 평소 이런 과외 학원에 다니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아와 윤아는 왜, 과외 학원을 당분간 쉬는지, 그 이유를 묻지도 않았다.

당분간 쉬었다가 다시 학원을 보내주겠다고 하니,

"좋아요! 이제 숙제도 안 해서 좋다!" 하고, 수아와 윤아가 박수 치는 것을 보고, 우리 어른들은 어이가 없어 그저 웃어야만 했다.

그러나 미국 여행의 경우는, 이 월산할배 같으면 사전에 미리 얘기해 주고, 학교에 가서는 입 다물고, 미국으로 영어 배우러 간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단속을 했을 것이다.

요즈음 세대의 젊은 부모는 육아 방법이 우리 세대와는 달라서, 나는 간섭을 안 하고 그저 씁쓸한 마음으로, 속으로 코웃음을 짓고 만다.〈계속〉

▲ 수아

▲ 아린

▲ 혜리

체 육 관
입학을
축하해요
서 울 구 남 초 등 학 교
SEOUL GUNAM ELEMENTARY SCHOOL
구남
가르침은 사랑으로
이윤아 구남초 입학기념 사진

▲ 윤아

고흥향토사학자

이상완 - 해외문화 이야기④

플리머스 정착촌 탐방기

- 메이플라워호를 탄 사람들

월산 이 상 완

https://m.blog.naver.com/swlee8585/221245467335

플리머스 400년전 정착촌을 탐방하다

▲ '메이플라워'호를 탄 사람들

▲ 미국 첫 이주민들. 필그림스~ 순례지들에 얽힌 뒷 스토리들

▲프롤로그

세상은 넓다는 말도 있지만 미국 자체도 땅덩어리가 너무나 커서 또 하나의 넓은 다른 세상을 이룬다.
지난해 미국에서 5개월 체류하는 동안에 나는 주로 미국의 동부인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대부분을 머물렀다.

올해 1월 초, 작은 딸 비니닥이 초산으로 득녀를 하고, 또 뉴욕대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다 마쳐서 오는 5월 10일 학위수여식(졸업식)이 있다는 두 개의 경사가 겹쳐서, 나는 부랴부랴 서둘러 앞당겨서 지난 3

월 24일에 뉴욕을 거쳐서 커네티컷 주의 수도인 하트포드에 와 있다. 집사람은 3개월 전에 이미 와서 1월 초에 갓 난 손녀 '아린'이를 돌보고 있다.
작은 사위 '제이닥'이 다니는 회사, 'UTC'가 바로 이곳 하트포드 인근인 파밍톤에 있기에 지난해에도 뉴욕에서 4개월 머문 후에 이곳 커네티컷 주에 와서 1개월가량 체류했었는데, 올해는 2개월가량 더 머물 예정이다.

이곳 하트포드는 뉴욕과 보스톤의 중간쯤의 거리에 있다. 자동차 편으로 뉴욕이나 보스톤에서 오려면 약 2시간 반쯤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다. 내가 25년 전에 하와이에서 살 때, 아는 지인이 "코네티컷에 산 적이 있다"며, 그곳 얘기를 자랑삼아 들려주어서 그때부터 커네티컷의 지명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 미국 본토에 가게 되면 꼭 "그곳에 한번 가봐야지"했는데, 작년에 이어 두 번이나 이곳에 체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는 그 지인도 이곳을 말해 주면서, "코네티컷이라는 지명은 우리말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했었다.
그의 말인 즉 '코네티컷'은 우리나라 말인 '고운 냇가'와 뜻이 같고 그 발음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혹, 그렇다 치자. 그러나 우연히 일치된 단어 몇가지 사례를 가지고, 우리말과 인디언 언어, 양자 사이에 필연성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너무나 억지이고 무리이다.
나는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해서인지 언어(단어)와 대상 사이에는 자의성이 있는 것이지, 결코 필연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 와서 코네티컷(Connecticut)의 어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원래는 아메리카 인디언 한 부족의 말이었고 그 뜻은 '큰(긴) 강변이 있는 냇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억지를 쓰자면 '큰 냇가가 코네티컷이 된 것'이라고 그 지인은 생각하나 보다.ㅋ
이곳 교민 중에도 이렇게 제법 논리적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 있는데 그들의 심정은 이해가 간다.

현재의 코넥티컷(Connecticut)은 원래 인디안 말인 '퀀네툭컷'(Quinnehtukqut)에서 변음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퀀(Quin)은 우리말 '큰 또는 긴'이고, 네(neh)는 우리말 '냇'이고, 툭(tuk)은 우리말 '터 또는 뚝'이고, 컷(qut)은 우리말 '곳'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곳 커네티컷 주 당국의 인터넷 홈페지에도 주 명칭인 코넥티컷(Connecticut)은 원래 토착 인디안 모히간(Mohegan)의 말인 'quonehtacut long tidal river', 퀀네툭컷(Quinnehtukqut)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뜻은 'Long River Place'(긴 강터)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마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조국애와 애국심이 투철한 교포가 '코네티컷'의 어원이 우리말 '큰 냇가 터 또는 긴 냇가 터'에서 온 것이라고, 그리고 아예 덧붙여서 '고운 냇가'라고 제법 현학적인 객기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아메리카 인디언의 일부는 한반도에서도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아마도 그 분은 미국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먼 옛날 빙하시기에 아시아 대륙에서 베링을 건너서 온 몽고족이었다는 설을 믿고, 그 몽골족속에는 일부는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 '코네티컷'에 거주하게 된 것이라고 믿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고 보니 뉴욕에 살고 있는 한 교포는 뉴욕의 맨하탄(Manhattan)도 어원이 한국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헉!
'맨하탄 섬'이 인디안 언어로 "만나 하타(Mannahatta)"인데, 그 뜻은 '언덕이 많은 섬', 또는 '땅이 많은 섬'(Island of many hills)이어서 우리말 "만흔타> 만흔 따> 많은 땅"과 비슷하다고 하면서, 아마도 〈맨하탄〉은 어원이 우리말일거라고 주장한다.ㅋㅋㅋ

그리고 우리말에서 <땅>은 <따 또느 타>라고도 했다고 곁들여 주장한다. 하기야 천자문에서 하늘천, 따지(地)할 때, 땅지(地) 또는 따지(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따>는 <땅>을 뜻한다.
그래서 맨하탄에서 <탄>은 <땅>을 의미한다는 것이다.ㅋㅋㅋ

하기야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등 나라 이름 끝에 <탄>은 <땅/ land or place>을 말한다고 어느 파키스탄 사람한테서 직접 나도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깨끗한 땅/Pure Land>이라는 말도 들은 것이 기억난다.
그러나 아무튼 애국심과 조국애는 많을 수로 칭친받아야만 하지만 이런 설명을 만약에 미국인들이 들은다면 콧방귀를 날리며 배꼽잡고 크게 비웃지나 않을까 싶어 솔찬히 걱정이 된다.
어쨌든 이곳에 사는 한인 교포들에게는 하트포드를 가로 질러서 흐르는 아름다운 <코네티컷> 강 (Connecticut River)을 보면서 고국에 두고 온 고향산천을 그리다가 아마도 <고운 냇가>가 생각이 나니까 <코네티컷>이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변음이 떠 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큰 냇가>나 <고운 냇가>가 <콘냇카>나 <코운냇카>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코네티컷>이 되었다고, 애국심과 조국애가 깊은 교포들 중에는 이따금 이곳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차 자주 그렇게 우수게(?)로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을 것이다.

나는 미동부 지역인 <뉴 잉글랜드> 지역을 여행했었다. 특히 플리마스에 있는 <플리마스 정착촌>, <플리마스 바위>, 그리고 초기 개척민들의 묘지인 <베리얼 힐/Burial Hill>도 방문했었다.

플리마스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뉴잉글랜드> 지역이라 지칭하는 곳은 지금부터 400여년 전부터 영국에서 맨 처음으로 개척지로 눈독을 드렸던 동부지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현재 동부에 있는 6개 주들이 모두 뉴잉글랜드 지역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메인(Maine)주, 버먼트(Vermont)주, 뉴햄프셔(New Hampshire)주, 코네티컷(Connecticut)주, 매사추세츠(Massatsusets)주,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주를 말한다.

▲ 미국 동북부 뉴잉글랜드 지역 지도

나는 작년에 이 6개 주에서 절반인 매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 코네티컷 3개 주는 이미 여행을 했었다. 나머지 3개 주인 메인, 버몬트, 뉴햄프셔는 앞으로 50일간 더 코네티컷에 머무는 동안에 사정이 허락하면 한 바퀴 휙하고 들려 보았으면 한다.

지난 해에는 뉴욕에서 로드 아일랜드 주에 들렸었다. 맨 먼저 뉴헤이

븐(New Haven)을 가쳐서 미스틱 타운(Mystic Town)에서 그 유명하다는 '미스틱 피자'도 먹어 보았다.
바로 이곳 미스틱 항구에는 1620년에 영국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메리카로 올 때 102명이 타고 왔다는 메이플라워호를 그대로 본 따 만든 <메이플라워 2호>가 원래 전시장이었던 플리마스 항구의 워터프론트 부두를 잠시 떠나서 이곳에 와 있다 한다.
그 배는 2020년, 메이플라호의 미국 상륙 4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등장했다.

<메이플라워 2호>는 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서 2년 전에 미스틱 씨포트 조선소에 와서 지상에서 완전히 해체를 당한 채 지금 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늦어도 2019년에는 플리머스 제자리로 돌아가서, 400주년 기념행사 때에는 새로 단장한 모습으로 폼잡고 하객들을 맞는다고 한다.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조선소 현장을 들리지 못하고 다만 아쉬움을 남긴 채 다음 행선지인 뉴포트로 향했다.
그리고 18세기에 미국 부자들의 여름철 호화 별장지대인 뉴 포트

▲ 현재 복구 작업중인 메이플라워 2호(미스틱 씨포트 조선소)

(Newport)에서 해운왕 겸 철도왕이라고 불리웠던 당시 미국 제일 부자였던 빈더벨트 가문의 별장인 <마블 하우스/ Mable House>와 <브레이커스 별장/ Breakers>도 구경했었다.
그리고 저녁 때 쯤에는 매사추세츠 주로 들어가서 폴 리버(Fall River) 타운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1박을 했다.
다음 날인 9월 5일에는 짐을 꾸려 오전 10시 경에 폴 리버를 출발해서 톤턴(Taunton)을 거쳐 오전 11시 경에 여행의 목적지인 플리머스(Plymouth)에 도착했다.

플리머스(Plymouth)!
인구 약 6만명이 살고 있는 아담하고 아름답고 운치있고 정겨운 해안 도시였다.

▲ 플리머스 개척 식민지에 도착한 청교도들 모습

지금부터 약 400년 전인 1620년에 메이플라호를 타고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를 떠나 이곳에 와서 플리머스 몽돌 바위를 딛고 처음으로

미국 땅에 상륙했던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순례자로 자처했다. 그리고 이곳을 처음에는 <뉴 플리머스/ New Plymouth>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들은 그러다가 <뉴/New>를 떼어버리고 간단히 <플리머스/Plimoth>라고 했다. 그래서 지명으로 <플리머스>는 떠나왔던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게 되었다.
그런데 17세 영어는 아직 표준어나 철자가 우왕좌왕 하던 시기라 당시 정착촌 생활을 잘 기록해 두웠던 윌리엄 브래포드의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의 역사>라는 기록물에는 Plymouth가 아니고 철자가 Plimoth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무튼 플리머스는 자기 이름의 철자와는 관계없이 다만 대서양 연안인 바닷가에 평화롭게 자리잡고 있었다.

인터넷 네이비의 안내에 따라 플리마스 플랜테션(Plymoth Plantation)을 손쉽게 찾아 들어 갔다.
정문 앞에는 수 천대가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이 있었고, 그 주변의 낮은 언덕은 아름들이 키다리 소나무 숲이 삥 둘러 서 있어 주차장은 그저 아늑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자아내며 그저 저 혼자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일단은 주차를 해 놓고 주차장 뒷켠에 마련된 휴식 공원에서 잠시 한숨을 돌리며 휴식을 취하다가 집 사람이 마련해 온 김밥 등 간단한 음식으로 점심 겸 요기를 떼웠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400년 전에 영국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라는 범선을 타고 이곳에 와서 정착촌으로 자리 잡았다는,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되기 전에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그 유명한 "역사적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표장에서 입장권을 4장 산 후에 우리나라 솟을 대문같은 게이트 안으로 들어 섰다.

알고 보니 이곳은 사실상 "플리머스 야외 정착촌 역사 박물관"이나

▲ 플리머스 야외 역사 박물관 게이트

다름이 없었다.
그 안에는 17세기 영국인 정착촌, 방문객 센터, 왐파네오그 인디안 옛마을, 공예제작실, 나예 (Nye) 곡간 등이 옛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함께 들어 서 있었다.
성인은 입장료가 28달라인데 나와 집 사람은 60세 이상이어서 경노 대우를 받아 각각 26 달라를, 작은 딸 커플은 각각 28달라를 지불했다. 약간 비싸다는 생각도 일순 들었지만 애써 그런 생각을 얼른 지우고 마음 편하게 구경이나 잘하고 이 참에 미국의 초기 식민지 시대에 대한 산 역사 공부나 나름대로 잘 챙겨보고, 그간 읽었던 미국 역사책에 대한 생각들이라도 일부나마 나름대로 정리해 보고자 미음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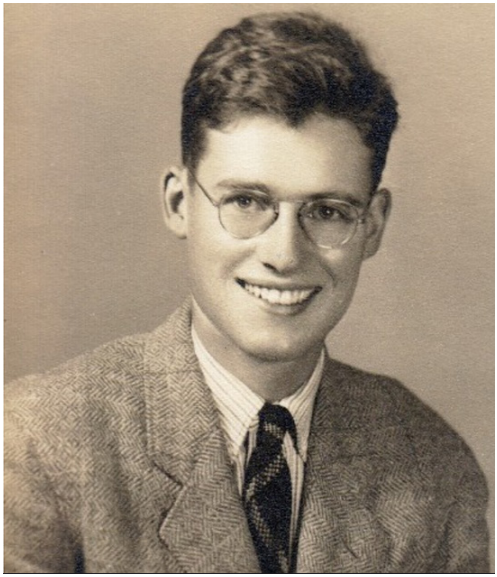
드디어 "플리머스 야외 정착촌 역사 박물관"의 한국식 솟을 대문을 방불케 하는 게이트 안으로 들어 섰다.
주차장과 게이트는 정착촌 뒷쪽의 낮은 언덕 위에 마련되어 있어서 게이트를 들어서자 눈 아래 단박에 정착지 일대가 쏙 들어 왔고 곧장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숲속 길이 훤하게 뚫여 있었다.
그 길을 계속 따라계속 가니 붉은 색 기와 자붕을 이고 있는 현대식 건물이 쌩뚱맞게 우리를 맞아 주었다.

▲ 방문객 센터 (Visitor Center)

바로 이곳이 방문객 센터(Visitor Center)란다.
안내판을 자세히 보니 정식 명창은 <헨리 혼블로어 뱡문객 센터(Henry Hornblower Visitor Center)>라고 한다.
그런데 우우웽! 헨리 혼블로어? 이 사람은 누구지? 혼블로어(Horn + blower)라면 옛날 영국에서 장원제도가 한창일 때 농장에 일하러 가자고 일꾼들을 뿔 고동(Horn)을 불었던 사람(Blower)을 말하며 그런 사람이 자기 성을 아예 '뿔고동 피리 부는 가문'으로 삼고 싶어 아예 성을 혼불로어(Hornblower)했다는 설화가 있는데, 바로 그런 가문의 후손과 이 <플리머스 프랜테이션>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나에겐 낯선 이름이라 안내 요원에게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친절하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었다.
그는 이곳 플리머스에서 64Km 떨어진 보스톤에사 1917년에 태어


▲ 헨리 혼블로어(Henry Hornblower)

나서 어린 시절에는 특히 여름철에 이곳에서 매년 여름철을 보냈다고 한다. 그 소년의 이름이 헨리(Henry)이고 성이 바로 혼블로어(Hornblower)였다.

이 소년의 집안 사정이 부유해서 그는 매년 이곳에 여름 별장이 살다시피 했다고 한다.

그는 어려서부터 독서를 무척 좋아했고, 지적 호기심도 매우 강했다고 한다. 특히 플리머스에 얽혀 있는 옛 식민지 시절의 필그림 조상들의 스토리에 관심이 많아서 그는 마침내 1941년에 하바드 대학에 입학해서 미국 역사와 고고학을 전공하기까지 했다.

하바드를 졸업하고 한 때는 가업을 이어 주식거래 중계업을 하다가 도중에 잠깐 쉬고 플리머스 지역 일대의 유적지와 유물들을 탐색하는 작업에 앞장 서서 뛰어 들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귀국했을 때 부자인 아버지를 설득하여 무려 2만 달라를 기증받아 옛 정착촌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삼아 1947년 30세가 되던 해부터 친지와 사업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플리머스 유적지 복원사업을 하는 플리머스 협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흔적이 점차 사라저가는 플리머스 식민지 시대의 정착촌을 1620년대의 모습으로 그대로 재현시키겠다는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꿈은 어떻게 하면 1620년대 플리머스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 왔던 필그림 조상들의 정착촌 모습을 그대로 재현시켜서 미국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실감나게 잘 여 줄 수 있을까를 늘 고심하였다.
그는 특히 필그림(청교도) 조상들의 용감스러운 개척정신과 당시 이웃인 인디안들과 초기 50여년간 서로돕고 잘 어울려 살던 평회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곳이 첫 '추수감사절의 탄생지'라는 것도 미국인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드디어 41세가 되었던 1958년에 그의 꿈은 실현되기 시작했다. 우선 플리머스 항구의 해변가에 정착촌 오두막집 두 채를 지었고 그 옆에는 방위용 요새도 건설했다. 그리고 1957년에는 복제된 메이플라워 2호도 건설계획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1959년에는 1627년 당시의 정착촌 모습을 거의 100퍼센트 재현시키는 <17세기 영국인 정착촌 마을>을 건설했다.
그리고 1973년에는 정착촌 근처에 아메리카 원주의 옛 마을 터에 왐파노아그 원주민 촌도 실감나게 건설하였다.
이처럼 헨리 헌블로어는 <17세기 식민지 정착촌> 복원사업에 열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타계했다. 그 때 그의 나이는 67세였고 때는 1985년이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들은 타계 2주년을 맞아 그를 추모하기 위해 기념관을 지어 헌정했다.. 바로 그 때의 건축물이 우리 일행을 맞아 준 <방문객 센터>이다.
바로 이 센터의 원명(Henry Hornblower Visitor Center)이 <헨리 혼블로어 방문객 센터>이기도 하다.
조상이 비록 영국에서는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하찮은 고동뿔 부는 사람이었지만, 아마도 영국에서 개척 이민으로 왔고 그의 후손인 헨리는 자기 조상이 미국에 처음 와서 살았던 흔적을 복원시켰던 효자 후손이었나 보다. 아니 현 미국인들에게도 애국심이 무엇인가를 일

깨워 준 애국자요 문화 애호가 였었다.

이 방문객 센타 안에는 바로 박물관 숍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간이 식당도 있다. 일부 그룹이나 단체가 세미나를 하거나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간단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예식장도 있다.
방문객 센터안에는 모형 메이플라워가 당시 탑승한 사람들의 복장, 옷장, 탁자, 생선잡이 갈대덫, 칫솔 등 유품들과 함께 마치 소형 박물관 처럼 가지런히 정돈된 채 잘 꾸며저 있었다.

우리 일행은 방문객 센타를 나왔다. 곧장 아치형의 숲을 이루는 길을

▲ 인디안 왐파노아그 족의 웨투 집

따라가니 인디안 원주민 촌인 왐파노아그(Wampanoag) 족의 복원된 마을이 나타났다.
참나무 껍질과 갈대 줄기로 만들어진 회색빛의 오두막 집들이 마치 북극지방의 얼음집인 이글루(igloo)처럼 보였다. 인디안들은 이런 집을 웨투(wetu)라고 부른다고 했다.

아마도 왐파노아족의 조상들이 먼 옛날 아시아 대륙에서 살다가 빙하시대를 맞아 베링해협을 넘어서 아메리카로 이동해 오는 동안에 어떤 때는 이글로 얼음집에서도 살다가, 더 남하하여 플리머스 지역에 와서는 갈대를 이용하여 이글로 비슷하게 집을 지은 것이 웨투 오두막 집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 인디안 왐파노아그 족의 집 내부 모습

인디안 촌에는 이런 여러 채의 오두막 집들이 여기저기 옥수수밭이나 채전밭 속에 박혀 있었다.

일부 오두막 집에는 원주민 복장을 한 사람들이 17세기에 실제 생활하고 있던 모습대로 연기를 하며 재현시키고 있었다.
집 문 밖에서도 원주민 아낙네들이 채전을 가꾸기도 하고 빨래한 옷들을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걸어서 말리기도 했다.
어떤 오두막 웨투 집에서는 원두막 중앙 안에 땔감으로 불을 피우며 그 위에 작은 가마솥이나 큰 냄비 같은 것을 중간에 세로로 매달린 걸이에 걸어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 통나무배를 만드는 모습

집안 면적은 작은 것은 우리나라 시골의 단칸방이나 두 칸쯤의 초가집 정도였다. 집안에는 간이 침대 위에 사슴 가죽이나 들소 가죽 등 동물 가죽으로 만든 침대 시트나 이불처럼 사용되는 가죽들이 덮혀있었다.

왐파노아그 원주민 마을은 '일강 언덕'(Eel River bank), 그러니까 "뱀장어 강 뚝"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처럼 17세기에 바다 연안과 강이 만나는 곳에 살았기에 왐파노아그 족은 농작물 재배와 수렵채취를 함께 할 수 있었다.
일강 강뚝 주변에서는 통나무배인 카누가 전시되어 있었다. 또 실제로 통나무를 가지고 카누를 만드는 작업을 재현하고 있었다.
마침 연기를 하고 있는 원주민 후손은 그 배는 인디안 말로 미슌(mishoon)이라고 불렀다.
그는 통나무에 속을 쉽게 파내기 위해서 일부는 연장으로 속을 파내다가 불을 짓피워서 나무 속을 일부를 태워서 깎아 낸다고 했다.

왐파노아그 마을에서 일하는 인디안 후손인 직원들은 당시의 원주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기 훈련인 롤 풀레이(roll play)를 연수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질문을 하면 1620년대의 견해와 생각으로 대답을 해 준다고 한다.
이런 롤 플레이어(Roll Player)가 있는 "야외 역사 박물관"의 운영방법은 바로 플리마스 정착촌을 복원시켰던 설립자, 헨리 혼블로어의 아이디어였다고 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나라 용인에 있는 한국 민속촌에서도 도입을 해서 보다 실감나게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옛모습을 알려주는데 활용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일순 들었다.
그런데 1620년대 이곳 인디안 원주민들은 자기들 토착언어 밖에 몰랐기 때문에 이곳 연기자들에게 직접 영어로 물으면 대답하지 않고 따로 훈련을 받은 문화해설사 직원이 통역을 하여 의사를 교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그룹이나 학생들이 단체로 올 때 사전 예약을 해야만 된다. 그라나 자유 여행인 경우는 영어로 물으면 영어로 간단히 대답을 해 주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에 인디안 원주민 마을 찾아 오는 관광객들 중에는 인디

안 복장에 인디안의 깃털 모자 차림까지 하고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기를 할 분위기를 훼손시켜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그들이 자기들의 옛 조상을 희화꺼리로 삼는 것도 매우 불쾌하며, 아울러 자기들이 옛 모습을 재현하려는 연기에도 찬 물을 끼얹는 것 갔다고 했다. 그래서 제발 이곳에 올 때는 인디안 흉내를 내지 말고 진지하게 자기들의 모습을 이해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1620년에 영국인들이 이곳으로 오기 전에 2~3년 동안에 전염병이 이 마을에 창궐해서 마을 전체 인구인 무려 2천여명나 되는 원주민들이 몽땅 몰살하였다고 한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스콴토'(Squanto)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만이 유럽 어부들에게 납치를 당하여 유럽으로 갔기에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았다고 한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왔을 때는 옛 마을 터에는 매장조차 못 한 채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여기 저기에 수북하게 무수히 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 인디안 왐파노아그 족의 집 내부모습

그러나 그들이 죽기 전에 살았던 모습을 인디언 원주민의 마을 터는 잘 복원해 두웠다.
우리 일행은 왐파노아그 족의 오두막 집을 몇군데 들어가 구경해 보았다. 집안 바닥은 대부분 단단하게 고른 흙바닥이었고, 원두막 지붕 꼭대기는 우산 둘래 크기의 원형으로 뻥 뚫여 있었다.
그런데 그 구멍은 집안을 밝게 하는 채광 역할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집안에서 생긴 연기가 잘 배출되도록 고려하여 그렇게 지은 유리없는 천정 창문 쯤으로 보였다.
그러나 아마도 비 오는 날이나 차가운 바람이 세게 부는 겨울철에는 비와 추위를 막기 위해서, 참나무 껍질이나 갈대 이엉으로 그 구멍을 덮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왐파노아그 족들을 대신하여 대역으로 나온 대역자 후손들은 농작물 재배, 고기잡이, 짐승사냥, 약초채집, 식용 열매 과일 채취, 갈대 멍석 만들기, 요리하기, 게임놀이 등 당시의 모습대로 일부나마 재현, 아니 연기를 보여 주기도 했다.

17세기 영국인 청교도 정착촌 - 플리머스 플랜테이션 (Plimoth Plantation)

우리 일행은 왐파노아그 인디안 원주민의 옛 마을을 구경하고 인근에 복원되어 있는 17세기 영국인 정착촌인 이른바 <플리머스 플랜테이션/ Plimoth Plantation>으로 들어 갔다.
그런데 미북동부 지역인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플리머스가 맨 처음 영국 정착민이 와서 식민지 마을을 만든 곳이다.

그런데 이 정착촌을 왜 프랜테이션(Plantation)이라고 지명 이름 끝에 붙였을까? 영어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플랜트(Plant)라는 영어

▲ 17세기 영국인 정착촌 모습

단어는 <식물 또는 나물을 심다>는 뜻으로 다가온다. 명사와 동사로 함께 쓰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명사인 프랜테이션(plantation)은 혹시 나무 심기 또는 식목(植木)과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생뚱맞게도 종교탄압을 받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수만리의 바닷길을 헤쳐서 낯설고 물설은 아메리카 인디안의 땅까지 왔는데, 그들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 온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더구나 그 당시 플리머스 지역에는 나무 숲이 너무나 울창했을 터인데, 그러면 왜 플리머스 뒤에 플랜테이션(plantation)을 붙였을까? 원래 이 플랜테이션은 식민지시대의 경제적 용어로도 쓰였다. 산업화 시대가 대면서 대량의 종이 생산과 건축용 목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때가 있었다. 아열대 지방에 있는 밀림지역의 야생 나무에서 이를 충당하기에는 비경제적 요소가 많았다 한다.
그래서 잡목이 섞인 밀림지대를 아얘 깨끗이 벌채를 하거나 개간을 하여 질 좋은 나무를 심어 육림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었다.

그래서 이런 대농장 형태로 특수 식물을 재배하거나 육림하는 산업을 플랜테이션 산업이라고 했다.
영국과 네델란드는 특히 16세기 말과 17세기에 남아시아 지역에 플랜테이션 산업에 서로 경쟁을 하였다. 후추, 계피, 오일 팜 등 향료 식물은 야생상태에서 원료를 채취하는 것보다도 대농토에 좋은 품종을 골라 심어서 대량으로 재배하고 생산하는 것이 더욱 이익이 남는 산업이었다.
또한 목화 담배 커피 고무나무 사탕수수 등도 마친가지였다. 야생에 있는 작물들을 새로 개간된 농토를 만들어 다량으로 재배하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당시 식민지 시대에는 크게 유행했던 산업이었다. 아메리카 대륙도 마찬가기였다. 담배 목화는 플랜테이션 산업이었다. 그래서 이처럼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농작물을 대량으로 심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대규모 농장을 <플랜테션이>이라고 말한다.
요즈음까지도 하와이에서는 바나나 또는 사탕수수 대농장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한다.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는 일종의 플랜테이션의 기지였던 것이다.
이런 플랜테이션 산업 뒤에는 흔히 큰 이윤을 노리는 자본가들이나 또는 주식회사가 있었다.

사실상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임대하고, 개척민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플랜테이션을 만들고 담배나 사탕수수 목화 등을 대량으로 심어서 싼 원료를 영국에 보내면 이를 가공해서 상품화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었다.
사실상 메이플라워를 탔던 청교도들과 일부 이방인들도 일단은 수속비용과 탑승료는 외상이었으며 향후 플랜테이션에서 노동이나 생산물로 대가를 갚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호를 대서양에 띄워서 아메리카로 보낸 비용을 모두 감당했던 것은 플리머스 주식회사였다.
이런 주식회사는 1～2년 단기간에 이익을 기대하지 않았다. 나무를 플랜테이션에 심어서 재배하는 데는 20여년이나 한 세대를 기달려야

좋은 목재를 얻을 수 있듯이 이런 주식회사들로 개척민들을 신세계인 아메리카에 보낼 때에는 그들을 아메리카에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그들이 정착될 때까지 심어놓고 기달리는 장기적 계획으로 보냈다.

말하지면 메이플라워호를 아메리카에 보내는 일은 플리머스에 사람을 심는 사업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람을 심는 땅이란 뜻인 "식민지"로 보냈던 것이다.
플리머스에 플랜테이션에 102명의 사람을 심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대서양에 띄워서 아메리카에 보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이 정착지를 왜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이라고 불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다소 풀리게 된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17세기에 모습으로 복원된 정착촌 안의 중앙대로를 들어 선다.
정착촌에는 30여채가 안되어 보이는 작은 마을을 나무 울타리가 다

이야몬드 형으로 애워 싸고 있었다.
우리나라 농촌 마을이나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부락처럽 보여서 그 규모가 작은 데에 처음에는 나는 당황스럽고 다소 민망스러웠다.
플리머스라는 지명에 대농장을 뜻하는 <프랜테이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규모가 작을 수가! 이름 값을 못하고 있네!
그러나 이 식민지 정착촌은 1623년의 모습을 고증을 통해서 복원시켰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야 이해가 금새 갔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곳에 왔을 때가 1620년 겨울이었으니까, 그것도 102명의 청교도와 일부 이방인이 첫 겨울을 다 보내기도 전에 절반이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혹한에 못이겨 죽었다고 하나 살아 남은 자들 50여명이 정착하기 위해서 집들을 지었으니 30여채도 많은 편이 아닌가!
아, 그래서 인디안 옛 마을 터에서 이곳으로 안내하는 길로 접해 들어오자 마자 안내판에 <17세기 영국인 마을/ The 17 Century English Village>이라는 안내판을 보았던 것이 생각났다.

당초 정착민들을 주선해서 보냈던 플리머스 주식회사에서는 장차 계획으로 이곳에 <산업 플랜테이션>을 만들어서 담배나 사탕수수 또는 목화 등을 대량을 재배하여 이 원료들을 영국으로 수입하여 이를 가공처리하여 상품으로 만들고, 이를 본국과 유럽 여러나라에 팔아서 이윤을 크게 남기려는 속셈을 가지고 그렇게 불리어 지기를 바랬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플리머스 플랜테이션>하면 광의로 해석하려고 한다. 17세기 영국인 정착촌, 왐파나오그 인디안 원시촌, 헨리 혼블로워 방문객센터, 공예품 전시관, 여기에다 복제된 메이플라워 2호가 있는 워터프론트 그리고 플리머스 록(Plymouth Rock)의 대리석 비각, 베리얼 힐 묘지, 플리머스 박물관까지 싸잡아서 부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은 당초의 플랜테션 꿈이 실현되기 전

에 이웃 메사추세츠 식민지에 합병을 당하여 그 꿈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다. 다만 이제는 빛 바랜 이름만 남아서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아무튼 <플랜테이션> 이라는 말 속에는 초기 자본주의가 요망했던 과대한 이윤 추구라는 욕심과 17세기 영국 당국의 영토확장이라는 식민지의 야무진 야망이 서려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지금처럼 차라리 살아있는 "미국 역사 초기의 역사 박물관"이라 소개받는 것이 더 큰 감흥을 준다.
현재에는 이렇게 자리 매김하면서 <플리머스 플랜테이션 정착촌>을 솔직히 관광객들이나 미국의 후세들에게 <17세기 영국인 마을>로 이해시키고, 이 마을 사람들이 지녔던 신앙의 자유, 모험심과 개척정신, 메이플라워 협약을 통한 민주주의 실천의지, 이웃 원주민과의 화해정신이 오늘날 미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선봉자로 만드는데 기초와 기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고 있다.

아무튼 현재의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은 플리머스 항구 가까이에 건설되어 초기 개척민들의 정착된 모습을 재현시켜 주는 곳이다.
그런대로 식민지 시대의 플리머스 풍경과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보

▲ 옆에서 보면 한글 <쇼>자처럼 보이는 정착촌 목조 하우스

여 준다. 대부분의 정착촌 집들은 두 칸짜리 목조건물들이다. 옆에서 보면 지붕과 벽 모습이 우리나라 한글을 <쇼>자와 비슷하게 보였다. 집집 마다에는 채전밭이 있었다. 문화해설가가 키친 가든(Kitchen garden)이라고 집안 뒷터를 가르키며 설명해 주었다.
나는 단박 어렸을 때에 고향집 부엌 앞에 있는 채전밭이 생각나서 쉽게 이해가 되었다. 채전밭에는 옥수수, 호박, 고추등 채소가 보였고 이름를 허브같은 약초도 보였다.
채전밭 주변과 앞 도보에는 흰 깃털과 검은 깃털 얼룩달룩한 여러 마리의 닭들이 방치되어 자유롭게 모이를 찾고 있었다.
아! 그렇지!
저 얼룩달룩한 닭이 바로 <플리머스>라고 내가 시골 고흥중학교에 다닐 때 농업 교과시간이 닭의 품종과 원산지를 배웠던 생각이 났다. 그 당시 농업 선생은 전남농대를 나온 권재선 선생이었다. 흔히 우리는 그 선생 뒷전에서는 <권팔이>선생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그는 농업 시험문제에 주관식으로 주로 출제를 했다.
가축의 종류와 원산지를 쓰라고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를 했었다. 닭의 종류에는 달걀을 1년에 280개나 생산하는 이태리가 원산지인 레그혼이 있고 육질이 많고 병에 강한 닭에는 미국이 원산지인 플리머스와 로드가 있다고 했다.
돼지에는 원산지가 영국인 요크셔와 버크셔가 있고, 소에는 우유를 다량 생산해 주는 네델란드가 원산지인 홀슈타인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아랍종"이라는 말은 원산지가 아라비아 반도라고 했다.

닭들을 한참 구경하다가 나는 미국이 원산지인 개량종 <플리머스>는 혹시 원산지가 미국 중에서도 이름 그대로 이곳 <플리머스>가 아닐까 싶어 문화해설사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는 애매하게 아마도(Maybe)라고 말했다가, 다시 분명한 것은 메사추세추가 원산지라고 했다. 그리고 그 닭의 종류 이름은 <플리머스 록>이라 했다.
메사추세츠에서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조상들이 맨 처음 밟았다는 돌을 <플리머스 록/Plymouth Rock)이라 불렀는데 그 바위가 유

명하니까 신품종인 닭에다가 그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정착촌에는 니예 반(Nye Barn)이라는 창고 겸 축사가 있었다. 이 축사에서는 양, 염소, 소, 닭 등의 가축을 개량하여 좋은 품종을 만들려고 육종(breeding)을 했던 곳이라 했다.
왜냐하면 특히 아메리카 토종인 닭들은 알도 적게 낳고 몸체도 적었다. 아마도 플리마스 정착민들이나 또는 플리머스에 살고 있던 후손들이 닭의 육종에 성공하여 자기네 지역을 자랑하려고 그 품종의 이름에 <플리머스 록>이라고 명명한 것은 아닐런지하는 생각도 해 본다. 그러고 보니 <로드>라고 하는 붉으스래한 깃털을 가진 닭은 플리마스 남쪽에 있는 <로드 아일랜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것도 문화해설사에게 물었더니 역시 대답은 아마도(Maybe)였다.

내가 중학교를 다니던 전남 고흥 지역에서는 토종인 조선닭은 달걀을 많이 낳지 않는다고 하여 대부분의 양계장이나 농가에서는 레그혼, 플리머스, 로드, 이 세기지 닭을 사육했다. 아마도 6.25 이후에 미군이나 미당국의 원조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 품종들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을까!

▲ 플리머스 록
(원산지: 메사추새츠)

▲ 로드 아일랜드 레드
(원산지: 미국 로드 아일랜드)

그런데 그 때 시골 사람들은 '레그혼'을 '내공'으로, '플리머스'는 '뿌리마수'로, '로드'는 '로도'로 불렀다.

나는 순간 그 시절에 들었던 한 에피소드가 생각났다.
1950년대 어느 장날 농가에서 레그혼 닭을 키우며 달걀을 모아 바구니에 가득 담고 머리에 이고, 달걀을 팔려고 고흥읍 장터로 오는 한 농촌 아줌마가 있었다. 그 아줌마는 장터로 가는 길에 읍 시가지를 지나면서 달걀 하나라도 더 빨리 팔고 집에 가려고 이렇게 외치고 지나갔다.

"내공알 사주시요! 언릉 내공알 사주시요!"
이 말을 듣고 장난기가 동한 한 가게집 남자 주인이 이렇게 물었다.
"그 공알 얼마요?"
"30환이요!" (당시 화폐는 단위가 환)
"당신 공알이 그렇게 싸부요?"
하고 낄낄 웃으니까 그 때서야 그 농가 아줌마는 그 말이 너무 심한 농담인 것을 알아 차리거 이런 욕을 던지고 장터로 도망쳤다고 한다
"빙하고 자빠졌네! 이녁 붕알이나 잘 파시오. 내 거시기가 아니고 내 공알이랑깨! 염뱅하고 내 거시기로 요상하게 알아들어뿌네 이잉"

고흥에서 붕알은 남자 거시기를, 공알은 여자의 거시기(?)를 지칭하는 사투리였다. 지금 같으면 그 농가 아줌마는 그 남자를 성희롱으로 몰아 세워 미투(Me too)운동에 까발릴 사건이 될 수도 있었다.

지금 플리머스에 와서 플리스마스 록이라는 닭으로 보고 있으니까 <레그혼 알>을 촌 아줌마가 <내공알>로 알아 듣고 배워서 그런 에페소드가 생겼던 일이 생각나서 괜히 나 혼자 속으로 웃음을 죽였다.
우리 일행은 닭 구경에서 눈을 돌려 정착촌 집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두 칸 짜리 규모의 집이었다. 집 문 쪽 한 칸은 부엌 겸 주방이었고, 그 뒷 칸은 침실이었다. 침실에는 나무로 만든 간단한 침상이 있었고 침상 주위에는 천으로 된 휘장이 커틴 구실을 하고 있었다.

▲ 붉은 휘장 커틴을 친 침상(프라이버시 보호)

아마도 침실 한 칸에서 휘장을 치고 자녀들과 함께 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모의 프라이버시를 이 붉은 휘장이 옛날 그 시절에 보호해 주었노라고 뽐내는 것처럼 보였다.

부엌 칸에는 중앙에 화로 터가 있고 그곳에서 땔감을 피워 냄비나 솥을 화로터 위에 가로 지르고 있는, 걸어서 음식을 요리하고 있었다. 살림살이 가구로 식탁, 의자, 옷장 등도 있고, 부엌 벽에는 식기류 냄비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우리나라 1960년대 농촌의 부엌 살림보다 좀 낫게 보였다.
도로변에 있는 집들은 문이 모두 개방돼있고, 집안에는 17세기 영국 사람들이 입었던 복장을 그대로 한 대역들이 실감나게 살림살이하는 모습을 연기로 보여 주었다.
집안이나 텃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앞서 인디안 촌에서 처럼일정한 기간 대역 교육을 받고 1620년대에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역할 분담을 해서 연기를 한다고 했다.

자기들은 17세기 플리머스 정착촌에 살았던 사람들의 롤 플레이어(roll player)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그들은 플리머스 개척시절처럼 실제 당시의 주민처럼 행동하고 질문에 그렇게 응답해 주었다.
그들은 개척시대에 겪었던 생활 이야기를 당시에 실제 겼었던 사람들 이상으로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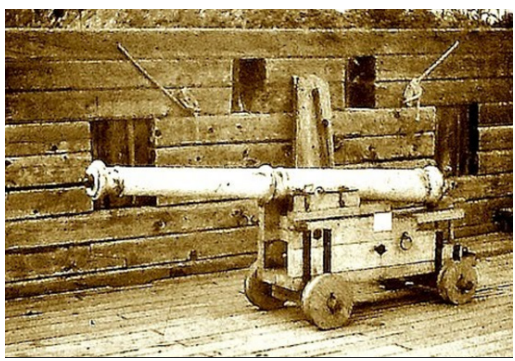
▲ 1620년대 정착촌 주민들 역활을 하는 연기하는 지역 주민들

그들은 각자가 맡은 특별한 이야기를 말해주었고, 일부는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실명으로 자기를 소개했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이야기를 그 당시의 입장에서 실감나게 말해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타임머신을 타고 400년 전의 과거로 되돌아간 것같은 착각과 환상에 사로잡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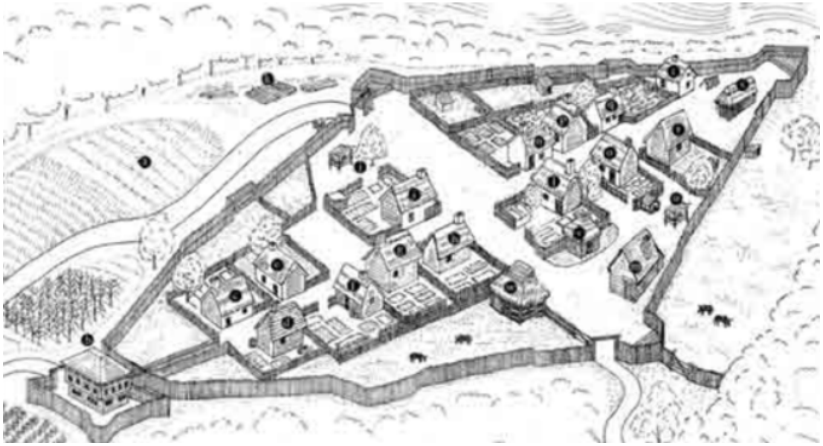
개척초기에 겪었던 배고품, 추위, 아는 사림들이 죽아가는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리얼하게 연기를 하기도 했다.
그들의 신앙심, 개척정신, 자연과의 투쟁, 모험담을 듣고 있노라면 존경심마저 솟아났다.
이러한 롤 플레이는 이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의 이이디어를 내고, 실제 복원사업을 주도했던 헨리 혼블로어의 계획대로라고 했다.
이처럼 자연역사 박물관을 통하여 관광객들이나 현재의 미국인들이나 후손들에게 17세기에 개척 이민을 왔던 필그림 선조들을 꿈과 정신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 정착촌의 맨 윗쪽에는 2층 규모의 큰 집이 있었다. 그 집은 맨 처음 건축한 공동 하우스였다고 한다. 처음에 여기에서 모두가 합숙을 했고, 차자 여러 체의 개인 주택을 지어 나갔다고 한다.
개인 주택을 다 짓고 나서 이 큰집은 주일에는 교회로 사용되었고, 마을 문제가 있을 때는 일종의 마을 회관으로, 그리고 혹시도 모를 이웃 인디안들이 습격을 해 오면 마을 방위용 요새로 사용했다고 한다.
실제, 2층에는 6대의 대포가 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포는 정착촌 대로를 향하여 플리머스 항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을 전체가 한 눈에 들어 왔다. 바로 이곳 이층은 외부 적이나 인디안들이 접근해 올 경우에 경계와 감시용 망대의 구실도 했다.


▲ 플리머스 정착촌 공동하우스(대포 6대 거치)

그리고 2층에서 대포를 쏘았을 때에 오발탄이 마을에 떨아질 경우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마을 중앙에 대로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였다.

큰집 2층에서 바라보니 정착촌은 앞서 말한 대로 나무 울타리가 다이야먼드 모양으로 마을을 성벽처럼 삥 둘러싸며 보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울타리에는 아래 정착촌의 그림처럼 전면과 좌우에 3개의



▲ 17세기 영국인 정착촌의 모습을 그린 그림

출입문이 있어서 마을 밖 농사일이니, 공격을 받아 피난시에는 급히 출입이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만든 것으로 보였다.

위의 그림은 1623년 때의 정착촌 모습을 훗날에 누군가가 상상하여 그린 그림이다.
아마도 그 해에 이곳을 방문했다는 엠마누엘 알담(Emmanuel Altham)이 그 당시 기록해 둔 정황을 읽고, 누군가가 참고하여 그린 모양이다. 그는 당시의 정착촌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정착촌은 해변가 가까운 곳에 있는 약간 높은 언덕 위에 잘 자리잡고 있다. 가만히 보니 정착촌에는 약 20여채의 집들이 있다. 그 중 4~5채는 제법 폼나게 지어진 집들이다. 나머지는 앞으로 더 손질을 하면

좋은 집들이 될 것이다. 이 정착촌 가운데는 제법 큰 도로가 만들어져 있다. 도로 맨 윗쪽 언덕에는 요새를 방불케 하는 2층으로 된 큰 집이 있다. 그 집안에는 여섯 대의 대포가 거치되어 있다.
정착촌 둘래에는 나무기둥과 판자로 된 울타리 벽이 둘러처져 있다. 그리고 그 울타리에는 3개의 문이 있어 외부와의 통로가 되고 있다."

정착촌을 이것 저것 구경하며 돌다보니 벌써 두 시간 정도가 흘러 갔다. 정착촌을 되돌아 나오는 게이트에 있는 안내하던 문화해설원이 플리머스 항구의 해변가에 있는 플리머스 바윗돌(Plymouth Rock)을 꼭 보고 가라고 한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스쿨 스트리트를 나와 해변가를 차를 향하니 라이덴 거리가 나오고 곧 큰 도로인 메인 거리가 나온다.
오른 쪽에는 해변이 보이고 차창으로 차도와 해변 사이에는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정원의 나무들이 뒷 배경을 한 푸른 바다와 앙상불을 이루며 나무 사이사이에 보이는 하얀 배들의 지나가는 모습이
한폭의 영화 장면처럼 보인다.
사위인 제이닥이 차를 최대한 저속으로 드라브를 하며 파킹 장소를 물색하는 동안 우리는 그저 "아~~멋있다!" 하는 경탄을 연발하며 플리머스 해안 정경을 즐긴다.
주차장 스페이스를 찾아서 시동을 끄자 우리는 해안가가 보이는 정원으로 내렸다.
바로 100미터 전방에 있는 차도와 해안 정원의 경계선 지점에 왠 그리스의 작은 신전을 연상케 하는 하얀 돌기등이 작은 지붕을 사방으로 받치며 서 있는 건축물이 보였다.
그 건축물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내부가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을만큼 웅성웅성하며 서너 겹으로 둘러 싸고 안쪽을 보고 있다.
"아~!그렇지! 저게 바로 그 유명한 전설적인 바위돌, 플리머스 록(Plymouth Rock)일꺼야~!"
나의 예측은 들어 맞았다. 바로 플리머스 록이였다. 작은 신전 같은, 아니 우리나라 비각같은 건축물 속에는 지하로 1층 깊이로 빵 뚫여서

바다 모래 바닥까지 드러내 보이는 곳에 지하 공간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모래 공간 가운데는 달걀 모양의 타원형인 바윗돌이 모래에 하반신이 묻은 채 상반신만 누드로 노출시키고 있었다.
두 동강이 났는지 시멘트로 붙여 놓은 흔적이 미치 제왕절개 수술을 한 여인의 하복부에 수술하고 난 뒤에 꿰맨 흔적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수술했던 해를 표시한 것처럼 누군가가 1620이라는 숫자를 새겨 두웠다.
알고보니 이 돌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이곳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상륙할 때 디딤돌처럼 밟았다는 기념비적인 돌~~! 바로 그 유명한 <플리머스 바위>였다.
숫자 1620은 바로 그 바윗돌을 처음으로 밟았던 던 해를 묘비에 새겨 놓았다. 마치 비석에 갈명처럼 기념비적인 의미를 표상하고 있었다.
이 돌을 영어로는 플리머스 록(Plymouth Rock) 라고 하는데, 록(Rock)은 일반적으로 바위나 돌맹이를 말한다. 그러나 이 바윗돌은 파도에 깍기어서 사실상 면이 반질반질한 사실상 미끄러운 몽돌바위(boulder)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몽돌바위를 뜻히는 보울더(Boukder) 보다 자주 사용되는 록(Rock)을 붙여 그저 플리머스 록(Plymouth Rock)으로 부른다고 한다.

▲1620년 메이플라워 청교도들이 상륙할 때 밟았다는 디딤돌 플리머스 록

▲ 플리머스 록의 비각

그런데 이 돌이 정말로. 그 당시에 처음으로 밟았던 "진짜 돌바위냐"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며 말들이 많은 모양이다.

플리머스의 락(바윗돌)이 미국 역시의 시작을 알리는 신비스러운 바윗돌처럼 생각되어 몇가지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설같은 스토리가 있어 이왕이면 실감있게 나는 이렇게 반쯤 장난삼아 대화체로 엮어 정리해 본다.

때는 1741년이었다. 플리머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직 접안 시설이 잘 되지 있지 않은 플리머스 항구에 여러 배가 쉽게 접안하고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새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
이제 곧 건설공사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플리머스 교회의 장로인 토마스 파운스(Thomas Faunce)로부터 긴급 청원이 들어 왔다.
부두 공사를 하게되면 121년 전에 선조들이 메이플라워호에서 상륙할 때 디딤돌로 밟았던 바윗돌이 공사로 인해서 묻히거나 훼손이 될 수 있으니 공사 시작하기 전에 역사적인 그 바위와 작별을 고하는 특

별 예배를 보게 해달라고 청원을 해 왔다. 그래서 부두 건설공사를 맡은 한 간부가 그 장로를 찾아가 그 이유를 물었다.

"장로님, 왜 그 돌이 그렇게 중요하나요? 그리고 선조들이 밟고 이곳에 들어 왔다는 어떤 증거가 있나요. 우리는 금시초문입니다"
이렇게 의아해 하며 물었더니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해 주었다.

"여보시오 젊은이. 나는 지금 나이는 94세지만 기억력 하나는 좋소이다. 암튼 부두 작업을 잠시 중단하시오. 나는 토마스 파운스라고 하는 교회 장로요. 지금 당신네들이 새로 부두 공사를 한다는데, 지금 그 부두 자리에 큰 암석이 하나 있소. 그 암석은 지금부터 121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그 부두에 왔을 때 그 바위를 디딤돌로 밟고 상륙을 했단 말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념물이 되는 바위인데 그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무심하게 묻혀버린다면 쓰겠소?"
"그럼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난 울 아부지한테 들었소. 어렸을 적에 부두 뒷산에 올라 가 있을 때 우리 아부지께서 그 바위를 가르키며 그런 얘기를 해 주었단말아요. 그리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온 선조들의 후손들이 7~8명이 지금도 살아 있는데, 그 분들도 역시 그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해 주었소이다"
"그런데 혹시 장로님 부친도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오신 분인가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그 배 보다 2년 후인 1623년에 여기에 왔소. 그렇지만 그 때 먼저 오신 분들이 바닷가에 나오면 그 바위를 보고 첫 디딤돌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주어서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난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에게 그 바위를 자랑스러워 하며 함께 그 위에서 놀곤 했지요"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바위를 어떻게 하면 좋지요? 새로 부두를 만들려면 바로 그 위에다 부두를 만들 계획인데요?"
"좋소! 마을 광장에다 옮겨 놓으면 기념물이 되어 좋겠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요, 그건 어려운 일이니까, 나는 장로이니까 조상과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또 그 바위와 영원히 작별을 했으면 하오, 파묻

히기 전에 작별 예배나 기도를 드릴 기회를 주시오“

이런 청원을 받고 공사 책임자는 공사를 앞둔 며칠 전에 노인을 그 바위가 있는 부둣가로 모셨다. 그리고 작별의 기도를 할 기회를 주었다. 교회에서는 특별 찬송단을 보내주었다. 그날 파운스 장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돌을 보존하지 못하고 묻히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간절하게 영원한 작별의 인사를 담은 기도를 하면서 그 바위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면서 땅에 묻혀 헤여지는 것을 애석해 했다. 파운스 장로가 기도를 끝내며 동참한 찬송단과 함깨 마지박으로 찬송가를 불렀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부두 공사에 참여한 일꾼들과 주민들은 크게 감동하여 이런 사실을 곧장 식민지 당국에 호소하였고, 그 바윗돌은 땅에 묻히지 않고 플리머스 타운 광장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인 <플리머스 록>의 전설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이 돌을 구경하기 위해서 플리머스를 찾아 오는 관광객이 백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현재 이 ‘플리머스 록’은 플리머스 해변가에 로마의 건축양식인 도리아식의 하얀 돌기둥 14개가 석조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카노피(Canopy) 스타일의 건축물 안에 잘 안치되어 있다. 이 카노피 스타일의 건축물은 역사적 인물이나 명문 가문의 조상들의 공적을 찬양하는 비석을 세우고 이 비석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을 짓는데, 우리는 그것을 비각이라고 한다. 이 카노피도 <플리머스 록>을 보호하고, 아울러 성스럽게 보이기 위한 건물이다.

카누피에 가까이 가보니 내부는 해수면 까지 지하 1층 깊이에 있는 빈 공간이고 바닥에 모래가 깔려 있고 그 모래 위에 바윗돌이 안치되어 있었다. 달걀 모양의 타원형인데 규모는 모래 속에 하반부 돌은 6

톤가량이 묻혀 있고 상반부에 보이는 돌은 4톤 정도의 무게가 나간다고 한다.
그런데 그 길이는 크게 보아서 약 2미터 쯤으로 보이는데, 이 돌은 화강암으로 파도에 깎여서 내 눈에는 큰 몽돌처럼 보였다. 그래서인지 미국인들도 이 바윗돌을 막연히 바위(rock)로 보지 않고 하나의 몽돌(boulder)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원래 이 바윗돌은 표면이 지금보다 더 반질반질했다는데, 18~19세기 경 구경꾼들 중 기념품 수집가들이 나타나, 정으로 또는 망치로 마구 조각을 내서 기념품으로 삼겠다고 너도나도 찍어내고 따내 갔기 때문에 표면이 지금처럼 저렇게 약간 울퉁불퉁 매끄럽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플리머스 협회에서는 돈을 주고 쪼각 돌도 사들여 박물관에서 역설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플리머스 록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원래 크기 보다 반 쯤 작다고 한다.

이제 그 우여곡절의 사연을 들어보니 다음과 같다.
1620년에 플리머스에 온 개척자들이 상륙 당시 처음 밟은 디딤돌이 플리머스 록이다. 이 돌은 그동안 구전으로 전해왔었다. 그것도, 121년이 지난 1741년에 한 노인이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노라고 주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플리머스 록(Plymouth rock)이 문자로 인쇄되어 알려지게 된 것은 1774년부터이다.
이 때는 플리머스 식민지에서도 영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자는 운동이 일기 시작하던 때였다. 플리머스 주민들은 타지역에 비해서 신앙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한 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플리머스 바윗돌>이 바로 자신들의 독립정신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상징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바위를 자유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플리머스 타운의 광장으로 옮기고자고 했다.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과 멍에를 쓴 숫소 20

마리가 동원되어 바닷가 모래에 푹 박힌 바위를 파내서 도로 위 로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무려 20 마리의 숫소들이 동원되어 이용되었다. 그리고 그 바위를 큰 수레에 싣고 광장으로 옮겼다.
그런 과정에서 그 바위를 바닷가에서 끌어내다가 쪼개져서 상반부인 반토막만 올려졌다. 그리고 겨우 끌어 올렸던 그 반쪽도 운반 도중에 또 두 개로 깨졌다. 결국 본래의 크기에서 30퍼센트 정도의 돌로 작아진 채 타운 광장에 전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부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애국자들은 바위가 깨진 것은 영국이 쪼개진다는 것으로, 앞으로 미국이 독립이 된다는 길조의 징조라고 하면서 모두가 좋게 생각하였다.

당시 미국의 독립을 원하하고 있던 지역 애국자들은 이런 미신이라도 스스로에게 확신시켜 대영 투쟁심을 길러주는 상징물로써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라고 쓴 깃발을 나부끼며, 플리머스 타운 광장에 있는 <자유 국기대> 앞에 옮겨서 전시를 한 것이다.
그런데 광장에 전시된 바윗돌은 미국 독립을 원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 있는 돌이라는 카더라식 뉴스가 인근에 퍼저 나갔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유명세를 타면 기념품으로 수집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광장에 전시된 돌에서 일부 조그마한 조각이라도 쪼아내 가져가려고 망치나 끌 등을 가지고 와서 훼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필그림 협회가 주관하여 1834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이 바윗돌은 아예 <필그림 홀 박물관> 안으로 다시 옮겼다. 그리고 그것도 못 믿어워 그 바윗돌 주변에 철책을 세워 부당한 훼손을 막아냈다.

아무튼 이 바윗돌은 미국이 독립을 선언 하기 전까지는 구전으로만 알려지고 있었는데 1834년부터는 종이에 인쇄가 되어 <플리머스 록>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전역에 알려지고 인식되기 시작했다.
1859년에는 <필그림 홀 박물관>에 안치된 <플리머스 록>을 역사적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서 하반부 돌이 이직 남아 있는 원래의 자리인

워터 프론트로 다시 옮겼다. 그리고 그 때에 두 동강이 된 바윗돌들을 세멘트로 붙여서 합체하여 놓았다. 그리고 바윗돌 위에 로마의 신전처럼 멋진 도리아식 하얀 돌기둥을 전면과 후면에 각각 5개, 측면에 각각 2개씩 총 14개를 세우고, 그 위에 하얀 돌 지붕을 씌워서 마치 그리스의 신전을 방불케 하는 카노피(Canopy) 형태의 성소(聖所)가 만들어 졌다. 그리고 그 안에 플리머스 록이 성석(聖石)처럼 대접을 받으며 잘 안치되었다.

▲ 플리머스 락 카노피와 한국 비각 비교 사진

카노피란 우리나라에서는 비석(碑石)을 보호라기 위해서 지은 집을 비각(碑閣)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플리머스 락은 한국판 비각(碑閣) 속에서 성석(聖石)의 대접을 받게 된 것이다.

스노피에 가까히 접근해서 안을 들여다 보니 1880년에 플리머스 락 표면에 파 새겼다는 1620이란 숫자가 별나게 내눈에 쑥 들어왔다.
이는 1620년 전의 첫 상륙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표시였다.
1920년에는 이 돌이 첫 디딤돌이 된지 300주년이어서 일대 연안을 일대 개보수 공사를 했다.
옛부두는 철거되었고 워터프론트도 재설계하여 연안 일대의 해안선이 새롭게 건설되고 단장되었다.

그 공사를 위해서 플리머스 락도 잠시 위치를 인근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공사가 끝난 뒤에 다시 제 자리에 안치되었다. 이 때 새 카누피가 더 크게 재 건축되었다.

▲ 플리머스 바윗돌 카노피(canopy) 측면 모습

플리머스 락! 첫 디딤돌로서 역사적 기록의 팩트가 있건 없건 간에 미국인에게는 초기 개척민들의 신앙의 자유, 개척정신, 이웃과의 화합을 상징하는 역사적 상징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일행은 플리머스 카노피가 측면으로 마주 보이는 해변가 잔디 위에 비닐로 된 멍석을 깔고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아름들이 큰 나무가 초 가을의 따가운 양광을 파라솔처럼 막아 주어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 동안 푹 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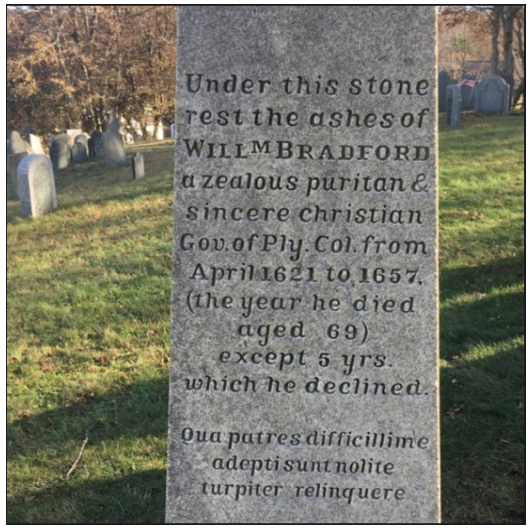
집 시람과 딸은 양팔 두 다리를 자유롭게 펴고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맞으며 그림자가 드리워진 녹색 잔디 위에 그 대로 큰 대자(大)를 쓰고 누워서 오수를 즐기기도 했다.
옥색 하늘에는 흰구름이 몇 조각 떠 있었다. 우리 일행이 쉬고 있는 워터프론트 부두에는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복제된 메이플라워 2호의 전시장이 있었는데 그 배를 구경을 못 해서 아쉬웠다.
2020년 메이플라워가 이 항구를 도착한지 400주년이 되는 해라 그 행사를 위해서 다시 배를 해체하여 재복원하고 새로 단장하여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앞서 말했듯이 지금은 미스틱 씨포트 조선소에 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일행이 낮잠을 즐기는 동안 일단 풍광이 아름다운 플리머스 항구와 플리머스 만에 정박해 있는 수 많은 보트들과 또 들락날락 하는 여러 하얀 선박들이 이동하면서 어울려 자아내는 모습을 감상하면서, 언젠가 임신중인 둘째 딸의 <까칠이>가 태어나서 제대로 철이 들었을 때 다시 나랑 이곳에 함께 여행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아마도 15년 쯤 후의 일일 것이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라고?
그 때까지 살아있으려나? 그 때 내 나이는 90대 초반이어서 함께 손녀와 여행을 할 수 있을지는 영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 때에 내 첫 손녀인 <까칠이>가 성장해서 이 글을 읽어 주었으면 하고 이 글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려는 심정으로 작은 수첩 노트에 미주알고주알 글을 써대고 있다.

이제 메모도 끝나고 아마존 온라인 쇼핑 몰을 통해서 구매해 온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쓴《플리머스 플랜테이션의 역사》책을 핸드캐리 가방에서 꺼내어 어려운 단어는 지나가고 대충대충 읽어본다.

17세기인 1620년에 이곳에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와서 겪어야 했던 초기 영국 개척자들의 고난의 행진을 역역히 기록한 것을 현지에 와서 읽으니 감개가 무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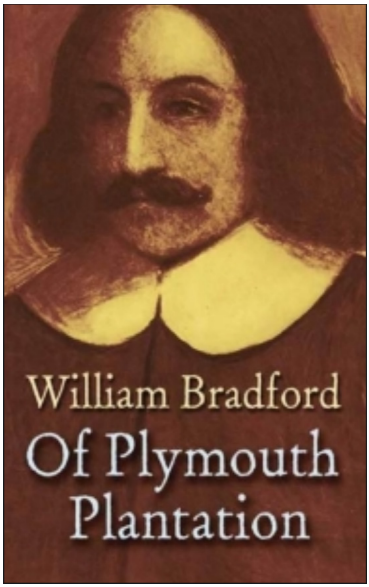
아! 차제에 마지막 여행 코스로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묘가 있다는 베리얼 힐 묘지를 둘러보고 가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당시 플리머스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William Bradford)! 만약 그가 당시의 정착촌 생활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오기까지의 경위를 소상히 기록해 두지 않았다면 미국의 초기 역사는 깜깜이 역사였을 것이다.

이어서, 인근에 있는 베리얼 힐 묘지(Burial Hill Cemetery)로 갔다. 이 묘지 자리에는 원래 정착촌이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일행이 구경했던 <17세기 영국인 정착촌>은 1957년에 헨리 혼블로러(Henry Hornblower)가 복원시켜 놓은 <야외 역사 박물관용 정착촌>이었다.
스쿨 스트리트로 들어서자 <베리얼 힐 묘지>가 금새 나왔다.
묘지 좌우는 좌청룡 우백호 식으로 양 언덕이 둘러싸인 나무 숲 속에서 원형의 넓은 잔디 위에 명당의 분위기를 풍기며 수 많은 묘석들이 여기저기 서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서 있었다.
이 묘석 저 묘석 둘러보다가 드디어 정착촌의 지도자였으며, 플리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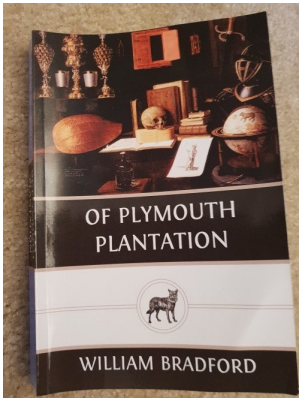
▲ 베리얼 힐 묘지에 있는 윌리엄 브래드포드 묘지석

스 지사를 다년간 역임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묘지를 찾아냈다. 그 묘지의 묘석은 9월 초 초가을의 석양을 받아 동쪽으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며 황혼녘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묘석에는 "열성적인 청교도였으며 신실했던 기독교 신자로 1621년 4월부터 1657년까지, 플리머스 지사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휴식하고 있다"



▲ 윌리엄 브래드포드와 그의 저서《Of Plymouth Pla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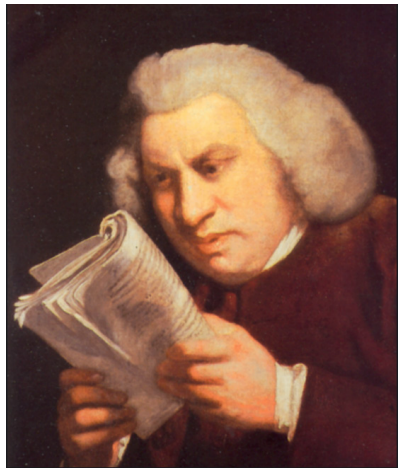
그렇다면, 윌리엄 브래드포드(1590~1657)는 과연 누구인가? 인터넷에서 플리머스 정착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대부분 그가 쓴 책을 근거로 설명을 하거나 근거를 댈 때 흔히 그의 이름과 저서인《Of the Plymouth Plantation》이 언급되었다. 그래서 차제에 그가 쓴 책을 2주간 읽고 있는 중이다.



▲ 윌리엄 브래드포드 저서

이 책은 17세기, 사실상 중세 영어로 쓰여져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읽으면 혼란스러운 철자법 때문에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여기저기 많았다.
예를 들자면 here(여기)를 hear로, indian(인디안)을 indean으로, you(너)를 ye로, hot(덥다)를 hott로, two(2)를 tow로, do(하다)를 doe로, peace(평화)를 peece로, small(작은)을 smale로, heart(심장)을 harte로, angry(화가난)을 angrie로~ 등

등 이었다.
영어는, 사무엘 존슨 박사(Dr, Samuel Johnson)가 1755년에 '영어사전'을 편찬, 발간되기 전이라서 특히 각 단어에 대한 철자는 물론, 같은 뜻의 단어라도 사람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사용 되고 있었다.


▲ Dr, Samuel Johnson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존슨 박사가 사전을 만들어 놓은 후에는 비로서 영어단어의 철자에 대한 논란이 크게 줄어 들었다. 서로가 자기가 애용하는 단어가 표준어라고 주장했다가 존슨박사의 사전을 들이대면, 그때서야 진짜 표준어가 판가름이 났다.
이처럼 모두가 정확한 철자는 존슨박사의 사전을 의존하여 이를 표준어로 삼았다.

그런데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1651년에 그 책을 다 썼을 때에는 존슨박사의 사전이 나오기 전인 약 100년 전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도 헷갈리는 단어는 주로 '셰익스피어'나 '밀톤'이 쓴 단어를 표준으로 하여 많이 썼다고 했다.
아무튼 나는 그가 쓴 책인《플리머스 플랜테이션의 역사》를 참고로 하여 그간 정리되었던 생각들을 써서 나의 손녀인 <까칠이>가 혹 미국에서 성장하거나 공부를 할 때 한글도 배우고, 아니면 한글 배우기용으로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좀 더 써 보려고 한다.

윌리엄 브래드포드(William Bradford)는 영국 요크셔 출신이다.

그는 큰 농장을 소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런데 한 살 때 부친이 사망했다. 설상가상으로 4세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였다.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외할아버지가 양육을 맡았다. 그런데 6세 때 외할아버지 마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되자 재혼을 했던 어머니가 다시 양육을 맡아 계부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데 1년후에 어머니마저 병사했다. 그야말로 그는 천애고아가 되고 말았다.
그때부터 삼촌이 양육을 맡았지만, 성격이 고약한 삼촌은 인정머리 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조카인 윌리엄을 혹독하게 일을 시켰다. 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윌리엄은 중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제는 삼촌이 일을 시켜도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와중 속에서도 독서에 열중했다. 성경은 매일 읽었고 그리스나 로마의 고전 책들도 수 없이 많이 읽었다. 그는 지적 호기심이 남달리 컸기 때문이다.

그는 12세였을 때 리챠드 클립톤(Richard Clifton)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16km나 떨어진 교회를 다녔다. 그 목사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관행을 비난하고 영국 국교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앞장 선 청교도 목사였다. 그래서 그도 어려서부터 청교도 어린이가 되었다. 당시 영국은 제임스 1세 왕이 청교도를 박해하며 통치를 하던 때였다.

한편 같은 청교도였던 존 로빈슨(John Robinson) 목사의 설교에도 귀를 기울렸다. 존 목사는 "영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며,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윌리엄 소년은 크게 감동했다.
존 로빈슨은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목사였다. 그는 스쿠루비(scrooby) 마을에 있는 자신의 집에 매일 50여명의 교인을 모아놓고, 카톨릭식의 절차를 무시하고 칼빈주의를 받아들인, 개혁된 간략한 방식으로 비밀예배를 올렸다. 윌리엄도 항상 그 회중 속에 있었다.
그런데 1607년에 비밀 교회가 탄로가 났다. 스쿠루비 마을 집회에 참석한 다수의 교인들이 체포되거나 투옥을 당하여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다행히 붙잡히지 않았던 교인이나 구속에서 풀린 교인들

은 합세하여 아예 조국인 영국을 탈출하여 네델란드로 종교적 망명을 계획했다. 이 계획에 물론 윌리엄도 참여했다.

당시 네델란드는 종교개혁이 된 개신교 국가여서 비교적 종교적 자유가 허용된 곳이었다. 그러나 밀항을 약속한 선장이 변심하여 출항일에 당국에 밀고를 해버렸다. 그래서 일단은 모두가 구속되었다가 풀려났지만, 다음 해인 1608년 8월에 다시 스크루비 청교도들은 소수로 나누어 탈출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탈출에 성공하여 네델란드의 암스텔담에 도착하였다. 이 때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나이가 16세였다.
그 다음해 4월 경에 소도시인 라이덴으로 옮겨서, 그곳에 있을 때 윌리엄은 브루스터(Brewster)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며 기거하였다. 그러나 그에게도 작은 희망이 생겼다. 1611년에 21세가 되었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영국에 두고 온 재산 소유권에 대한 판결에서 승소가 확정되어 큰 유산이 생겼다. 그래서 더부살이도 청산하고 이제는 집을 한 채 사서 자기 소유의 집에서 떳떳하게 생활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라이덴에서 면직물 공장을 차려서 제법 몫돈을 모으기도 했다. 게다가 암스텔담에서 어느 영국계 부자집의 딸인 도로시 메이(Dorothy May)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 때 그의 나이는 21세였다. 게다가 결혼 후 4년만에는 득남까지 했다. 그러나 이제는 네델란드를 떠나 신천지인 아메리카로 떠날 준비를 했다. 부인인 도로시는 약간 떨떠름한 표정으로 응했지만, 먼저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던 집을 매각 처분했다. 이때가 바로 메이플라워호를 탑승하기 1년 전인 1619년이었다.

네델란드로 이주 해 있던 영국인 교도들이 다시 아메리카로 개척 이민을 가기로 한 주된 이유는 종교의 자유와 고국에 대한 애향심이었다. 네델란드에 와서 종교의 자유는 비록 누리고 있었으나 늘 불안한 상태였다. 자기들이 떠나온 고향인 스크루비(Scrooby)에서는 1617년에 비밀집회가 탄로나 수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수배를 당하였다. 이

때 일부 집회 지도자들은 수배를 당하자 그들도 네델란드 라이덴으로 피신을 해 와 있었는데, 영국 당국에서 이곳에 밀정을 보내어 은밀히 체포해 가려고 한다는 소문이 횡행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완벽한 자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이 10여년 전에 영국 고향을 떠나왔는데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들 자녀들은 영어보다 현지어인 네델란드 말을 더 선호하고 신앙생활도 부모들 처럼 신실하게 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향에 대한 전통이나 문화적인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자기네 식으로 예배를 볼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기들을 두고 온 고향의 전통과 문화를 자녀들에게 계승시켜 나가기에 좋은 곳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곳이 신세계로 알려진 북 아메리카 지역이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새로운 영국,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이 중심이 된 '뉴 잉글랜드'(New England)를 만들어 잘 살아보자는 생각이 바로 메이플라워 배를 탑승하게 된 동기였다.

바로 그 때 영국 런던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회사를 만들어 신대륙인 아메리카에 이민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당시 영국 왕은 미국 동북부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고 이런 주식회사들에게 식민지를 허용하는 특허장을 발급하고 있었다.
당시 사실상 남 아메리카는 스페인이나 포르투칼이 자기네 식민지라고 영유권을 주장해 놓고 식민지 장사를 하던 때였다.
이에 비해 북 아메리카는 무주공산이어서 영국이 먼저 이곳에 눈을 돌렸다. 그리고 영국 왕실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식민지 개척이란 명분으로 땅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스패인과 포르투칼은 남미 지역에서 말만 식민지였지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살수 있는 정착촌을 개척하려 하지 않고, 현지에 있는 돈이 되는 금이나 은으로 된 물건을 사실상 약탈해 와서 자국과 유럽에 팔아서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거나 아니면 유럽상품을 싣고 가서 현지 원주민들에게 왕창 바가지를 씌워 비싸게 팔아서 이윤이 많은 장사

를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영국은 영토확장이란 한 수 높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국민을 이민을 보내서 아예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구히 정착시키려는 식민지 정책을 썼다.
그러면서도 통치하기에 골치를 아프게 하는 종교인들이나 범죄자들을 모두 몽땅 이민을 시켜버리고 좀 더 국내 통치를 편안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델란드에 와 있었던 청교들이 미개척지인 아메리카로 개척 이민를 가는 일은 누님도 좋고 매부도 좋고, 서로가 좋은 일이었다. 말하자면 요새 말로 윈윈(Win-win)사업이었다.

존 카버(John Carver)와 로버트 쿠시맨(Robert Cushman)이 앞장서서 3년간 교섭 끝에 1620년에 버지니아 지역의 일부 특정 지역에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는 특허장을 영국 왕으로부터 받았다.
당초 출항 계획은 네델란드 라이덴에서 청교도 가족 50여명을 태운 스피드웰(Speedwell)이라는 범선이 델프스헤븐(Delfshaven) 항구를 출발해서 영국 플리머스에 있는 메이플라워 범선과 합류하여 아메리카 버지니아 지역을 향하여 출항할 계획이었다.
특히 두 척의 배는 신세계인 북아메리카 버지니아 지역 중에서도, 허드슨 강의 입구에 있는 북쪽 지역을 식민지 대상지역으로 특허를 받았고 그곳으로 출항 계획이 잡혀있었다.
스피드웰 범선이 네델란드 라이덴을 떠날 때 일부 이산 가족도 생겼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다음 이민선에 오기로 했다. 그때까지 그들은 존 로빈슨 목사가 돌보기로 했다.

스피드웰이 떠나던 날 항구에는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아들 존도 병약해서 부모와 함께 떠날 수가 없었다.
장시간 대서양을 횡단하는 뱃길에는 건강이 우려되어 외조부에게 맡겨야만 했다.

라이덴에서 출항하던 그날, 세살인 어린 존은 "아빠, 엄마, 같이 갈래. 날 버리지 마세요", 하고 울부짖으며 작별을 서러워 했다.
부두에서 작별을 하던 사람들이나 배에 탑승한 사람들이나 모두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인 '도로시'는 눈물을 꾹 참고 이렇게 소리쳤다.
"오! 마이 베이비! 내 아들 죤아! 울면 안 돼! 하나님이 널 우리에게 곧 데리고 올꺼야!"
그런데 메이플라워호가 플리머스에 도착한 후에는 부인을 배에 두고 남편인 브래드포드가 탐색대원들과 먼저 상륙했었다.
막상 정착촌 자리를 탐색하고 배로 돌아 와 보니 부인이 사망했다는 비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인인 도로시는 암스텔담 대부호의 딸이어서 2달간의 고된 항해 중에 지쳐있었다. 더욱이 4살짜리 아들을 두고 온 죄책감에 괴로워 하였는데, 홀로 갑판에 나갔다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바다에 투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배에 있던 사람들은 갑판에서 갑자기 들이 닥친 파도에 휩싸여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애써 진상을 말하지 않았다. 모든 일을 꼼꼼하게 기록했던 브래드포드는 부인 사망 사건을 아무 말 없이 1620년 12월 7일 부인이 사망했다고 그저 단순히 기록하고 있어 더욱 후세 사람들에게 그런 추정을 하게 한다.

아무튼 브래드퍼드 부부는 아들과 이별을 하고 영국 플리머스 항에서 스피드웰 범선은 기다리고 있던 메이플라워 범선과 조우하였다. 드디어 두 배는 도로씨의 앞으로의 운명을 모른 채 신세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그런데 막상 출항하여 대서양을 향하는데 얼마 못 가서 <스피드웰> 범선에 고장이 생겼다. 이름 처럼 스피드가 쾌속이 아니라 더디 가는 굼뱅이 신세의 배가 되었다. 그리고 게다가 배에 물이 침수되기 시작해서 두 척의 배가 일단 회항을 해야만 했다. 그 배는 이름만 쾌속한다는 <스피드웰>이었지, 알고보니 더디 가는, 아니 고장난 <스피드배드.Speedbad>였다!

그러나 수리가 빨리 되지 못해서 메이플라워 단독으로 떠나기로 했다. 그래서 스피드웰에 탔던 사람들 모두 메이플라워 배로 옮겨탔다. 이 때문에 배안은 그야말로 초만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지 일부 탑승객 중에는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되는데, 청교도들이 이성을 잃고 너무 서둘렀다고 청교도가 아닌 일부 이방인들은 불평과 함께 후회도 쏟아냈다.
아마 이때 브래드포드의 부인인 도로시도 이 때 두고 온 아들 때문에 속으로 후회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청교도들인 탑승자들은 자기들 앞길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웠고 지금 자기들이 떠나는 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을 더욱 잘 믿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 성지인 신세계를 경유해야 하는 일종이 순례길로 생각했다.
특히 그들이 라이덴을 떠날 때 마지막 예배에서 로빈슨 목사가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말하며 떠나는 길에 축도를 해주었다.
아마도 이 축도에 감명을 받은 청교도들은 순례자와 같은 사명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빈슨 목사는 그 히브리서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메리카를 향하여 먼저 떠나는 청교도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기위해서 그들을 '필그림들'(Pilgrims: 순례자)로 비유하여 말하며, 용기를 갖고 떠나도록 축도를 해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신세계는 종교적으로 오염이 될 것이 없는 곳이므로 가나안 땅과 같이 신이 점지해준 성지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다.
만일 성지가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신앙공동체가 되어 굳은 믿음으로 성지를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일부 청교도는 순례길에 죽어도 곧장 천국이나 하나님께 직행으로 간다고 믿었다. 그래서 거친 파도도 두려울 게 없다고 믿었다. 아울러 순례길이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필히 계실거라 믿었다.
그리고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부패나 오염이 없는 순수한 순례자라고 자처하며 <일단 빨리 신세계로 떠나고 보자> 하며 서둘러 재촉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감성적 출발(emotional Departue) 준비라고 하면서 더 준비를 잘 하자는 측도 있었다.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보니 신세계를 향한 출항이 생각보다 훨씬 지연되었다.
일부 이방인들은 신세계를 포기했다. 따라서 런던의 상인들이 만든 <머천트 어드벤쳐>회사에서 50명을 다시 채우려고 애를 먹었다.
개척 이민자들은 청교도와 비청교도 합하여 총 수가 모두 102명이었고, 추가로 선원들의 숫자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약 30명 쯤으로 추정되어 결국, 총 탑승자는 130여명이었다.
이 탑승자 수는 선폭이 겨우 30미터 정도의 배에 무리였다. 메이플라워 범선의 수용능력을 볼 때 너무 초과된 탑승 인원이었다.

메이플라워호가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를 출항한 것은 1620년 9월 6일이었다. 배 안은 화물과 탑승자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만원이었다.
어쨌든 한 달 동안은 그런대로 순항했다. 그러나 두 달 째 접어 들면서 돌풍을 자주 만났다. 배는 돌풍에 휘청거렸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며 배 안으로 파도가 넘쳐 들어 왔다. 탑승자들 대부분이 파도에 흠뻑 옷이 젖었다. 상당수는 배멀리에 시달렸다.
이 때 고얀 젊은 선원이 멀미를 하며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고 못 참겠다는 듯이 욕설을 퍼 부었다.

"젠장! 앞으로 한달 더 가야하는데, 그렇게 못 견디면 되겠소? 하나님을 믿고 배를 탄 사람들이, 그렇게도 멀미를 참지 못하면,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일찍 죽는게 났겠소. 죽으면, 내가 수장을 책임질터이니 수고비나 듬뿍 많이주고~ 잘 가시요"
이런 못 된 소리를 듣자 일부 탑승자들은 그 선원을 보고 소리쳤다.
"이 나쁜 놈아!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다니! 오, 주여! 저 무례한 자를 벌하소서, 아멘!"
그런데 며칠 후 그 젊은 선원은 갑자기 발병하여 앓다가 죽었다.
모두가 한 마디 씩 했다.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벌을 주셨도다!"

메이플라워호는 어려운 항해 끝에 드디어 9월 19일에 플리머스 만 앞에 있는 케이프 코드(Cape Cod)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영국을 떠난지 약 10주, 정확하게 말하자면 65일 만에 북아메리카 연안에 도착한 것이다.
당초 식민지 특허를 받은 지역은 버지니아 지역으로 허드슨강 북쪽에 있는 땅이었다. 당시 버지니아는 현재의 버지니아 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지칭했다.
버지니아는 엘리자베스 여왕 때 최초로 이 지역을 영국의 식민지로 삼았던 곳이다. 그 당시 여왕이 처녀여서 여왕에게 헌정하는 충정에서, 첫 식민지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지명이 버지니아가 되었다.
그 지명은 <처녀>를 뜻하는 영어 버진(Virgin)이라는 단어에다 통상 인명이나 지명 끝에 붙는 아(a)를 추가하여 버지니아(Virginia) 라고 명명된 것이다.
당초 특허를 받은 버지니아 지역을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는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7~8일간을 더 내려갔다.
그러나 심한 겨울 바람에 버지니아를 찾지 못하고, 뱃머리를 돌려서 케이프 코드에 있는 프린스타운 항구로 되돌아 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11월 11일부터 열흘간, 드디어 닻을 내리고 메이플라워호는 정박했다.

바로 이 때부터 미국 동부지역은 뉴잉글랜드라는 식민지를 만들게 된다. 이곳에서 첫 식민지로 정착한 곳이 바로 플리머스이다.
이 장소가 또한 미국 역사에서, 첫 페이지에 기록되는 역사적인 장소로 등장한다. 물론 영국 입장에서는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이 첫 식민지였지만 그 결과는 실패였다.
본격적으로 식민지에 정착의 깃발을 꽂은 곳은 바로 <플리머스 정착촌>이었다. 그래서 미국사람들은 자기네 역사를 말할 때 플리머스는 미국역사에서 <정신적 고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플리머스 식민지, 이제 다시 그간 언급했던 플리머스 정착촌의 전후 사정을 다시 쉽게 정리해 보며 지나 가겠다.

메이플라워를 탔던 영국인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갈 생각을 한 첫 번 째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 전에 프랑스에서도 순례자를 자처하는 개혁 신교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영국 청교도들 보다도 이미 55년 전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떠나 왔던 프랑스 정착민들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들은 아메리카에 와서 정착촌을 결코 이루지를 못 했다. 자기들이 도착한 곳에는 이미 스페인 사람들이 죽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프랑스인들이 <포트 케롤라인>이라는 한 정착촌을 잠시 세웠던 루터주의의 개신교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카톨릭이 판을 치고 개신교를 탄압하고 있는 유럽에서 멀리 떠나왔거니 했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개신교도의 신앙촌을 만들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바로 카톨릭교를 국교로 삼고 개신교를 증오하던 스페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 곳에 주둔하고 있던 스패인 군대들이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하룻 밤에 몰려 와서 모두를 몰살 시켜버렸다. 그들이 내뱉는 이유는 바로 이 한마디 였다.
“너희는 루터를 따르는 개신교놈들이야!”

스페인 군대들은 프랑스 개신교들이 살고 있는 정착촌의 담벽에 사다리를 걸치고 넘어 들어 와 야간 급습을 감행했다. 그리고 침실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 때 프랑스에서 온 개척민들이 무려 132명이 학살을 당하고 만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프랑스는 당분간 아메리카 식민지 사업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다시 메이플라워에 탔던 특이한 탑승객들인 어린애 4명 이야기를 잠

깐 언급해 보고 지나 가겠다.
메이플라워호가 영국을 떠나기 전에 부인에게 침을 뱉고 자기 자식들을 메이플라워에 태워서 멀리 보낸 비정한 아버지의 이야기도 있다.

메이플러워에 탔던 탑승자 명단에는 좀 드문 성인 모어(More)라는 성이 있다. 그래서 모어 자식들(The More Children)이라고 적혀있다. 메이플라워에는 당초 102명 중에서 탑승자들의 자녀들인 어린애들이 무려 32명이나 동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 어린이들 4명은 동반한 부모가 없었다. 사연인 즉 이러했다.
4명의 어린이는 모두 부모가 없이 메이플라워호에 태워졌다. 이들은 아메리카로 가는 9세 이하의 어린 나이였다.
이 애들의 부모는 사무엘(Samuel)과 캐서린(Katherine)이었다. 부인 캐서린은 모어의 자식들이라고 해도 의처증이 있는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인이 그저 남자 친구 사이라 해도 그 놈의 자식들이라고 의심을 했다. 왜냐하면 얘들이 커 갈수록 자기를 닮지 않고 그 자를 꼭 빼다 박은 듯이 닮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모아라는 자는 자기 부인과 이혼을 했다.

그런데 당시 영국 법에는 자녀는 남편이 양육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는 부인이 미워서 악의를 품고 애들을 청교도들에게 맡겨서 메이플라워에 태워버린 것이다. 물론 메이플라워 운임요금인 배 삯은 그들의 아버지인 그가 지불했었다.

그 4명의 어린애들은 65일의 항해기간은 잘 견디고 플리머스에 잘 도착했으나 첫 겨울을 못 보내고 한 명은 먼저 죽었다.
그 후 두 명도 죽었고 마지막 한 명이 살아남아서 쌀렘 지역에 정착해서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아버지의 나쁜 혈통을 받았는지, 말년에 남의 부인과 불륜을 저질러서 유죄판결을 받고 처형을 당해 죽었던 것이다.

메이플라워호는 모두 청교도들만 탄 배가 아니었다.
사실상 메이플라워를 탔던 102명 중에서 순수 청교도인들은 과반수를 넘지 않았다. 60명은 영국 국교도(Anglicans)들이었다.
그러나 메이플라워호를 렌트했기 때문에 비용을 덜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가겠다는 것을 막지를 못 했다. 배를 두 척이나 임대를 해서 2개월 이상 항해를 하여 신세계인 아메리카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다.
물론 정착촌을 형성할 때가지 필요한 준비물을 마련하자면 비용도 많이 들었다. 투자자들도 필요했고 식민지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도 필요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아메리카로 가는 목적만은 뚜렷하게 구별하고 싶었다. 그들은 비청교도들을 이방인(Strangers)이라 칭하고 자신들은 순례자(Pilgrims)나 성자들(Saints)라고 자처하고 싶어 했다.

영국 플리머스 항구에서 두 척의 배가 신천지, 아메리카를 향해서 출발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항구를 벗어나기도 전에 한 척의 배인 <스피드웰> 호가 고장이 났다. 게다가 배에 틈이 생겨 물이 선실로 흘러들어 왔다. 그래서 두 배는 일단 회선했다가 <스피드웰>호는 수리가 제 때에 될 수가 없어서 메이플라워 한 척만이 단독으로 가기로 했다. 그렇게 되자 <스피드웰>에 탔던 탑승자들이 우루루 메이플라워로 합류를 하여 총 102명이 탑승하게 되어 메이플라워 호의 선실은 그야말로 초만원 상태가 되고 말았다.
메이플라워의 길이는 겨우 30미터이고 선적 용량은 160톤 규모의 크기여서 선실의 크기도 작은 교실 두 개를 겨우 합해 놓은 정도였다. 우리나라 세월호가 길이가 약 150미터이고, 선적 용량이 약 6800톤이라고 하니, 이를 비교해보면 얼마나 비좁고 작은 배였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메이플라워호가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 살아남은 청교도는 단지 32명이었다. 약 70명이 비청교도들이었다.

이러다간 정착촌이 형성되었을 때 자기들이 원했던 신앙촌 사회를 만들기에 주도권이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들었다. 그래서 청교도들 중에는 몇 명의 탁월한 지도자급 사람들이 나서서 상륙하기 전에 협약을 미리 맺어, 그 협약에 따라 선출한 지도자에게 누구나 복종하기로 했다.
사실상 정착촌이 형성됐을 때 계속해서 청교도들 중에서 플리머스 식민지 지사가 선출되었고, 결국은 비청교도들도 정착촌의 질서와 법규에 따르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비청교도들과의 질서 유지를 도모했다.

플리머스를 정착지로 삼은 이유 중에는 배 안에 싣고 온 맥주가 거의 동이 났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어 여기에 소개해 본다.

청교도들은 검소 근면 금욕 생활을 앞세워 청빈한 기독교인을 꿈꾸어 왔다. 그래서 금지하는 음식물이 많았다. 그러나 맥주는 예외였다. 청교도들은 도가 넘을 정도로 맥주를 많이 마셨다. 사실, 그들은 탑승 전에 메이플라워호에 식수보다도 맥주를 더 많이 싣고 왔었다. 당시 영국은 산업화 시대가 열리면서 공업용수가 하천에 흘러들어 식수 공급이 부족했다.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보다는 집이나 공장에서 빚은 맥주를 물 대신에 즐겨 마셨다.
게다가 물은 집에 오래 보관할 수가 없었다. 영국인들은 왜 맥주를 자주 마시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물은 쉽게 오염되어 함부로 마시면 배탈이 나니까요"
마치 왜 위스키를 자주 마시느냐 물으면 이런 대답으로 변명하는 것처럼 들린다.
"위스키는 충치를 예방하니까!"

크리스마스가 되자 맥주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
두 달 이상이나 좁은 공간에 틀어 박혀 항해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질병에 시달린 사람도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맥주가 바닥이 나고 있다는 소문에 한 동안 배안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맥주는 당시 영국인들에게는 식수였다. 식수가 바닥이 났다고 하니 서로 창고에 있는 맥주를 꺼내먹으려 했다.

드디어 맥주는 배급제로 통제되었다. 맥주를 마시고 싶을 때 못 마시시게 되자 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악몽처럼 느껴졌으며 이런 불평을 토해냈다.
“아! 영국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물 마시듯이 맥주를 마실 수 있었는데~ 젠장 이럴 수가!”
이 때문에 당초 특허를 받았던 버지니아 일부 지역에 정착하는 일을 도중에 포기하고 서둘러 플리머스에 정착촌을 세웠다.
‘맥주 사건’이 바로 그렇게 촉구시켰기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주장도 최근에 나오고 있다.

그런데 당시를 기록한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는 선상에서 비를 받아 마셨다”
사람들은 불평을 하며 물바가지를 발로 걷어차 버린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맥주를 찾는 사람들 먼저 상륙시켜, 숲 속에서 냇물을 찾아 마시라고 사실상 강제로 배에서 내리게 했다.
특히 진짜로 맥주가 바닥이 났는지를 확인하겠다고 선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는 모두 하선시켰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소동도 얼마 가지 않아서 끝이 났다. 왜냐하면 우선 급선무로 맥주를 빚는 임시 가설 공장을 만들어, 물 대신에 마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교도들, 원주민들 무덤을 약탈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 보겠다.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상륙했을 때 그 주변에는 상당수의 인디안들

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막상 해안 지역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도 어떤 인디언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밤이면 아주 먼 곳에서 인기척을 알리는 모닥불이 깜박깜박 이따금 희미하게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인적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훑고 다녔다. 그러다가 텅빈 마을을 발견했다.

살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하얀 뼈들과 해골들이 군데군데 굴러 다녔다. 그리고 마을 저장소에는 식량으로 비축해둔 옥수수와 콩이 쌓여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 원주민들은 한동안 전염병이 마을에 심하게 돌아서 몽땅 떼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그 전염병은 유럽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왔다가 옮긴 병이라고 했다.
아마도 이 마을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여러 마을에서도 90퍼센트 이상이나 마을 사람들이 이 병 때문에 죽어 나갔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마다 사람들은 없어도 비축된 식량은 다소 남아 있어 이것은 영국 청교도들에게는 엄청난 횡재나 다름이 없었다.

청교도들은 우선 다 죽어 없어진 그들에 대한 연민의 정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순례자들인 자신들을 보살펴 주려고 미리 예비한 것으로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감사드렸다고 한다.
죤 윈드롭은 이를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그의 글에 남겼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의 땅으로 예비하여 주셨다”

청교도들은 인디언이 남긴 옥수수를 차지했고 게다가 그들의 무덤도 약탈했다. 그 속에 있는 부장물 속에서 쓸 만한 것은 꺼낸 후에 다시 시신은 묻어 주었다.
플리마스 청교도들이 살아 있는 인디언을 찾으려다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맨 처음 만난 인디언이 나타났다. 그가 맨 처음 요청했던 것은 바로 ‘맥주’였다.

청교도들이 한 창 정착촌에서 살 집들을 짓고 있을 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중 그 인디언 남자는 용감하게도 그들 앞에 접근해 오더니 다짜고짜로 영어로 인사를 하며 다가왔다.

“환영해요, 영국 사람들!”(Welcome, Englishmen!)

모두 깜짝 놀랐다. 서툰 그의 토막 영어였지만 의사소통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사모세트(Samoset) 였다.
그는 손을 내밀며 서툰 영어 발음으로 뭘 달라고 했다.

▲ 청교도 정착촌을 찾아 온 ‘사모세트’ 인디안(그림)

“비어, 비어, 비어!”
바로 그가 원하는 것은 맥주였다.
그는 전에 이곳 연안에 고기를 잡으러 왔던 영국인 어부들을 자주 만났다고 했다. 그리고 맥주도 얻어 마셔 본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몇 마디 토막 영어를 배웠다고 했다. 맥주가 그에게까지 줄

것이 없어서 그 대신에 독한 술을 마시라 했다. 그는 그 술이 더 기분을 좋게 한다고 하면서, 계속 더 마시려고 했다. 이제 자기네 마을로 돌아가라고 해도 가려 하지 않고, 술을 자꾸 더 달라고 칭얼댔다. 할 수 없이 독한 술을 많이 마시게 해서 그날 밤은 캠프에서 곯아떨어진 채 자게 하고, 다음 날 자기네 마을로 돌려보냈다.

그런 인연으로 그 후에 '사모세트'는 청교도들이 죽음의 고비를 맞이했을 때 여러 번 구해주었다. 그리고 그는 앞장서서 청교들과 인근 원주민들인 '왐파노아그' 부족들과 화평조약을 맺게 알선해 주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님에도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최초로 돈을 받고 인디언 땅을 청교도에게 팔아먹었다.
말하자면 그는 미국판 봉이 김선달 노릇을 한 인디언이었다. 그는 땅 매매 문서에 서명까지 한 최초의 인디언이 되었다.

'사모세트'는 자기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가 소개해 준 인디언이 바로 '스콴토'(Squanto)였다. 스콴토는 영어를 영국사람 못지않게, 유창하게 잘했다. 그런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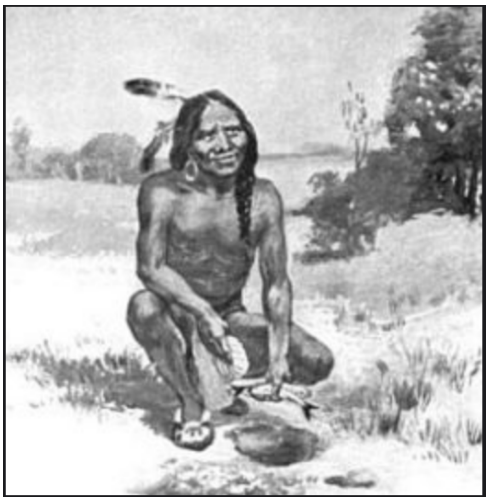
스콴토는 6년 전에 토마스 헌트(Thomas Hunt)라는 영국인을 만나게 되었다. 헌트는 버지니아 제임스타운 식민지 정착촌에서 존 스미스 선장의 뒤를 이어 지도자급으로 정착촌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처음엔 헌트가 다른 23명과 함께 그를 납치해 갔다고 한다. 헌트는 그를 스페인으로 싣고 가서 노예로 팔아먹었다.
그곳에서 스콴토는 다시 한 영국인에게 팔려 갔다.
그는 그 영국인의 하인이 되었고, 그에게서 영어를 배웠고, 그의 통역사가 되어 북아메리카 뉴파운드랜드에서 식민지 사업을 벌이려고 한 그를 따라서 왔다 한다. 그런데 뉴파운드랜드에서 다시 팔렸다.

이번에 주인은 영국인 토마스 더머(Thomas Dermer)였다.

‘더머’는 그를 메사추세츠로 데리고 왔다.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게 되어 그는 고향까지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가 고향인 플리머스에 도착해 보니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었다. 2～3년 전, 고향 마을에 전염병이 휩쓸어서 몽땅 참변을 당한 것이다. 전화위복이라고 그가 납치되어 노예 신세가 된 것이 오히려 그를 살아남게 한 것이다.

고향 지역에 있을 때 자기 주인인 더머가 왐파노아그 인디언들에게 붙잡혀 죽음에 처해 있었다. 이때 스콴토는 왐파노아그 추장에게 애걸복걸 호소하여 주인인 더머의 목숨을 구해주기도 했다.
이에 감명받은 더머는 스콴토를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도록 허용해 주었다.
이렇게 스콴토는 플리머스가 식민지로 정착하는데 통역사로서 큰 역할을 했다.
스콴토는 청교도들을 인디언들에 대한 정복자나 박해자로 보지 않고 오히려 청교도들이 정착하도록 많은 도움을 준 인디언이다.
만약 그의 통역과 또 도움이 없었다면 청교도들의 플리머스 정착촌 건설은 지난했을 것이다.
그는 옥수수 심는 방법과 땅을 북돋아 주고 거름을 주어 재배하는 방법을 정착민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올 때 밀, 완두콩 등 여러 농작물 씨앗을 가지고 왔는데, 씨앗이 상했거나 아니면 아메리카 토양과 기후 탓인지 발아가 잘되지 않았다. 발아된 씨앗도 거친 토질에서 성장이 더디었다.
그러자 스콴토는 인근 개천이나 해안가에서 많이 잡히는 생선이나 이들을 말리다가 썩힌 것들을 옥수수를 심을 구덩이 마다 생선 3～4마리를 묻어서 거름으로 삼는 법과 한 구덩이에 옥수수 낱알을 3～4개 함께 심고, 이것들이 움이 트면, 북돋아 주고, 바람이나 빗물에 견디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장어나 생선들은 갈대 줄기로, 한쪽은 막았다 열 수 있는 통발


▲옥수수 심기와 생선으로 거름 이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스콴토 모습

을 만들어 물고기 떼가 모이는 곳에 설치하여, 잡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그 통발은 박물관에 전시품을 보니까 마치 옛날 우리나라에서 죄수들의 머리에 씌웠던 용수처럼 생겼다.
그리고 그는 과일이나 식용 열매를 많이 채취할 수 있는 장소도 가르쳐 주고, 약초들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조개 등 어패류를 바닷가에서 돌이니 바위를 들추어서 잡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인디언들의 특산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또한 인근 인디언들과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상거래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는 도가 지나쳤다. 그는 일부 정착민과 인디언들에게 총이나 고급 기술 등 무기 거래도 주선했다. 그리고 영국인 말고 기타 유럽인들과 인디언 사이에 교역도 관여하였다.
그는 그런 거래를 통해서 선물이나 대가도 양쪽에서 받으며 나름대로 챙겼다. 어떤 경우에 인디언들이 거래 상품가를 너무 비싸게 부르고, 자기가 요구한대로 들어 주지 않으면, 영국인들이 무서운 전염병을 뿌리거나, 총이나 대포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거라는 등 헛소문이나 겁박을 주기도 했으며, 영국인들을 믿고 권력자 인양 과시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점차 인디언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그의 행동은 거침없이 너무 멀리 나가고 있었다. 그는 왐파노아

그 부족의 추장인 '마사소이트' 면전에서도 화를 버럭버럭 내기도 했다. 그는 추장이 자기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영국인들을 동원해서 그를 죽여 없앨 수 있다고까지 했다.
그리고 때로는 영국인들마저도 속이려고까지 했다.
어떤 때는 영국인들에게 왐파노아그 족을 먼저 공격해서, 추장을 없애야 한다고 확신시키려 했다.
이렇게 되자 왐파노아그 추장인 마사소이트는 스콴토가 2중 간첩으로 농간을 많이 부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영국인들에게 알리면서 그의 목을 달라고 요구했다.
영국인들은 한때 그렇게 하려다가, 아무래도 당분간은 스콴토의 도움이 더 절실하다고 믿고, 오히려 당분간은 스콴토 편을 들며 그를 한층 보호했다. 실제 그가 중요한 역할을 잘 해왔기에, 청교도들도 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도 1622년에 인디언 열병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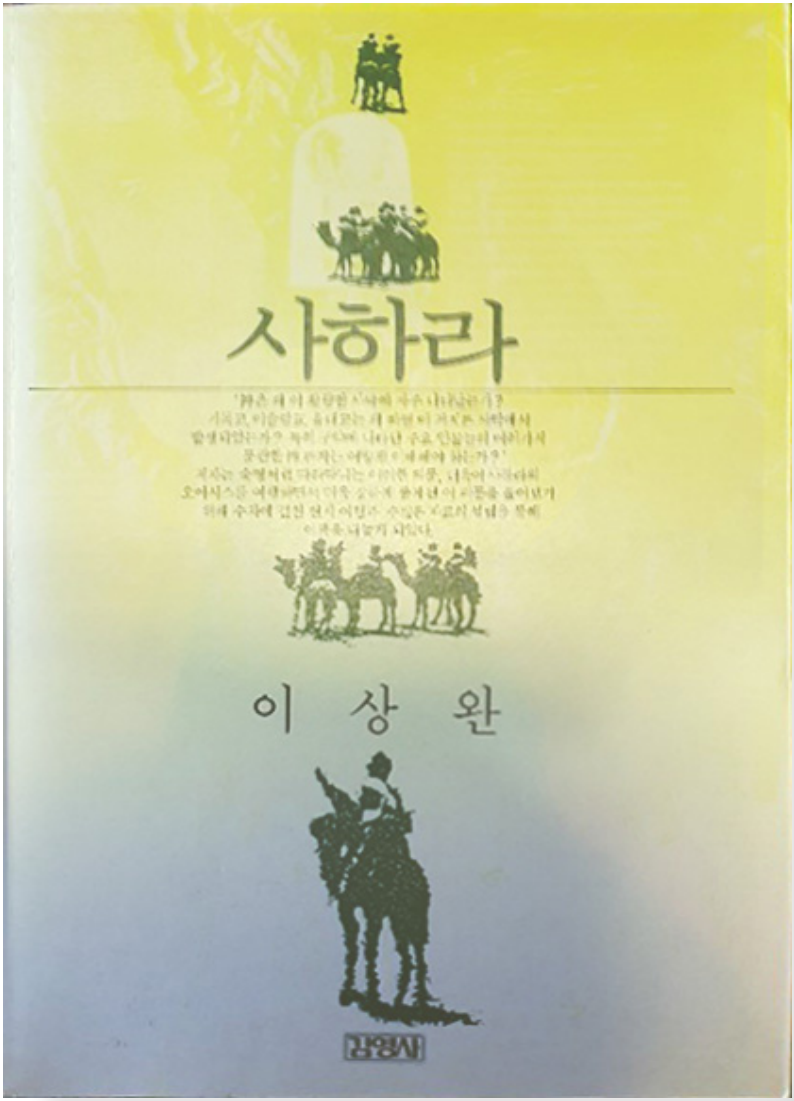
당시 플리머스 지사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그의 죽음을 "청교도와 정착촌에는 큰 손실"이었다고 안타까와하면서 그의 저서에 기록을 남기었다.
아무튼 플리머스 식민지(Plymouth Colony)는 버지니아 다음으로 북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영국의 식민지가 된 곳이다.
물론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첫 번째이다.
플리머스 식민지는 1620년부터 1691년까지 71년간 북아메리카에 개척된 영국 식민지의 선구적 지역으로 있다가 메사추세츠 식민지에 통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최초의 플리머스의 지명은 존 스미스 선장에 의해 사전 탐사되어 그 이름이 '뉴 플리머스'로 지어졌었다.
이 '뉴 플리머스'는 그 지역 식민지의 수도가 되었고, 현재는 매사추세츠 주에 속하는 '플리머스' 카운티가 되어 있다. 그 전성기의 플리머스 식민지는 현재의 매사추세츠 주 남동부의 대부분의 땅을 영유하고 있었다.

플리머스 식민지는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청교도들, 일명 '필그림 파더스'(Pilgrims fathers)로 알려지게 된 종교 분리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북미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설립된 가장 초기의 영국 식민지가 되었다. 그리고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최초로 상당한 규모의 개척지가 되었다.

특히 앞서 말한 인디언 스콴토의 도움을 받아, 플리머스가 식민지로서의 성공을 보증해 준, 〈마사소이트 추장과 평화조약〉을 맺을 수도 있었다.
플리머스 식민지는 특히, 인디언과 가장 초기의 유혈 전쟁이 된 '필립 왕 전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 후 1691년에 플리머스 식민지는 '매사추세츠 주와 합병'되어 버린 것이다.

플리머스 식민지는 미국 역사에서 특별하다.
제임스 타운의 많은 개척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플리머스 청교도들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터를 찾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식민지 사회제도, 법적 체계는 개척민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플리머스 식민지의 많은 사람들과 또 그것을 둘러싼 사건은 미국의 신화가 된 '추수감사절'과 더불어 북아메리카의 전통이 된 '플리머스 바위'라는 기념비를 탄생시켜 놓기도 했다.
플리머스 식민지는 비교적 단기간에 소멸되었지만, 오늘날 '미합중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에 초석이 되는 중요한 표상이 되어 오고 있다.


사하라
이 상 완
강영사

월산 이상완

호: 월산越山, 전남 고흥(1945), 향토사학자, 수필가,
고흥동초등학교, 고흥중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1964), 서울대학교 언어학과(1974) 졸업,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원 수료, 아랍어 및 고대 이집트 문화사 전공(1977~1979), 미국 조지타운대학원 졸업(이슬람 문학 및 중동관계 전당)(1981~1986) 주이집트, 주리비아, 주미대사관 및 주호놀룰루 총영사관, 바로영어전문학원 경영(서울, 1992~2012-20년),《한강문학》수필부문 추대 등단(2020), 한강문학회 편집위원, 저서《사하라》(김영사, 1987), 현재활동: 향토사 연구 및 블로거, 발간작품: 〈조선시대 천재 이야기꾼〉, 〈어우당 유몽언〉, 〈오리점에 묻힌 슬픈 로맨스〉(화가 나혜석 이야기), 〈한국미술계 큰 별이 지다〉(화가 천경자 이야기), 〈마크 트웨인 & 스토우 부인 하우스 탐방기〉, 〈헤밍웨이 주요 작품 탄생지 '키웨스트 섬' 탐방기〉 외 다수

추모시

김광림 - 이중섭과 김광림

李仲燮 생각 1 외 9편

金光林

따분해서 그렸고
배고파서 그렸고
그리워서 그렸다

한지에도 그렸고
시험지에도 그렸고
널판지에도 그렸고

은박지엔 철촉 자국
책뚜껑엔 G펜 자국
장판지엔 연필 자국

자국 자국
그리고 그리고
또 그렸다

부리에 꽃물이 들도록
연방 지상에
꽃잎을 쪼아 떨어뜨리다가

홀연
날아 가버린
이상한 새.

李仲燮 생각 2

金光林

손바닥만한 空間만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는 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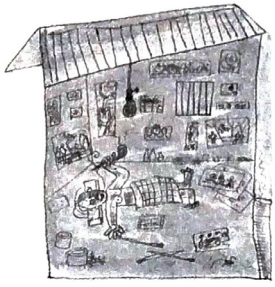
그는 詩人이 부러워
詩처럼 그림을 그렸다

깡술 들이키다 말고
때꾹 낀 장판이나
광고 없는 책표지나
시험지 여백 같은 게
모두 예쁜 계집만 같아
호락호락 넘어 선
線과
직직 문질러 댄
色

다하지 못한 情을
葉書에다 그리고
은박지에 그려서
고통을 환희로 바꿔 친
한 사내가

거뜬히 詩의 수렁 속을
가고 있다
갈증도 모르고
허기도 저버린 채.

▲이중섭 판잣집 화실(1954)



李仲燮 생각 3

金光林

八朔童이 첫아들이 죽었을 때
그는 곤드레만드레가 되어
죽은 애 또래의 살아 있는 애들을
그리고 있었다

저승동무 길동무로

天桃 따는 애며
맨손으로 물고기 잡는 애들이랑
鶴 타고 날아다니는 애도

상기도 애비 목 틀어잡는 녀석이며
여직 에미 젖가슴 뒤지는 녀석서껀
오오라 게한테 물린 고추녀석이
제일 늦구나
개구장이 코흘리개 오줌싸개 울보랑
모두 모두 모이자
그는 잠자코 붓을 놓았다
그리고 죽은 애 목덜미에
그림을 걸어주었다

십자가보다 더 빛부신 童心을.

李仲燮 생각 4

金光林

왜
그는
자신의 그림을
가짜라고 우겼을까

그가 진정
진짜로 그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판장에 와서도
여직 살아
꿈틀대는
어기찬 생명력이며

톱밥을 뒤집어쓴 채
다가오는 살육의 손을
피나게 무는
염치없는 집게발이거나

한참씩
위아래로 꼬나보다가
불시에 도약하여 덜미를 낚아채는
닭싸움이거나

숨막히게
오줌을 내깔기는
탱탱한 고추 같은

아뭏든 그런 것들을
왜
그는
더
지켜보지 않았을까.

李仲燮 생각 5

金光林

北에서는
사물을 정직하게 그리지 않는다고
주관을 과장한다고
공포감마저 자아낸다고
인민을 기만하는 敵으로
그를 몰아부쳤는데

南에서는
천진무구한 동심의 소치를
자연인의 벌거숭이 자태를
자유분방한 戱畫를

음탕한 춘화로 몰아
그의 그림을 제거하기도 하였는데

이제 문제의 그림을 두고
은지화인지
은박지 그림인지
아무래도 좋을
두 낱의 호칭을 놓고
오늘도 나는
번갈아 밀쳤다 당겼다 하며
그가 발 붙일 수 없었던
이 땅의
南과 北의
어이없는 처사와 중뿔난 경우를 생각는 것이다.

李仲燮 생각 6

金光林

살아서 못누린 주거(住居)를
망우리(忘憂里)에 와서 지녔구나

따분함도 배고픔도 그리움도 모르는
그곳에서
다시는 맥나는 일도 없을

무덤 속에서
그는 소나무로 환생(還生)하여
남몰래 자라며 크고 있구나

세상에 떠도는 수다한 말씀 따윈
아예 귓전에도 없구나

다만
비명(非)에 간
청년 조각가 C씨가 져나른 묘비(墓碑)가
두꺼비마냥
우두커니
그를 지켜보고 있구나.

化身

金光林

웅크린 황소
멍에 진 붉은 산
등성이에서 소년이 하모니카를 불고 있다
호수에 잠긴 한나절
황소는 투박한 입술로 풍경을 되씹기 시작한다

발톱엔 징이 박혔다

모가지는 코에 걸렸다
고삐엔 주일도 없다
늘 뜨악한 언덕 위의 비구름.

主日

金光林

渴求의 제비 새끼들
노오란 코오러스
少年 聖歌隊는
발돋움하는
橄欖나무 잎사귀

목이 마려운
파이프 올갠
빛이 부신 音階를 밟아 내리면
그늘진 寺院

목둘레가 바알간 少年 服事들이
세 차례나 드나들었다
긴 燭臺를 들고
天上에 불을 켜는 그들이다.

沙漠

金光林

사막이 없는 나라의 메마름
잡음으로 그득 찬 도시에서는 햇빛을 받아들일 겨를도 없다
모래불을 일굴 기력도 없다
줄기찬 隊商을 거느리지도 못한다
하이웨이를 달리는 올훼의 잔등은 서늘하다
모두가 즉흥적이다 파장난 곡마단이다
회오리치는
사막이 없는 나라에서는 막연한 갈증에 사로잡힌다
일요일 때문에 목이 갈한 종소리
신앙을 휴대하고 다니던 종교가 익사 직전에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영혼만이 이를 구할 수 있다
육체를 떼어버린 사람을 찾아야 한다
한밤중 정신병원에서는 미처 격리되지 않은 웃음이 터지고 있다
태엽이 끊긴 벽시계가 空間을 알리고 있다

화가 李仲燮은 사막으로 갔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아랫도리를 게의 예리한 발톱에 찝힌 것이다
물린 순수의 피나는 異蹟을 담배 은종이에 나타내었다.

김광림金光林 약력

문단의 원로 김광림(본명 김충남) 시인이 2024년 6월 9일, 별세했다. 향년 95세, 한국 모더니즘 시의 전통을 이어온 것으로 평가받는 김광림 시인, 한국시인협회.
1929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8년 단신으로 월남했다. 홀로 시를 습작하던 중 청록파 시인 박두진의 권유로 '연합신문'을 통해 시 〈문풍지〉로 등단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육군 소위로 참전, 1959년 첫 시집 《상심하는 접목》을 펴냈다.
1961년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김종삼, 김요섭 시인 등과 함께 《현대시》의 창간 동인으로 참여, 2009년 《허탈하고플 때》로 '청마문학상' 수상, 총 18권의 시집을 출간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정지용, 김기림에서 시작해 김광섭, 박남수 등으로 이어져 온 한국 시의 모더니즘 전통을 잇는 시인으로 자리함.

이중섭과 깊은 인연, '은박지 그림'

-. 시인 김광림과 화가 이중섭(1916~1956)의 인연은 해방 직후인 1947년 원산에서 이중섭을 처음 만나 화가가 작고한 1956년까지 우정을 이어갔다.
-. 이중섭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은박지 그림'은 김광림 시인에 의해 탄생했고, 세상에 살아남았다.
-. 시인 김광림은 군 장교 복무 시절, 이중섭의 요청에 따라 외출을 나올 때마다 보급품 박스 속에 있던 양담배 은박지를 모아 이중섭에게 전해줬다고 한다.
-. 이후 자신의 예술 활동에 회의를 품은 이중섭은 김 시인에게 "내 그림은 다 가짜"라며 모두 불살라버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 하지만 그는 은박지 그림과 소품들을 잘 보관했다가 이후 이중섭 화가와 같이 머물고 있던 소설가 최태응에게 모두 돌려줘 그림들을 살려냈다.
-. 그는 2006년《진짜와 가짜의 틈새에서-화가 이중섭 생각》이라는 책을 펴내 두 사람의 인연을 기록했다.
-. 이중섭에 대한 8편의 연작시,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화가의 인생을 회고했다.

▶중앙일보 이영희 기자의 인터넷에 올라온 〈이중섭 은박지 그림 살려냈다…'韓율리시스' 시인 김광림 별세〉 기사에서, '중요한 핵심 부분 중 일부'를,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한강문학》 편집부)

소의 말

李仲燮

높고 뚜렷하고
참된 숨결

나려 나려 이제 여기에
고웁게 나려

두북 두북 쌓이고
철철 넘치소서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아름답도다 여기에
맑게 두 눈 열고

가슴 환히
헤치다.

* 이 글은 1951년 봄 피난지 서귀포(제주도)의 李重燮씨 방벽에 붙어있던 것을 조카 李暎進씨가 暗誦, 전한 것임.

▲〈포기각서〉 저작권법 때문에(국가기관소유물까지), 민족적, 문화유산級임에도 불구하고, 영리, 비영리를 막론하고, 절차가 완벽하여, 단 한 점의 그림조차, 소개를 포기합니다.

李仲燮 약력

평남평원군송천리에서 출생(1916), 오산고등보통학교 졸업(1934), 이중섭 일본유학시절, 제국미술학교 1년 수료, 문화학원 미술과 졸업(1940), 일본 미술창작가협회에 유화 〈소와 소녀〉 출품(협회상 수상), 신미술가협회를 결성, 창립전(1941), 일본 여인 이남덕과 결혼(1945), 원산사범학교 미술 교사로 부임(1946), - 1주일만에 사직, 닭을 기르며 '닭그림'에 매진, 6.25 남침으로 부산으로 피난(1950), 제주도 이주(1951), '미도파 화랑'에서 개인전(1955), 영양실조와 정신분열증으로 성가병원에 입원, '서대문적십자병원'에서 홀로 숨을 거둠(1956), 무연고자로 취급 - 3일간 시체실에 방치, 친지들에 의해 화장된 후 망우리에 묻힘.